

2023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 민주야 여행 가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023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 민주야 여행 가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 CONTENTS

|                                       |            |
|---------------------------------------|------------|
| <b>01 산곡남초 2365 팀 : 민주야 여행 가자!</b>    | <b>5</b>   |
| 부산편                                   | 7          |
| 인천편                                   | 10         |
| 서울편                                   | 11         |
| <b>02 동상이몽 팀 : 노동운동으로 바라본 민주화</b>     | <b>17</b>  |
| 소개 및 배경                               | 20         |
| 기행 1일차                                | 25         |
| 기행 2일차                                | 28         |
| 마무리 제언                                | 29         |
| <b>03 우노안 팀 : 우리의 노동은 안녕한가</b>        | <b>33</b>  |
| 동기 및 개요                               | 36         |
| 울산노동역사관1987                           | 39         |
| 부산 민주공원                               | 40         |
| 서울 전태일 기념관                            | 42         |
| 인천 미안마 마을                             | 44         |
| 느낀점                                   | 45         |
| <b>04 풀부리 팀 : 노동현장에서 싹튼 민주주의</b>      | <b>47</b>  |
| 들어가며                                  | 48         |
| 답사보고서(인천, 서울, 대구, 울산)                 | 49         |
| 마무리하며                                 | 62         |
| <b>05 하모니 팀: 4.19혁명 한국 민주화 운동의 불씨</b> | <b>65</b>  |
| 서론                                    | 66         |
| 경상권(마산, 부산)                           | 67         |
| 서울                                    | 78         |
| 인천                                    | 90         |
| 결론                                    | 98         |
| 후기                                    | 99         |
| <b>06 4월부터 6월까지 팀: 민주야 여행 가자!</b>     | <b>101</b> |
| 탐방 전체 일정                              | 103        |
| 탐방 동기                                 | 105        |
| 인천                                    | 106        |
| 여수                                    | 121        |
| 제주                                    | 125        |
| 서울                                    | 132        |
| 탐방 후기                                 | 135        |
| 자료 출처                                 | 137        |
| <b>07 사남매와 깎두기 팀 : 민주야 여행 가자!</b>     | <b>139</b> |
| 팀소개                                   | 140        |
| 강원 원주                                 | 140        |
| 경기 이천                                 | 145        |
| 인천 부평                                 | 147        |
| <b>08 새내기 동맹 팀 : 시대에 따른 민주주의 변천사</b>  | <b>151</b> |
| 탐방 계획                                 | 153        |
| 근현대사 기념관                              | 154        |
| 부평역 광장                                | 155        |
| 독립기념관                                 | 156        |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157        |
| 정읍시 충무 공원                             | 158        |
| 여행을 다녀온 후                             | 158        |
| <b>09 방위 팀 : 민주야 여행 가자!</b>           | <b>161</b> |
| 탐방개요                                  | 163        |
| 첫째날                                   | 164        |
| 둘째날                                   | 165        |
| 셋째날                                   | 167        |
| 마치며                                   | 169        |

2023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자료집

# 민주야 여행 가자!

# 01

산곡남초 2365 팀

선정인

이서영

이한빈



# 2023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산곡남초 2365 팀 선정인 이서영 이한빈  
부산편 / 인천편 / 서울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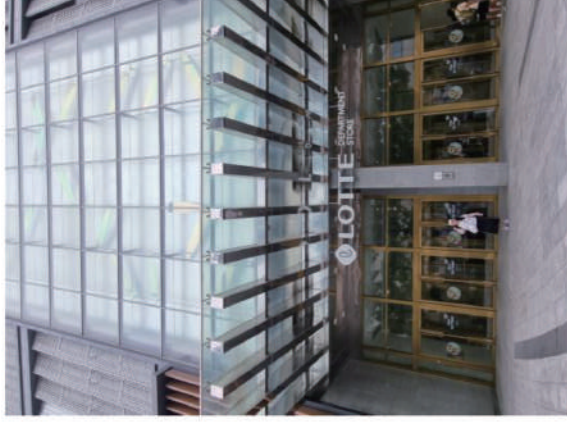
## 2023.09.03. 부산편

## 부마항쟁 '시내로' 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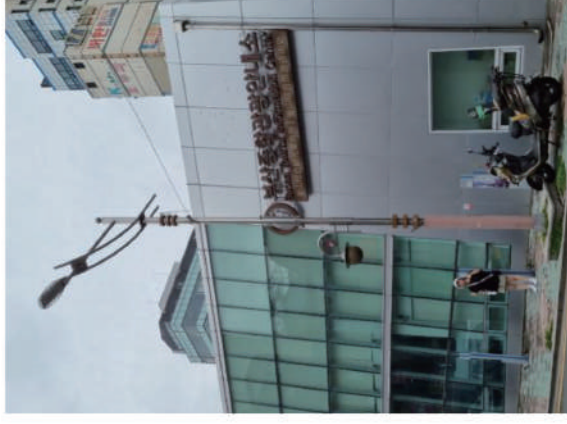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대가 지났던 루트를 따라 중앙역부터 자갈치역까지 걸으며 거점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당시 방송국, 신문사, 시청 등 시위대의 진격 목표 지점이었던 유신체제 옹호 기관들은 대부분 현재 형태가 남아있지 않았으며, 다른 건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부산 MBC (현 다원중앙타워)



부산시청 (현 롯데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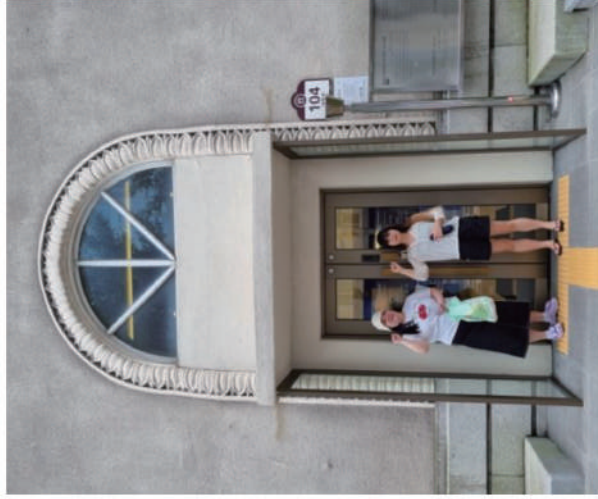


남포파출소 (현 종합관광안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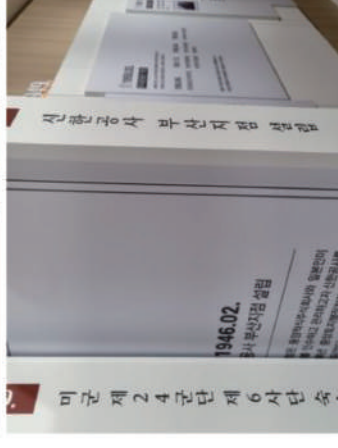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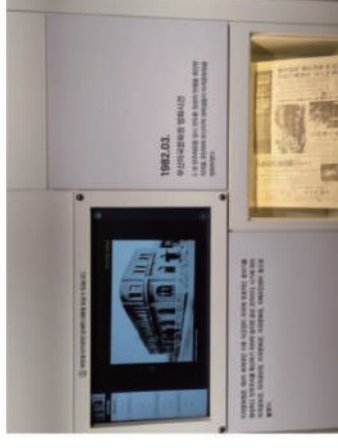
## 2023.09.03. 부산편

## 부마항쟁 '시내로' 루트

그 중 부산미국문화원은 당시 대청동 일대 격전지 중 한곳으로, 현재는 부산근대역사관으로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역사관 안에는 해당 건물에서 일어난 근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적혀있었다.



부산미국문화원 (현 부산근대역사관)





## 2023.09.03. 부산편

### 부마항쟁 '보수동' 루트

걸어서 보수동 책방골목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는 최성묵 목사를 중심으로 항쟁을 이끈 부산중부교회, 사회문제를 토론했하던 양서협동조합 등 민주화의 중심에 있던 단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시내 한가운데 있는 부마길 표석을 찾아내기도 했다.



부마길 표석(부산 중구 종구로 일대)



보수동 책방골목, 부산중부교회, 양서협동조합

## 2023.09.24. 인천편

### 부평역 '인천 6월 항쟁'

부평역 앞 광장엔 '6월의 꽃 촛불로 타오르다' 라는 문구가 적힌 비석이 있는데,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발견하지 못했었다. 1987년 6월 이곳에서 민주헌법쟁취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결기대회가 열렸다고 한다. 부평역, 부평공원 등 평소 자주 다니던 장소 곳곳에 민주화와 관련된 스타일이 남아있는 것을 찾아보며, 당시 전 지역적인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 2023.10.01. 서울편

## 서울 성공회 서울성당

시청역 부근 성공회 서울성당은 1987년 6월 항쟁의 시작 거점 중 하나이다. 당시 이곳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및 4.13조치 규탄대회(6.10국민대회)가 열렸다고 한다.  
내부에는 '유월민주항쟁진원지'라고 작성된 비석이 남아있다.



## 2023.10.01. 서울편

## 서울 성공회 서울성당

성당바로 앞 도로변에는 4.19혁명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곳을 당시 국회의사당앞이었다고 한다. 4.19혁명과 성당에서 본 6월 민주항쟁은 약 20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의지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각기 다른 지역, 각기 다른 시간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역사를 다시 되새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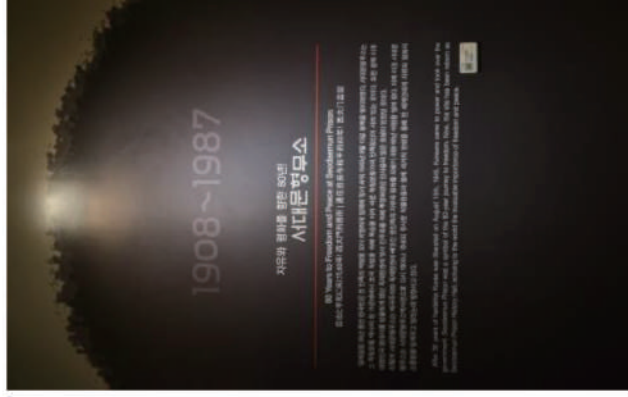




2023.10.01. 서울편

서대문 형무소

이후 독립문역으로 이동하여 서대문형무소에 방문했다. 그동안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에만 사용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민주화 열사를 가두고 죽이고 죽이는 데에도 사용했다는 게 정말 잔인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많은 민주인사들이 이곳에서 사형당했다고 한다.



## 마무리하며

## 개인 소감

### 선정인

평소에 잘 가볼 일이 없는 곳에 갈 수 있어서 좋았다.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그 이름이나 굵직한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그 자세한 내막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잘 느껴보지 못한 것 같았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다. 글씨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현장감을 이번 기회에 마주하며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 정신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 이서영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어서 보람찼고, 못 가본 곳이 있어서 아쉽기도 하다. 특히 부산에 갔을 때 일정을 더 할애해서 부산대학교 근처에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장소에도 둘러보고 싶었는데, 날씨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게 된 점이 아쉽다. 그러나 보수통 책방거리에 우연히 둘러 사진관에도 방문하면서, 실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된 것도 같다.

### 이한빈

좋은 기회를 얻어 친구들과 여러 곳에 다닐 수 있어서 좋았다. 사실 평소에는 민주화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할 일이 잘 없었는데, 이번 에 부산과 서울, 인천 곳곳을 다니며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일상생활 곳곳에 있는 민주화 스포츠를 보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당시 사람들의 의지에 대해서 되새길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다.



## SNS 당일 인증글

## 개인 블로그 링크

### 선정인

[부산] <https://m.blog.naver.com/sun0723000/223206385749>

[인천] <https://m.blog.naver.com/sun0723000/223234107014>

[서울] <https://m.blog.naver.com/sun0723000/223234164207>

### 이서영

[부산] <https://blog.naver.com/young0426/223201464919>

[인천] <https://blog.naver.com/young0426/223220432133>

[서울] <https://blog.naver.com/young0426/223230676166>

### 이한빈

[부산] <https://m.blog.naver.com/hanvin0711/223201443673>

[인천] <https://m.blog.naver.com/hanvin0711/223220442545>

[서울] <https://m.blog.naver.com/hanvin0711/223230683817>





2023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자료집

# 노동운동으로 바라본 민주화

# 02

동상이몽 팀

오정근

조건희

김상민

# 2023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 노동운동으로 바라본 민주화

동상이몽 - 오정근, 조건희, 김상민





배후선역의전인모모를



배소 팀원 소개



## 팀명 소개

# 동상이몽(同床異夢)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다는 뜻으로,  
결국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

호주민권리노동

주배비포 vs 배비주

# 동상이몽(同床異夢)

유이정선 명

## 탐방 배경

뉴스룸 | 최진기 기자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3.05.02 14:50 | 최종 업데이트 23.05.02 14:54 | 윤성호(cjnews) >

출고시간 | 2023-09-28 07:11

HOME > NEWS > 전국 > 대전세종충청

사회

## 대전고용노동청, 노동관계 임금 체불 시위 중 분신 시도한 택시기사 숨져

2023년 10월 06일 13시 57분 댓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대전·충남·충북·경북 1년 단위 고용계약 다수 고

사회 | 강원제주

...나 7만건 육박

"노동탄압" 맞서 분신했던 건설노동자, 끝내 사망  
2일 오후 1시 9분경 숨 거둬... 건설노조,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 논의  
23.05.02 14:50 | 최종 업데이트 23.05.02 14:54 | 윤성호(cjnews) >





## 기행 1일차



**부평공원**  
소녀상, 강제징용노동자상



**캠프마켓**  
구) 일제 조병장

## 기행 1일차



북영농민회(구)사무소  
농민회사무소



평화시장의  
전태일 동상

## 기행 1일차



## 전태일 기념관

## 기행 2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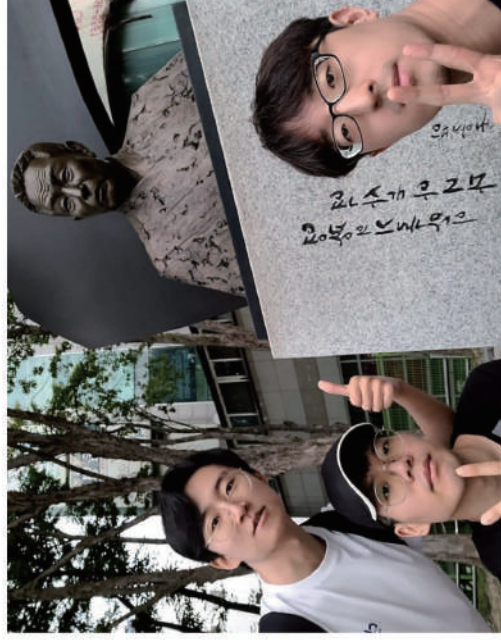
SK허브그린 오피스텔  
구보시당신 (구)



전인역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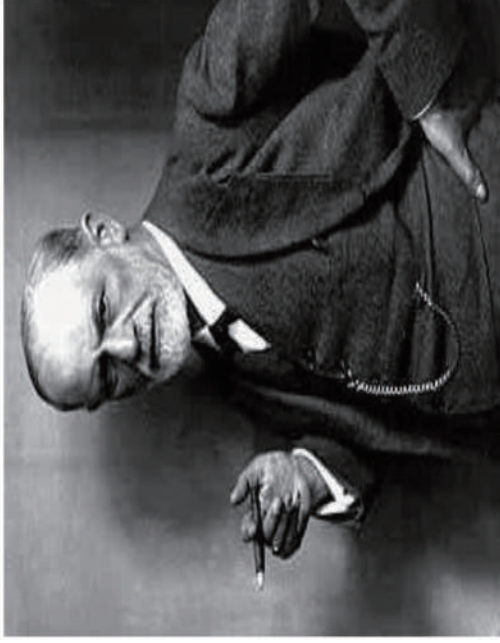
## 기행 2일차



신부공원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비, 임종국 동상



## 마무리



“자살의 원인은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시스템의 변화가 개인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 제언

제정된 법 준수, 노동자가 처한 불합리함 개선하는 사용자의 문화  
법적인 자원의 국가적 보호

근로자와 외자회사  
공생의 공생을 통한 노동자 본주의 경영  
최소한의 인간 존엄 생활 보장



2023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자료집

# 우리의 노동은 안녕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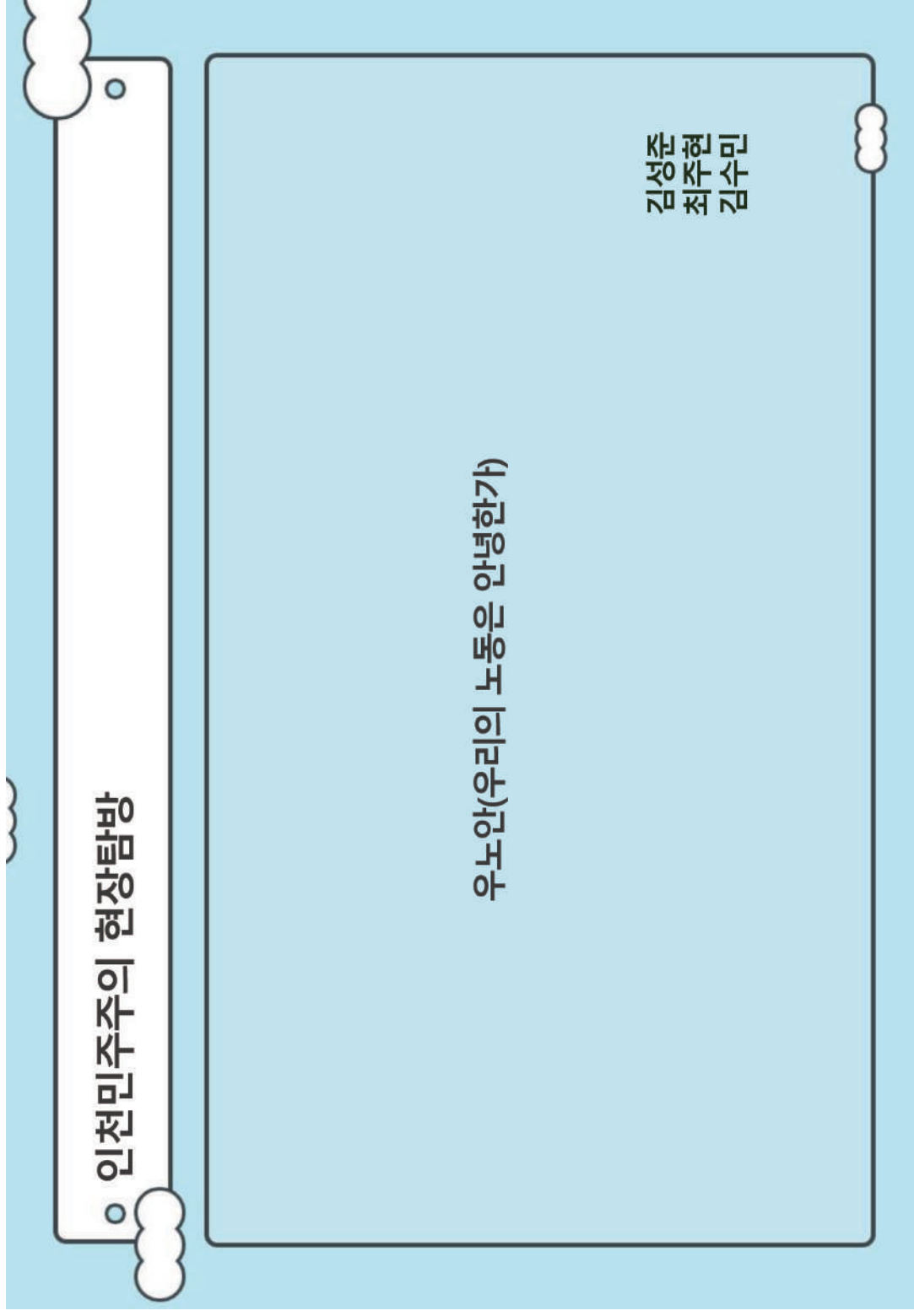
# 03

우노안 팀

김성준

최주현

김수민



|                           |                                         |
|---------------------------|-----------------------------------------|
| ○ 목차                      |                                         |
| 동기 및 개요                   | 느낀점                                     |
| 2023. 9. 9<br>울산노동역사관1987 | 2023. 9. 10<br>부산 민주공원                  |
|                           | 2023. 10. 14<br>서울 전태일 기념관<br>인천 미안마 마을 |



## 동기 및 개요

- 같은 고등학교
- 모두 다른 상황
- 민주주의 발전으로 정말로 삶은 나아지는 것일까?
- 지난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살리자



노동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주제로  
부산, 울산, 서울, 인천으로 탐방 계획

## 1. 울산노동역사관 1987



- 최초
- 울산·현재
- 1987
- 이주
- 팬데믹

## 1. 울산노동역사관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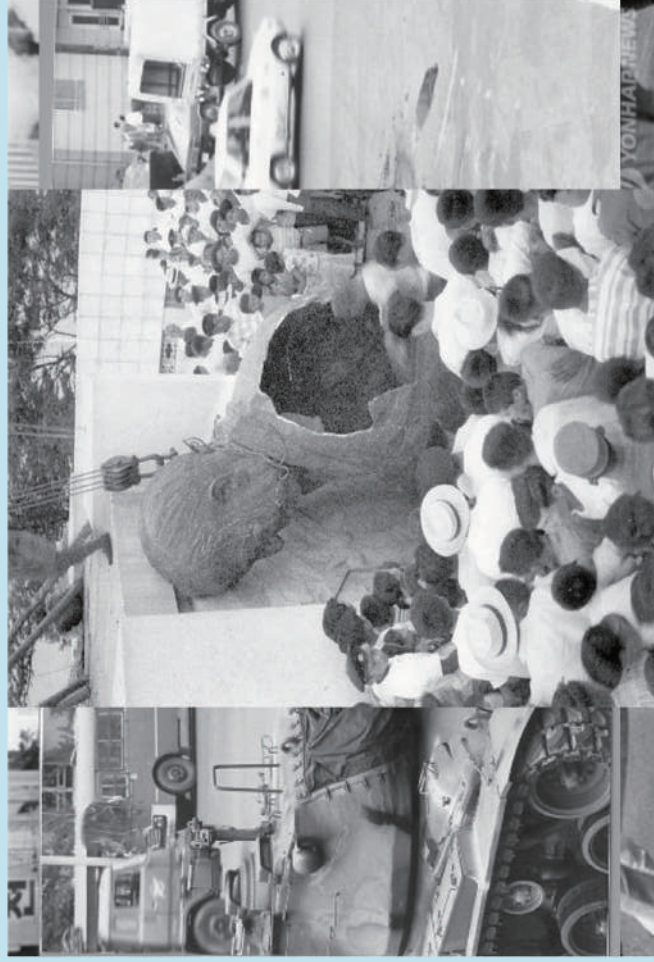
## 2. 부산 민주공원

- 1960년 4월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항거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을 끝낸 민주주의 시민 혁명
- 1979년 10월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 마산시 등의 지역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 1987년 6월 전국에서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시위인 6월 항쟁

↑ 4.19 민주혁명과 부마 민주항쟁 및 6월 항쟁으로 이어져온 부산 시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민주공원



## ○ 2. 부산 민주공원



부산민주공원



## 2. 부산 민주공원



### 3. 서울 전태일 기념관

-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단체인 **전태일노동조합**의 분신 이후 노동운동가가 되어 노동운동의 대모로 불리게 되었다.
- 평화시장 봉제공장에 취직, 재단사로 일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였던 인물
- 사후 그는 노동열사로 추서되었으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무궁훈장이 추서
- **노동환경의 현실을 알리고자 박정희 정부와 자본기업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전태일 열사의 등장의 이적과 이후로 나뉜다."**
-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자살하여 22세에 생을 마감

### 3. 서울 전태일 기념관





## 4. 인천 미얀마 마을



## 느낀점

여행 겸 부산과 울산으로 지역을 정하고 출발할 때에는 피곤한 느낌이 있었고 너무 멀리 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노동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속에서 끌어 오르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도 노동권리를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잘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을 송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기리는 방법이다.

또한 미안마의 상황이 호전되어 그들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평화가 오길 기도한다.



2023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자료집

# 노동현장에서 싹튼 민주주의

# 04

풀뿌리 팀

김자영

이라헬

황민희

# I. 들어가며

## 1. 모듬소개 및 지원소개

인하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본 팀은 민주주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시작하여 이루어지게 된 팀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의 발단과 성장과정을 풀뿌리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보고자 모듬명을 풀뿌리로 하였으며, 특히 노동자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의 씨앗인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접목하여 새로운 시각으로의 민주주의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인천과 전국에서 발생된 노동자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시각을 넓히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2. 탐방주제와 계획소개

본 탐방은 노동자로부터 시작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탐방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제에 의하여 징용된 노동자들과 삼원 섬유 노조에 관하여 탐방하고, 그것이 인천의 노동자 민주화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또 서울권에서는 노동자 전태일의 일대기를 알아보며 그의 삶이 현대 노동운동과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을 보고자 합니다. 노동현장에서 싹터 노동권 및 인권의식의 신장이 민주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추측 하에 경상권에서는 대구와 울산을 방문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형태인 현대사의 노동자 운동 및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몇몇 민주주의거에 대하여 탐방하고자 합니다.

## II. 답사보고서

### 1. 인천 답사

인천의 역사는 노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인천 동구 만석동과 화수동 일대 갯벌을 메운 자리에 거대한 공장들이 들어섰다. 이는 일제가 1920년 개항기 부두 노동자부터 70년대 산업화과정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위해 인천으로 왔다. 그리고 그 안에는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노동자의 삶의 이야기가 있었다. 너도나도 힘들었던 시절, 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처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노동자 현장의 흔적을 따라 [삼원섬유 노동조합터 -> 동일방직 인천 공장-> 미문의 일꾼교회(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이와 같이 답사를 진행하였다.

#### 1) 삼원섬유 노동조합터



삼원섬유 노동조합터 단체사진



삼원섬유 노동조합터  
(부평구 청천동 418,현 로얄금속 버스정거장)



삼원섬유 노동조합터 큐알코드  
링크 접속시 화면

첫 번째 답사 장소는 부평이었다. 부평은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으로 1960년대 초반부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전기·전자부품 등 기계업종 산업이 자리 잡으면서 대규모 공장이 들어섰다. 이후 노동자들은 일거리를 찾아 몰려들었고, 그들의 삶은 지역에 깃들여 있는 중요한 장소였다.

그중, 1970년대 부평산단 내 위치한 삼원섬유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었다. 근무시간이 1일 18시간 이상인 적도 많았고, 장시간 무리한 노동으로 폐결핵 등에 시달려야만 했다. 노동자들은 긴 투쟁 끝에 1973년 12월 노조 설립을 이뤄냈다. 삼원섬유 노조 사무실 터인 부평구 청천동 418은 인천 민주화 운동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가진 곳으로 과거 사무실이 있던 자리에는 버스정류장이 대신하고 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인천 최초의 노동조합 탄생지인 이곳에 표석을 세웠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 표석을 통해 ‘이곳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이곳이 이런 곳이었구나’ 하고 짧게나마 되새길 수 있었으며, 표석에 있는 큐알코드를 통해서 삼원섬유가 어떤 곳이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삼원섬유 노동조합은 1973년 12월 12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수출산업공단 내에서 전국 최초로 결성된 노동조합이었다. 당시 전국섬유노조 경기지부 소속 분회로 유해우를 분회장으로 선출하여 활동하였다. 유신 초기인 당시는 노조 결성이 엄격하게 통제되던 시절이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노조 결성에 성공한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 삼원섬유 노조가 최초였고, 삼원섬유 노조는 부평공단 최초의 노조이기도 했다.

삼원섬유 노조는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 특례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결성된 전국 최초의 외국인 투자기업 노조로 반도사상사와 국가산업공단 내 14개 노동조합 결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삼원섬유 노조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던 유신정권 시절 인천지역 노동자들의 기본권 시장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20년 복간 표지(왼쪽)와 1984년 표지(오른쪽)

또한, 1973년 1월부터 1975년 4월까지 삼원섬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지켜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인 『어느 돌맹이의 외침』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삼원섬유에서 일했던 유동우는 노동 착취를 일삼는 회사와 맞서 싸우면서 동료들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을 이 책에 담아냈다. 이 책은 1970년대 참혹한 노동 현장과 열악한 현실에 길들여 지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시대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던 당대 사람들의 처절한 투쟁을 느낄 수 있었다.

## 2) 동일방직 인천공장



만석 어린이 공원에서 바라본  
동일방직 인천공장 모습



인천만석비치타운아파트 114동에서 바라본  
동일방직 인천공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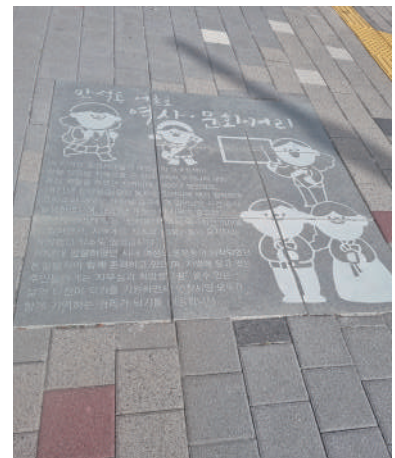
두 번째 답사 장소는 동일방직 인천공장이다. 동구 만석동에 위치한 동일방직은 한 때 우리나라 방적업의 메카로, 여성 노동운동의 현장으로 이목이 집중되었던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답사 장소로 정하게 되었다. 동일방직 인천공장이 있는 동구 일대는 일제강점기부터 조 대규모 공업 지대가 조성됐다. 동일방직의 전신인 동양방직 인천공장 또한 1934년 현재 자리에 문을 열었다.



동일방직 인천공장  
주변에 있던 '노동자의 길' 팻말



동일방직 인천공장  
주변에 있던 '인간 문제' 팻말



동일방직 인천공장 가는 길에 보였던  
동일방직 공장 설명

소설가 강경애가 1934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장편소설 '인간문제'에 등장하는 대동방적공장의 모델이 바로 동양방직 인천공장이다. 식민지 근대 리얼리즘 소설의 걸작이라 평가받는 '인간문제'는 일제강점기 방적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운동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일제강점기 말 군수공장으로서 동원됐던 동양방직 인천공장은 해방 이후 일본이 남기고 가 미군정이 접수했고, 1955년 당시 동양방직공사 서정익 이사장이 인수해 동일방직을 설립했다. 동일방직은 한때 노동자 수만 1천6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 이면에는 고온다습한 근무환경, 휴무시간 부재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문제를 비롯한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동일방직 인천공장이 1970년대 여성 노동운동의 산실이라 불리는 것은 이처럼 열악했던 노동 여건과 관련이 깊다. 동일방직에서는 1972년 한국 최초의 노동조합 여성 지부장이 선출됐다. 하지만 1976년 들어 사측이 대의원 선거에 개입하는가 하면, 정기 대의원 회의를 무산시키는 등 노조 무력화에 나서면서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 노조 간부가 경찰에 연행되고 대의원회 참석을 막기 위해 기숙사 문에 못질을 할 만큼 심했다. 그해 7월 사측의 비호를 받은 어용 지부장이 선출된 데 격분한 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으나 사측은 단전, 단수, 화장실 봉쇄라는 비인간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7월 25일 해산에 나선 경찰에 맞서 여성 노동자들이 '알몸 시위'를 벌인 것은 유명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들을 그대로 강제 연행해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이때 72명이 연행되고 50명이 충격으로 쓰러지고 7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4명은 입원했다고 당시 관계자들은 전한다.

또한, 1978년 2월 동일방직 노조가 대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감행하자, 사측에 매수된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 조합원들에게 분노를 끼치는 엽기적인 사건은 여성 노동운동의 상징이 됐다. 이른바 '똥물사건' 이후 단식 농성 등 투쟁을 벌인 노동자 126명이 해고됐고, 전국 노동계가 동일방직 사건 해결에 나섰다. 이렇듯 동일방직의 노동자투쟁은 '알몸', '인분'으로 상징되는 처절한 저항과 극악한 탄압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70년대 노동운동의 신화적 사건이 되었다. 이번 답사는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사측의 노조 무력화 시도와 기관의 탄압에 치열하게 맞서 싸웠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들이 있어 동일방직 인천공장은 1970년대 한국 여성노동운동의 산실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것이다.

### 3) 인천도시산업선교회(미문의 일꾼교회)

인천에서의 마지막 답사 장소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미문의 일꾼교회)였다. 이번 탐방을 준비하면서 가장 생소한 곳으로, 인천에 살면서도 미처 몰랐던 인천의 민주화 운동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아쉽게도 문이 닫혀 있어 내부를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항일민족민주·민주성지'라고 쓰여 있는 팻말에서 이 곳이 어떠한 곳인지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시작은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등 미국의 선교사들이 제물포항에 내리면서부터로, 이 때 함께 들어온 문물과 역사, 문화가 인천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 인천은 노동의 역사가 출발한 도시이며 여기에 맞닿은 것이 바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이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1962년 인천의 화수동에 초가집을 매입하여 시작된 이래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의식과 인권을 함양하는 선교기관으로, 급속한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과 도시 빈민을 위한 쉼터이자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미국감리교회의 조지 오글 목사가 '약한 것을 강하게'라는 슬로건 하에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자로서의 삶과 권리의식을 갖게 하여 70년대에 동일방직, 삼원섬유, 한국기계, 대성목재, 반도상사 등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민주적인 의식을 깨우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알몸', '인분'으로 상징되는 동일방직 노동운동에서의 처절한 저항과 극악한 탄압으로부터 여성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로써 이곳 도시산업선교회는 노동자들의 안식처였고,



방패막이었으며, 삶터가 되었다.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과 함께해 온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한때 인천 화수/화평 재개발로 인해 철거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나 역사적인 유산이자 문화 가치가 있는 건물의 원형 이전을 합의하고, 그 자리엔 상징물을 세우기로 하였다.

인천은 노동자의 도시이자 산업도시로서 어두운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를 감추고 숨길 것이 아니라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엔 이러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이 거의 없거나 일부만 남아있다. 이번에 답사한 공간들이 다 그러하다. 도시의 주인으로서 인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있어 해당 지역에 위치한 역사문화유적을 잘 보전하고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단체사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 2. 서울 답사

노동자의 땀의 가치가 인정받기까지 온몸을 불사르고 치열하게 맞서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으나 그들의 삶까지 함께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은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피를 자양분으로 먹고 자란다. 2023년의 대한민국도 여전히 그런 듯하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치열하게 투쟁한 흔적을 기리기 위해 [명동성당 -> 전태일 기념관 & 전태일 거리] 이와 같이 답사를 진행하였다.

### 1) 명동성당



명동성당 단체사진



명동성당

첫 번째 답사 장소는 명동성당이였다. 한국 천주교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 명동성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딕양식으로서 건물 자체가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아름다움보다도 더 의미 있는 건, 6월 항쟁의 중심에 서서 용기 있는 자들이 기뻐 언덕이 되어주었다는 점이다.

전두환 정권의 탄압과 그에 대한 저항이 점차 심해지는 가운데, 경찰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을 불법 체포하여 고문하다 사망케 하였다. 공안당국에서는 이를 은폐하고자 박종철 군 친구의 소재를 묻던 중 테이블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지만 정권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1987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7주기 추모미사에서 김승훈 신부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정권에 의해 축소·조작되었다고 폭로를 하게 되고, 이는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명동성당에서의 폭로는 정권의 억압에 의해 눌러있던 민주화 운동의 열기를 다시금 타오르게 하였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합세한 민주화운동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탄압하고자 하였다. 이에 밀린 시위대가 집결한 곳이 바로 명동성당이였다.





6월 항쟁 당시 명동성당의 모습

신변의 위협을 무릅쓴 채 정권의 무력 진압에 맞선 김수환 추기경 덕분에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요구를 정권을 받아들이는 승리의 결과로 이어졌다. 서슬 퍼런 독재 권력에 맞선 성직자들의 진정성과 헌신은 오늘날 종교의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 2) 전태일 기념관 & 전태일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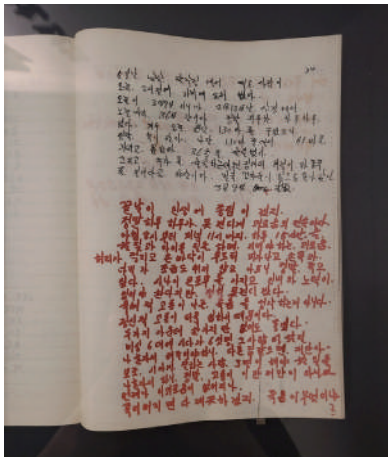
전태일 기념관 단체사진



'전태일 평화시장길' 팻말

두 번째 답사 장소는 전태일 기념관이다. 한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생애와 업적을 전시하는 기념관으로, 그가 활동했고 분신 항거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청계천에 위치하고 있다. 상설전시실에서는 부당한 현실을 극복하려 했던 전태일의 실천과 연대, 그리고 함께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전태일의 눈’에 비친 평화시장의 노동 현실은 비참하고 처절했다. 10대 중반의 어린 여공들은 하루 15시간 이상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햇볕도 들지 않는 비좁은 작업장에서 먼지를 마셔가며 노동했다.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영향실조, 만성소화불량, 신경계통 및 호흡기 질환 등 대부분의 노동자가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이나 휴가 등 복지는커녕 병세가 악화되면 해고되는 일조차 잦았다.



전태일 기념관에 전시된 전태일의 수기



전태일50주기 기념작품



전시를 관람한 후 작성한 방명록

비인간적인 노동 현장에서 전태일은 올해와 같은 내년을 남기지 않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심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든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과 사회의 냉대에 부딪혔고, 끝내 죽음으로 그의 뜻을 알리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의 분신행위는 노동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각성을 급속도로 확산시켰으나, 그럼에도 이상은 멀고 잡히지 않기에 남은 몫은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께서 짚어지셔야 했다.

이소선 여사는 아들을 대신해 꿈을 위해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힘이 되어주셨다. 이러한 과정에서 250여 차례가 넘는 체포와 180여 번의 구류처분, 3년여의 옥살이를 하면서 41년의 세월을 노동자와 함께하셨다. ‘전태일의 꿈’을 위해 생을 마감하시는 순간까지 ‘노동자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것이다. 우리 현대사의 빛과 어둠을 오롯이 증언하는 두 분의 삶을 보면서 다시금 그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전태일 기념관에서 나와 향한 곳은 바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장소에 세워진 전태일 동상이다. 그가 분신한 장소 일대가 전태일 거리로 조성되었고, 기념 동상과 동판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 곳으로 향하는 길에도 그의 희생을 기리고 연대하는 글귀들이 써져 있었다. 과거의 전태일에게서 오늘의 전태일인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과 꿈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며 신음하던 노동자의 삶이 사회문제가 등장하게 되었고, 정치적 의미에서의 민주화만을 염두에 두던 대학생과 지식인들이 노동현장에 뛰어들면서 노동운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두환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노동자 저항을 막으려 하였으나 1984년 대구 택시노동자 파업, 1985년 대우자동차 파업과 구로 동맹파업 등을 통해 노동자는 1987년 역사적 대변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야말로 노동현장에서 민주주의가 싹튼 것이다.



### 3. 대구와 울산 답사

#### 1) 울산 민주화 운동 기념센터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는 울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세워진 센터이다. 상설전시관에서는 민주주의에 관한 개념과 4·19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까지의 민주화 운동, 부문별 민주화 운동 등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상설 전시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곳을 답사 장소로 정하게 되었다. 특히 울산지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기록, 보존하고 연구하는 학술연구사업,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는 중요한 장소이다. 특히 1987년 울산 노동자 대투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상세하게 전시되어 있었고,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탐방하였다.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노동자 대투쟁' 파트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독재정권타도' 파트

1987년 '박종철치사사고문사건'과 '4.13헌법개정반대조치' 이후 국민적 저항은 6월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 6.29선언 이후 6월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 쟁의를 벌였다.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은 전국 전 산업에 걸쳐 발생한 총파업으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절차를 무시하고 벌인 파업인 동시에,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노동조합 결성, 노동조합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노동자 운동이었다.

1987년 울산노동자대투쟁으로 노동조합이 없던 현대그룹 계열사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노사 협상을 통해 1987년 한 해 동안 20% 이상의 임금 인상과 작업 환경 개선 및 차별적인 대우 개선 등의 노동 조건 개선을 이루어내었다. 울산의 석유 화학 산업 계열 사업장에는 이미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개편하고, 임금 인상 등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울산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울산의 노동자들은 전례가 없는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경험하였다.

현대엔진노동조합 결성 운동으로 시작된 울산노동자대투쟁은 1987년 전국적으로 확대된 노동자대투쟁의 출발점이 되었다. 노동조합이 없던 울산 지역 현대그룹 계열사에서 노동 쟁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이후 현대그룹노동조합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노동 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후 울산은 ‘노동 운동의 메카’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울산민중화 운동기념센터에 연표와 사진으로 자세히 설명되어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웠다.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광장에 설치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30주년 노동 기념비

노동 기념비에는 숨죽여 있던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1987년 거인이 기지개를 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민노총 울산지역본부소속 6만 5천명 노동자 및 울산시민들의 힘을 모아 1987년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을 맞아 세운 노동기념비다. 조형물 옆 금속판에는 6만 5천명 노동자 명단이 빼곡하게 적혀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 기념비에는 울산에서 시작된 노동자대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됐듯 노동중심 새 사회로 출발을 알리는 노동기념비 제막의 의미가 전국으로 전 지구촌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 2) 2·28기념 중앙공원

2·28기념중앙공원은 대구 동성로에 위치한 공원이다. 먼저 이 공원은 1960년 2월 28일 3월에 열릴 대선을 앞두고 대구에서 8개 고교 학생들이 자유당의 독재와 불의에 항거에 일으킨 2.28민주화운동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공원이다. 특히 이 운동이 의미가 있는 지점은 바로 제1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시민들이 민주 개혁을 요구한 최초의 운동이었다는 점에 있다. 625전쟁 이후 한반도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화의 정신을 깨우치게 한 이 운동의 의의는 아주 중대하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수성천변에서는 야당의 부통령 후보인 장면의 연설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에 대구 지역의 학생들이 이 연설장에 모여 주목을 받는 것에 부담을 느낀 당시 정부는 이를 막고자 일요일에 학생들로 하여금 등교를 지시하게 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 날은 일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학생들을 등교시켰다. 이에 반발한 학생들이 자유당의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일으켰고 여기에서 이 운동이 시작된다.



시작은 경북고에서 벌어졌다. 경북고 학생부위원장 이대우와 대구고, 경북사대부고 학생 8명은 정부의 일요등교 지시를 규탄하기 위해 꺾기했고 :백만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해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는 결의문을 작성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학생의 이러한 시위를 보고 그들이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다"며 몰아가려고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시위는 대다수 대구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

8개 학교 총 1,2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그 중 120명이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결국 시민들의 지지 아래 정부는 이 학생들을 처벌하지 못했고 주동자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은 석방되었다. 이 민주의거를 기점으로 전국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퍼져나가게 되었다.



기념공원 내 찬가를 새긴 비석



김윤석 시인의 시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



공원 내에는 여러 가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228민주운동의 뜻을 기리는 찬가를 새긴 비석부터 김윤석 시인의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을 새긴 비석도 있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노래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노래비는 말 그대로 재생시키면 228찬가가 재생되는 그런 장치였다. 이러한 노래비를 세운 것은 공원을 기획함에 있어서 방문자들에게 민주주의의 뜻을 조금 더 잘 상

기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이 기념공원에 가게 된다면 꼭 이 노래비를 재생시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공원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큰 규모로, 볼 거리로 가득 차 있었고 또한 민주주의의 뜻을 새겨 보기에 좋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이 공원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정신이 결국엔 ‘전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한번 해보게 되었다. 어린 학생들의 이러한 운동으로 인해 전국으로 시위가 퍼져나갔다. 결국 1960년대에 정치권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할 수 있었던 이러한 국민들의 힘에는, 해방을 전후로 하여 노동현장에서 벌어진 착취와 인권유린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정신에서 싹트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본 답사를 마무리 했다.

### 3) 여정남 공원(경북대학교)

여정남은 유신정권 시기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사형당한 민주열사였다. 이 분을 기리는 기념비가 경북대학교 교정 내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분이 경북대학교의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공원 내에 위치했던 조형물이 크기가 있어보였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지만 경북대학교의 규모가 생각보다 더 커서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여정남 공원을 찾을 수 있었다. 여정남 공원은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근처에 소박하고 아담하게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위치한 기념비의 형태가 어딘지 모르게 현대적이면서도 알듯 말듯한 모형이라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과연 이 기념비가 민주화와는 어떤 상관이 있었던 걸까? 바로 이 기념비는 피비우스의 띠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리고 피비우스의 띠는 역사를 상징하며 이 띠를 받치고 있는 두 손은, 바로 역사를 떠받치고 있는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피비우스의 띠 비석 옆에는 바로 경북대 출신 인혁당 관련 희생자 3인인 여정남·이재문·이재형 님을 상징하는 조형물이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서슬퍼런 시대에 앞장선 이분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동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동판에 길게 새겨진 이 그림은 바로 경북대의 학생운동을 상징하는데, 주황색의 러프한 느낌의 동판 앞에 서 있으니 그들의 결연한 의지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경북대 출신 인혁당 관련 희생자 3인



경북대의 학생운동을 기리는 동판

교정 내에 위치한 민주 열사들을 마주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민주라는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건 열사들은 우리들의 또래였다. 하지만 과연 지금의 우리들이 저 상황에 있었다면 무형의 가치를 위해 제일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투쟁에 뛰어들 수 있을지 하는 진정한 고민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 Ⅲ. 마무리하며

#### 김자영

실제 노동현장을 탐방하면서 노동 현장에서 ‘노동권을 개선하자’는 아이디어가 결국엔 인권의 문제로 연결되면서 노동자들이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번 답사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엔 노동 운동, 학생 운동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지금 시점의 우리는, 각자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런 우리들이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강제 징용의 역사에서부터 5~60년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그리고 이어 6~70년대 학생운동의 현장지를 답사하는 것은 이 세 과정이 하나의 흐름 하에 있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나는 노동에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결국은 노동 현장에서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이번 답사를 통해서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전태일 기념관에서 그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가 구상한 노동 현장은 너무나도 수평적인 체계로 일한 것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그리고 인권을 보장받는 민주적 형태의 기업이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매우 짧다. 그리고 아는 바에 의하면 해방 이후 민주주의 국가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에서 민주적인 작업장의 형태가 이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여전히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의미를 반추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팀의 답사는 시작되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활동인 노동 활동의 현장에서 사람답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답게 일할 수 있는 민주적인 노동 현장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그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 이라헬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민주주의의 실현은 단순히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직접 선거 참여, 공정한 분배, 사회복지 혜택, 원하는 문화소비,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다른 말이다.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해 채워가야 할 가치인 것이다.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전시관에 적혀있던 말은 아직까지도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앞세대가 자유선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지금 젊은 세대가 배우고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 외신기자였던 노먼 소프가 했던 말이다. 우리가 탐방했던 노동 운동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끈질긴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희생이 뒤따르기도 했다. 그 결과, 우리 선조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고,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하게 되었다.



과거를 살다간 이들의 미래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 어떤 노력과 희생으로 오늘이 만들어진 것일까?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의 공간에서는 일방적인 지시, 강요, 차별, 노동착취와 같은 불의와 불평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답사를 통해 선조들이 그러했듯,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내일은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었다.

### 황민희

노동과 민주, 정치적 의미에서의 민주만을 생각하던 나에게 새로운 시각에서 민주를 바라보게 된 기회가 되었다. 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노동은, 사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나와 우리의 삶이었다. 개인, 특히 노동자에 대한 억압이 극심했던 독재정권 시절,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투쟁과 연대는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하나였다. 그 여정의 현장에서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희생과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이 탐방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시대를 뛰어넘어 그들과 이어지는 삶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었던 만큼 그 이면의 피, 땀, 눈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무척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나 인천의 경우, 우리가 방문했던 세 곳 모두 그 현장을 온전히 볼 수 없었다. 덩그러니 비석만 남아있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저 스쳐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누군가는 그저 마음에 생각하고 새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눈으로 보고, 직접 그 숨결을 느낌으로써 그 마음에 생각함이 전고해지기도 한다. 이 역시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일 것이다.

피를 먹고 자라는 민주주의처럼 건강하고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민주적인 노동 현장도 아직 젊음과 열정과 투쟁을 필요로 하는 듯하다. 오늘과 같은 내일을 남기지 않기 위해 투쟁하던 그 마음에 마음으로 답하려는 노력과 연대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우리 세대에 남겨진 과제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참여해야 한다. 멈추지 않고 나아가 현재를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잇는 일이 될 것이다.

2023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자료집

# 4.19 혁명 : 한국 민주화 운동의 불씨

# 05

하모니 팀

정회성

장유빈

허진서

# I. 서론

## 1. 지원 계기

현재 인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구성원 모두는 2023년도 1학기에 <역사의 창으로 현대사회 읽기>라는 수업을 수강했다. 구성원 중 정희성은 그 수업의 과제로 5·3 민주항쟁을 조사하면서, 인터넷 자료 외의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자료를 조사했다. 또한 수업 시간 중 발표를 통해 5.3민주항쟁의 역사를 알리고, '민주야 여행가자'를 비롯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다양한 활동도 소개했다.

이에 평소 민주주의와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역사인 민주화 운동사에 관심을 가진 허진서, 장유빈 학우가 정희성 학우에게 '민주야 여행가자' 참여를 권유하였다. 두발로 직접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현장을 탐방하고 타지역과 더불어 인천의 민주화운동을 탐구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담긴 곳들을 직접 답사한다면 왜곡되지 않은 '진실한 역사'를 공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발표하여 주위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민주야 여행가자'에 지원하게 되었다.

## 2. 4.19 혁명을 선택한 이유

조를 구성한 뒤, 답사 주제를 정하는 회의를 하던 중에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초, 중,고를 거치며 꾸준히 배워왔던 역사이기에 조 구성원 모두 4·19 혁명에 대해 잘 알고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잠깐의 조사에 저희의 생각은 달라졌다. 4·19 혁명의 진원지로 유명한 마산 뿐만 아니라 인천,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1960년 4월 19일 당일의 역사가 아닌 몇 개월을 거친 장기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최초격의 의미를 가지는 4·19 혁명의 생생한 역사를 현장 답사를 통해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발표를 통해 우리가 배워 온 것을 알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4·19 혁명을 답사 주제로 선택했다.



## II. 경상권

### 1. 마산



3.15 의거 재현의 길 코스 안내도

4·19 혁명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이 혁명의 대표적인 지역이자 시작 지점인 마산과 부산을 방문했다. 이 두 지역에서 4·19 혁명과 관련된 장소들을 찾아보며, 혁명의 원인인 3·15 의거부터 시작하여 혁명이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까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3·15 의거 재현의 길 코스 안내도'를 마산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았다. 이동 코스를 따라가며 그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고, 더불어 마산에 위치한 국립 3·15 민주묘지도 방문하여 혁명과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들을 경험하였다.

먼저 첫 번째로 3·15의거 발원지(오동동) 및 당시 민주당 마산시 당사를 방문하였다.

#### 1) 3·15의거 발원지(오동동) & 당시 민주당 마산시 당사

발원지는 3·15의거 당시 2층 목조건물이었던 민주당 마산시 당사 건물 앞이다.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 당시 선거번호표를 받지 못한 유권자들은 “내 표를 찾아달라”고 호소하며 당사 앞으로 몰려왔고 민주당 마산시당은 10시 30분경 전국 최초로 선거포기를 결정하고 벽보를 당사 밖에 부착하고 이를 방송으로 알렸다. 당사 앞에는 흥분한 군중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민주당



3·15의거 발원지기념관 앞에서의 하모니 팀



원들이 관권 부정선거에 저항해 쫓겨할 것으로 호소하자 군중들이 호응해 가두시위를 시작하면서 3·15 마산항쟁이 시작된 곳이다. 현재 이곳에는 3·15의거의 발원지임을 알리는 동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민주당사 건물이 위치했던 곳에는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이 설립되었다. (각 장소에 대한 설명은 <부산민주길을 걷다> 4·19혁명의 흔적을 따라 '사월길' 걷기와 창원시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 참조)

처음 이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는 주변에 상가들만 있어서 의아했다. 그러나 걷다보니 동판 표지판을 발견하고, 그 앞에 있는 발원지 기념관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기념관에서는 3·15의거와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감상하고, 3·15 부정선거 방법과 3·15의거의 전개과정 등 다양한 사진과 자료를 통해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3·15의거는 우리나라 근현대사 최초의



유혈사태가 발생한 시위로, 4·19 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다. 4·19 혁명에 비해 3·15 의거와 관련된 사실들은 잘 알지 못하였었는데, 기념관에서 제공된 자료를 통해 3·15의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2) 불종거리



민주당 마산시 당사 당원들이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가두방송을 하며 시위를 전개하자 군중 600여명이 가세하면서 불종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게 된다. 이곳에서 투석전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며 민주당 간부 일부가 경찰에 폭행을 당하며 강제연행 된다. 이 과정에서 성난 군중들이 창동치안센터(당시 남성동 파출소)로 몰려가 시위를 계속 벌이게 된다. 불종거리는 마산어시장에서 육호광장에 이르는 구간이다. 구한말 설치된 불종은 일제말기 도로확장으로 없어졌다가 1999년 복원되었다.

기념관을 나온 후 5분 정도 걸어 불종거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불종거리에서는 3·15의거와 관련한 표지판이나 안내가 없기에 헛갈렸지만, 창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사진을 확인하고 그곳을 찾을 수 있었다. 이곳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한 곳으로, 이곳을 직접 걸어보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

## 3) 창동치안센터 (당시 남성동파출소)

3·15의거 당시 남성동파출소였던 창동치안센터의 터이다.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대는 계속 늘어났으며 “부정선거 다시 하라”고 외쳐댔다. 남성동파출소는 당시 마산시청, 북마산파출소와 함께 시민들이 가장 격렬하게 항의하였던 장소이다. 이곳에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였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창동치안센터에 찾아갔을 때, 정확히 어디인지 헛갈려 주변 시민분들께 물어볼 정도로 길을 찾기가 어려웠다. 현재는 창동치안센터 또한 운영하지 않고 마산소방서남성119안전센터만 운영되

고 있는 상태였기에 위치를 찾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다. 소방서 앞에 조형물이 설치 되어있는데 주변 기둥과 현수막 등에 의해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아 조금 아쉬웠다. 당시 남성동파출소의 흔적은 전혀 느낄 수 없었지만 3·15의거 당시 사진, 오성원 열사 비문 등을 담은 조형물을 살펴보면 당시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회상해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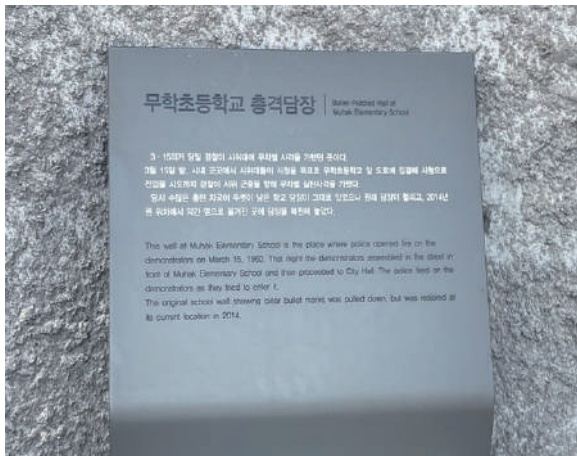
#### 4) 3·15의거 기념탑

창동치안센터(당시 남성동파출소)와 마산합포구청(당시 마산시청) 중간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3·15 의거 기념탑은 이승만 정권에 의해 자행된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봉기한 날을 기념하며, 이날 의거에서 희생된 젊은 학도들의 넋을 위로하고, 3·15 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시민의 뜻을 모아 1962년 9월 20일에 현재의 위치에 세워졌다. 탑의 높이는 12m, 둘레는 10.8m이며, 기념탑 앞에는 3·15의거의 주역인 학생과 시민을 상징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멀리서도 3·15의거 기념탑이 보여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 3·15의거 기념탑 앞에 있는 학생, 시민 동상을 보며 지금 우리와 같은 학생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깊은 존경을 느꼈다.





## 5) 무학초등학교 총격 담장



1960년 3월 15일 의거 당일, 경찰이 시위대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던 곳이다. 3월 15일 밤, 시내 곳곳에서 시위대들이 시청을 목표로 무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집결해 시청으로 진출을 시도했으며 시위가 격렬해지자 경찰은 시청 앞에서 무학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위대를 밀어붙이며 시위 군중을 향해 무차별 실탄 사격을 가했다.

당시 수많은 총탄자국이 뚜렷이 남은 학교담장이 그대로 있었으나 원래 담장을 헐리고, 2014년 원 위치에서 약간 옆으로 옮겨진 곳에 담장을 복원해놓았다.

총격 담장을 찾는 데에는 조금은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에는 헤매다가, 나중에 알고보니 그냥 지나친 곳이었기도 하다. 담장에는 설명과 당시 사진들이 있었지만, 이를 관심있게 살펴피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총탄 자국을 복원해 놓은 담벼락을 보며,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었다.

## 6) 마산의료원(당시 도립마산병원)



4월 11일, 제2차 마산의거가 시작된 곳이다. 1960년 4월 11일 오전 11시경,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중앙부두 앞에 떠올랐고, 그의 시신은 마산도립병원(현 마산의료원)으로 옮겨지게 된다. 시

신 인양 직전 현장에 도착한 부산일보 허종 기자는 바다 위로 떠오른 시신의 모습을 단독으로 촬영하여 타전하게 된다. 소문을 듣고 그의 죽음과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김주열의 처참한 죽음에 분노한 학생 및 시민들은 저녁 5~6시경부터 시위를 일으킨다. 이날 시위 군중은 3월 15일에 비해 규모가 엄청나게 컸으며 시위는 3일간 계속되었다. 이후 김주열 열사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번져나가게 되고, 4·19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곳을 4·19혁명 진원지라고 부른다.

## 7) 마산합포구청(당시 마산시청)

3·15 저녁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대는 개표가 진행되는 당시 마산시청으로 집결한다. 시위대는 경찰의 저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청으로 나아갔다.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 중 정전되자 경찰은 시위대에 총격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격분한 시위대는 경찰과 투석전으로 맞섰으며, 새벽까지 경찰에 저항하며 부정선거에 항의하였다. 당시 마산시청이었던 이곳은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현재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이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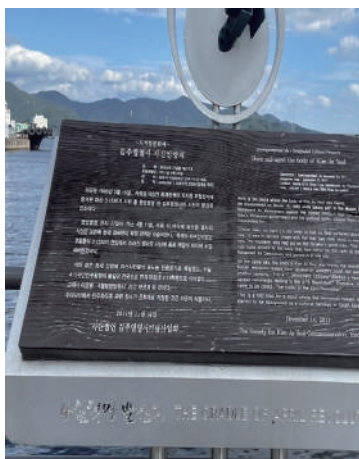
의료원에서 멀지않은 곳에 마산합포구청이 있다. 마산합포구청에서도 3·15의거와 관련된 표석 하나를 볼 수 있었는데 표석에 써져있는 글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 8)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1960년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에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떠올랐다. 이승만 독재정권의 이와 같은 만행에 마산 시민들의 분노는 민중봉기로 폭발하였고 4·11마산 민주항쟁의 불길이 전국으로 번져 마침내 4·19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곳을 '4월 혁명발원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2011년 9월 22일 경상남도기념물 제 277호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장소가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이곳이 처음이다. 이곳에는 시신인양지 표지판, 김주열 열사 추모의 벽, 4·19혁명 발원지 동판, 도지정문화재 안내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다.





김주열 열사 시신인양지에서 김주열 열사의 형상 및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의 사진을 보며 씁쓸하며 안타까운 감정이 들었다. 김주열 열사 동상 옆 4·11민주항쟁 추모의 벽 또한 살펴 볼 수 있었는데 김주열 열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3·15의거 재현의 길’은 직접 두발로 걸어보고, 살펴보며 3·15의거 및 4·19 혁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각각의 장소에 표석이 있어 더욱 좋았다. 일부러 찾아오지 않더라도 길을 다니다가 주의 깊게 조금만 살펴본다면 표석을 살펴 볼 수 있기에,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 9) 국립 3·15 민주묘지

‘3·15 의거 재현의 길’과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한 후, 추가적으로 마산의 국립 3·15 민주묘지를 방문하였다.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방문하였다. 주차장에서 내려 ‘3·15 기념관’을 먼저 찾아갔다.



‘3·15 기념관’은 2개의 전시관과 어린이 체험관이 있는데 1전시관은 3·15의거의 배경을 설명하고 부정선거와 시위현장을 재현해 놓고있다. 2전시관은 2차 항쟁(4·11~4·13)의 시작과 확산

과정을 보여주고 민주화 운동사에서 3·15 항쟁의 의의와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3·15의거 재현의 길’에서 봤던 내용들을 전시관에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느낌이었다. 무학초 담장 총격 현장을 전시관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3월 15일날 발사된 93발의 45구경 권총 총알과 최루탄, 465발의 칼빈 총알이 전시되어있는 모습을 보며 당시의 위험했던 상황을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다.



3·15의거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자유와 민주를 쟁취한 정의의 표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민족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민주의 문’ 및 ‘정의의 상’ 조형물도 볼 수 있었다.

날씨는 더웠지만 맑은 하늘이었기에 3·15 민주묘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는 3·15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길을 걸어 본 후 이곳을 방문한 것이라, 복습하는 느낌도 들었고 그로 인해 민주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곳을 일상에서 방문할 기회는 없었을 것 같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 2. 부산



부산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블로그에 나와있는 사월길 코스를 따라 현장들을 방문하였다. 경남공고를 제외한, 세 장소들을 방문해보았다.

4·19혁명은 이승만 정부의 독재정권을 막기 위해 1960년 4월 19일, 전국의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민주화 운동이다. 부산에서도 3월 초부터 고등학생이 중심이 되어 크고 작은 시위들이 벌어졌으며, 부산 곳곳에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한 흔적들을 모은 것이 '사월길' 코스이다.

### 1) 서면역 11번 출구 앞 '4·19혁명 진원지 표석'

4·19혁명 당시 서면로터리 인근에서 많은 시위가 시작되었고, 그 시위가 부산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2010년, 4·19혁명 50주년을 기념하며 4·19혁명 기념 사업회에서 4·19혁명의 진원지에 세운 표석이다.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표석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지하철 입구 바로 앞에 표석이 위치하다보니,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장소가 4월 혁명의 진원지라는 부분은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 2) 범일역 현대백화점 뒤 '범일동 구름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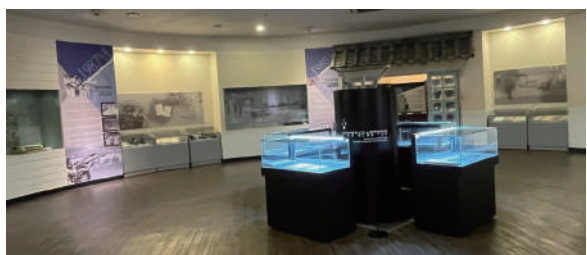
범일동 구름다리 부근은 4·19혁명 당시 시위의 주 무대가 되었던 곳이다. 특히 근처의 경남공고, 테레사 여고, 부산상고, 동래고 등 학생들의 연합시위가 이곳에서 펼쳐졌다. 당시 경찰들은 학생들의 행진을 막기 위해 옛 삼일극장 앞에서 저지선을 쳐 도로를 차단하고 총을 겨누었다.

영화 <친구>의 촬영지이기에 영화에 대한 안내판과 설명은 볼 수 있었지만 4·19혁명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아쉬웠다. 실제로도 답사당시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어려웠고, 도착해서도 이 위치가 맞는지 몇 번이고 확인해야 했다. 4·19 혁명에 대한 간단한 표지판이나 설명만 있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4·19 혁명 당시, 이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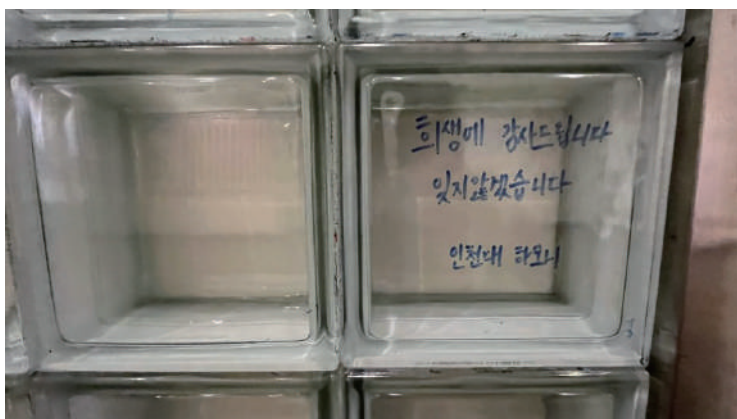


## 3) 부산민주공원 & 민주항쟁기념관

민주항쟁기념관의 늘펼쳐보임방(상설전시실)에는 자랑스러운 부산민주항쟁의 역사를 속속들이 만나볼 수 있다. 4·19혁명부터 촛불시위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기념관 참여 마당  
벽면에 작성한 문구

민주공원과 기념관을 방문하며 4·19 혁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과 그 발전을 살펴보았다. 이 곳에서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현재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방문한 여러 장소를 통해 우리는 민주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 민주화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 헌신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들의 힘과 희망이 우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 주는 것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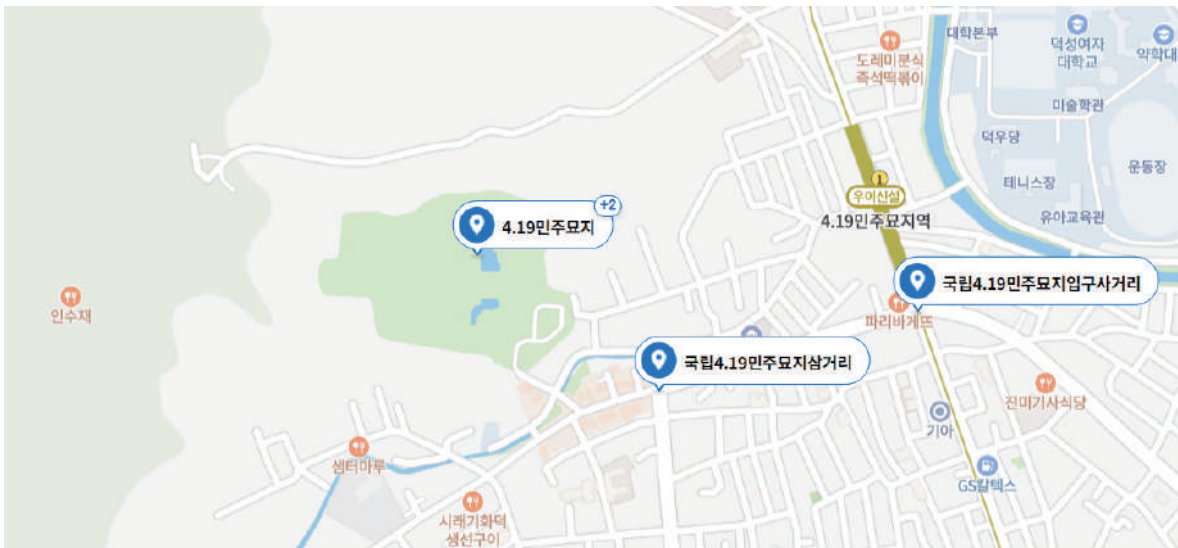
### Ⅲ. 서울

수도권권역에서는 국립 4·19 민주묘지와 4·19혁명기념도서관 두 곳을 방문했다. 답사일은 9월 17일이다.

#### 1. 국립 4·19 민주묘지

국립 4·19 민주묘지는 1960년 4·19혁명 때의 희생 영령 199위를 모신 묘지로, 1963년 9월 20일 건립되었으며 유영봉안소, 4.19탑, 상징문, 상징조형물로 조성되었다.〔「두산백과」, 국립 4.19 민주묘지 항목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87843&cid=51726&categoryId=71059>)〕

공원묘지로 서울시에서 관리해 오던 4·19묘지는 성역화 사업을 거쳐 1995년 4월 19일 국립묘지로 승격돼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게 되었고, 1997년 4월 19일에는 최신 기법의 전시실 기능을 갖춘 4·19혁명기념관을 개관해 4·19혁명을 계승할 정신적 산교육장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민주이념의 최고 성지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총면적은 9만 6,837㎡이며, 현재 385기가 안장되어 있다. 4·19혁명기념관 외에도 혁명기념탑, 수호예찬의 비, 수호자상, 군상부조, 정의의 불꽃과 같은 기념 조형물이 들어서 있다. 서울 강북구는 봉향각과 국립4·19민주묘지가 자리하고 있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도이념인 3·1운동 정신과 4·19혁명 정신을 모두 간직한 곳이다.〔안승길, 「근현대 역사문화의 숨결이 깃든 곳 서울 강북구」, 「도시계획家」 제3권 제3호, 한국도시계획가협회, 2016, p.37.〕



국립 4·19민주묘지 지도상 위치, 서울 강북구 수유동 5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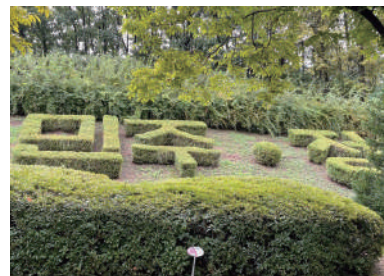
국립 4·19 민주묘지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산9-1번지에 위치해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우이신설선 4·19 민주묘지역이다. 지하철 역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걸어가면 국립 4·19 민주묘지에 도착하게 된다. 삼거리를 거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보이는 팻말 곳곳에 4·19로가 적혀진 것을 볼 수 있다.





좌측 사진은 국립 4·19 민주묘지 입구이고, 우측 사진은 묘지 안내도  
(국립4.19민주묘지 홈페이지 참조(<https://www.mpva.go.kr/419/index.do>))

묘지 내 주요 시설물은 위에 첨부된 우측 사진과 같다. 본 하모니 팀은 진입광장에서 다목적광장을 거쳐 다양한 조형물을 감상하고, 기념관을 살펴본 뒤 유영봉안소와 묘지를 끝으로 참배로를 걸어 내려오며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민주묘지의 주요 시설물 전체를 답사하였다. 방문요일이 주말이었던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민주묘지 내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을 하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만 민주묘지인 만큼 분위기가 매우 정적이고 차분했으며, 본 팀원들 또한 숙연한 마음으로 답사를 진행하고자했다.



국립4·19민주묘지 다목적 광장 일부

많은 희생자의 묘지와 기념조형물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마산에서 방문한 3·15민주묘지와 유사하게 국립 4·19민주묘지 또한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었다. 다목적광장 곳곳에는 민주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조형물과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성되어있는 잔디 등에도 민주주의와 그 정신을 나타내고자 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다목적광장과 휴게광장을 지나 민주묘지의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산책로 진입구 앞에 4·19 혁명기념관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사전 조사시 단체 방문이 아닌 이상 영상실은 감상이 불가능한 점을 인지하였고, 별도의 기념관 안내 가이드 혹은 설명이 없음 또한 사전조사를 통해 인지했기 때문에 팀원들과 기념관 내부를 개인적으로 관람했다. 부족한 정보는 전시실 입장 전에 제공되는 팸플릿을 통해 보충해나갔다.





국립 4·19민주묘지 내부에 위치한 4·19혁명 기념관



4·19혁명의 의의



기념관 내부 전시실 입장시 보이는 전시물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독재정권타도' 파트

1층 전시실에 입장하면 4·19혁명 당시 희생자의 사진과 4·19혁명 전후 사건의 자세한 연표가 나와있다. 전시실 입장에서부터 보이는 수많은 희생자 사진에 4·19혁명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 따랐는지를 숙연한 마음으로 상기시켰다. 또한 4·19혁명의 당시 사진과 의의가 적혀있었는데, 첫 번째 답사지였던 부산과 마산을 거쳐 서울에서의 4·19혁명을 마주하며, 그 의미와 민주정신이 1960년 당시 전국에 팽배했음을 다시한번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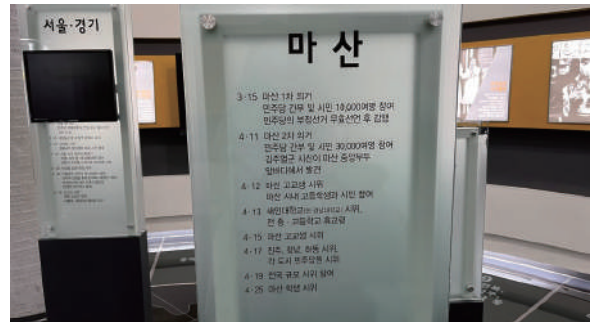


4·19혁명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전시물





4·19혁명 당시 전국 각지에서의 상황을 기록한 전시물 1



4·19혁명 당시 전국 각지에서의 상황을 기록한 전시물 2



4·19혁명 당시 전국 각지에서의 상황을 기록한 전시물 3



전국 4·19혁명 관련 기념물 안내와 그 중 부산/마산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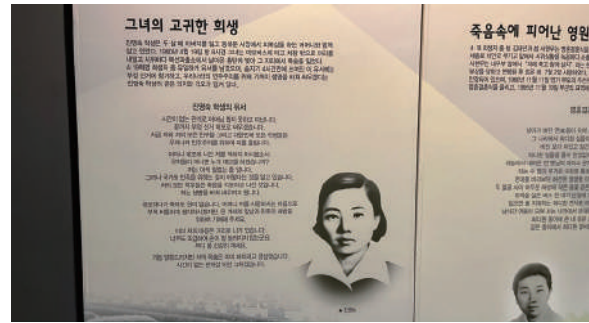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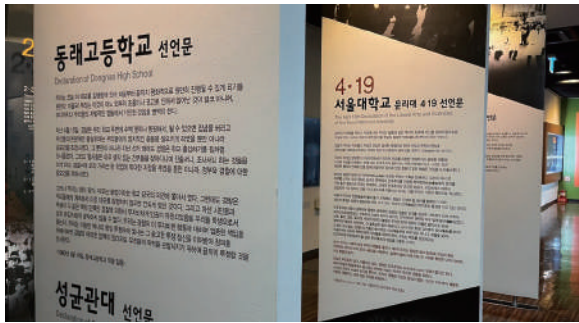


뒤이어 관람한 전시실 내부에서 4·19혁명 당시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이 있었다. 그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서울 권역 답사를 진행하기 전 방문한 경상권 마산에서의 상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던 전시물이었다. 전시물에는 방문했던 마산 4·19혁명 당시 시위장소와 부산 민주공원의 4·19혁명탑 등이 포함되었다. 직접 방문하고 두발로 걸어보았던 4·19혁명의 발자취를 전시물로서 다시 마주하자 감회가 새로웠다. 더불어 두 번째로 탐구를 진행한 장소에서 첫 번째로 답사를 진행했던 장소들이 등장하니 더욱 의미있게 4·19혁명을 이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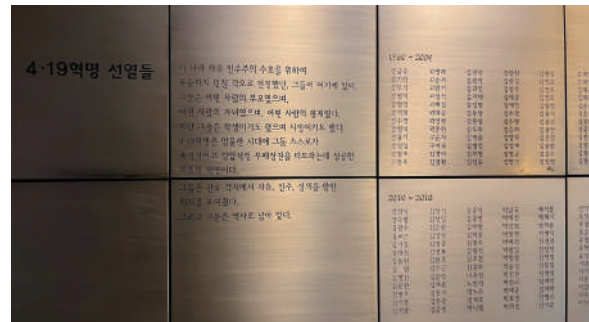


4·19혁명 관련 영상전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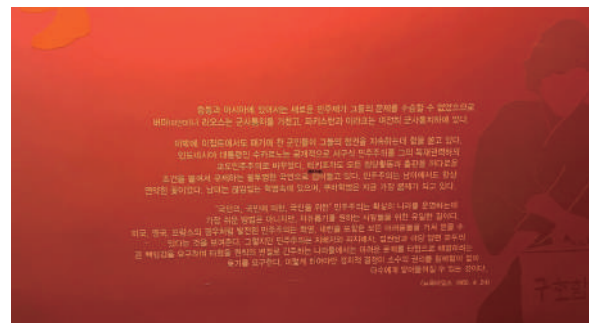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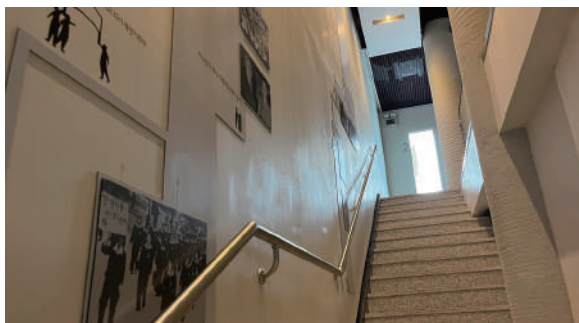




4·19혁명 당시 작성된 각 학교의 선언문과 중학생 혁명 희생자의 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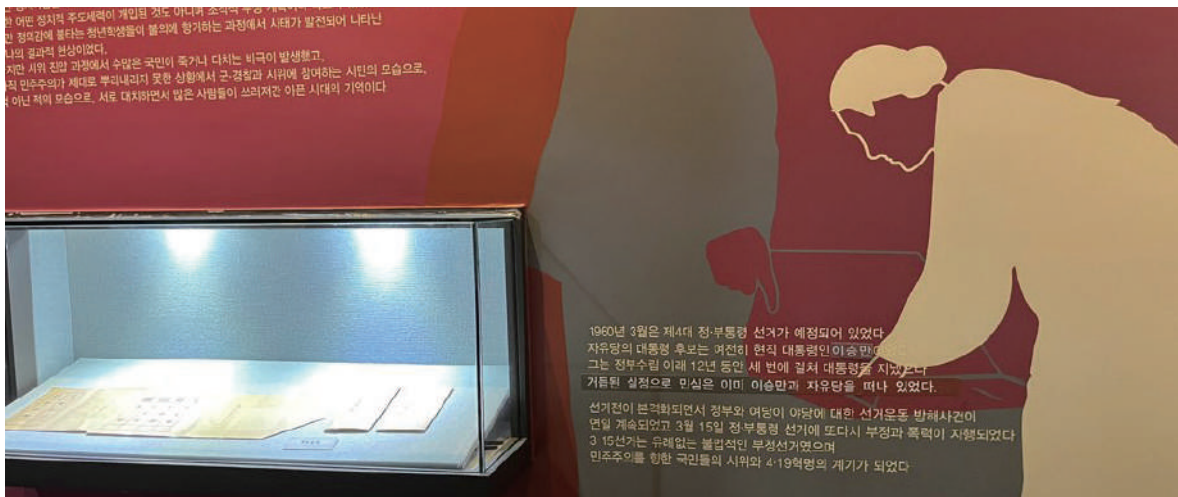


4·19혁명 희생자의 사진과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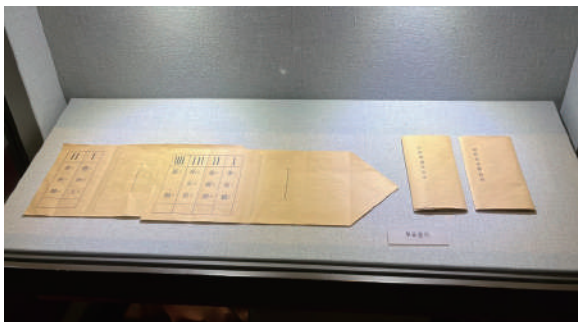


2층 전시실로 향하는 계단과 전시실 입장시 보이는 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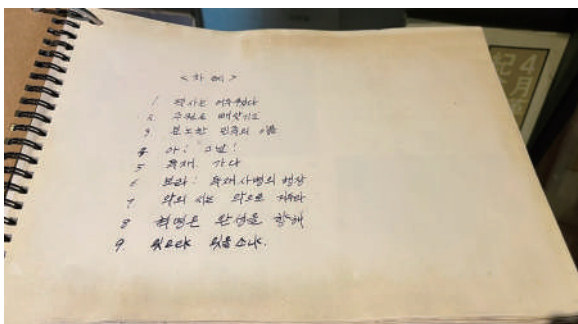
2층으로 향하는 계단 옆 벽면에는 4·19혁명 당시의 사진이 게시되어있다. 당시 현장의 생생함이 담긴 사진을 관람하며 2층으로 올라가면, 국내의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이집트, 중동 등과 남미에서의 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4·19혁명의 의의를 알아볼 수 있다.







순서대로 3·15부정선거 관련 설명과 당시 투표함/투표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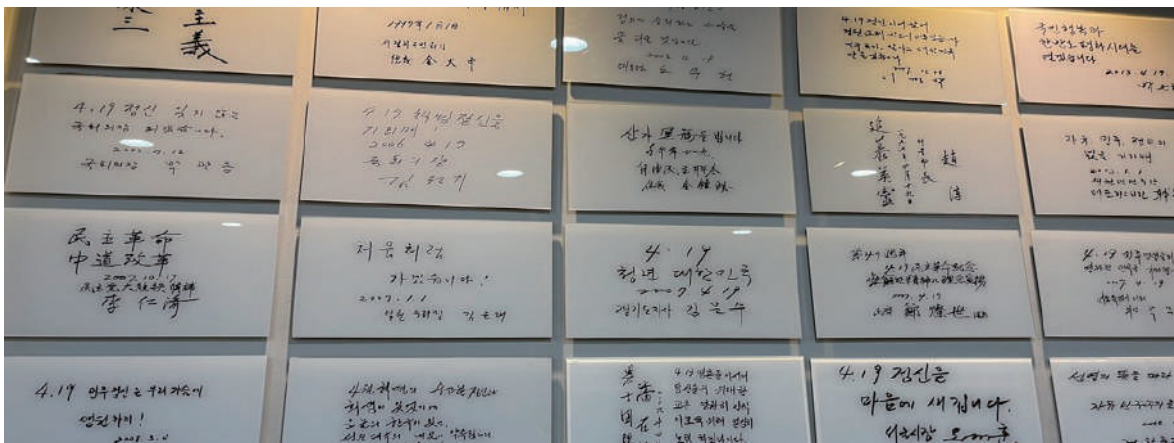


1960년 당시 4·19혁명이 전개되기까지의 상황을 기록한 대학생의 스크랩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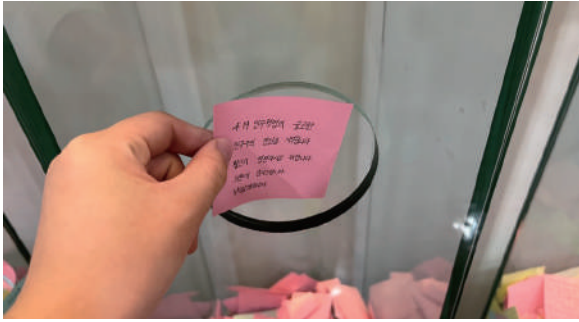


4·19혁명 당시 건물 재현과 사용된 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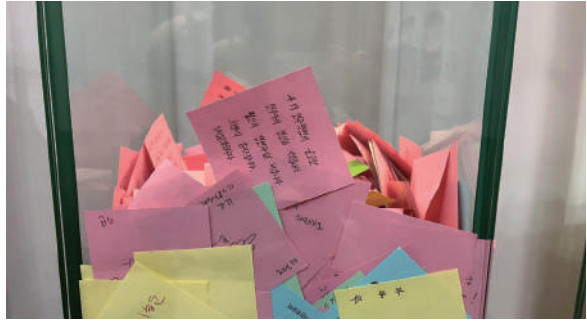
2층에 위치한 전시실은 4·19혁명 당시의 시대상 혹은 상황을 직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게끔 하는 전시물들이 많았다. 이를 통해 겪어보지 못한 시대의 상황과 생생한 현장감을 조금이나마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당시 대학생이 작성한 스크랩북은 현재 팀원들과 비슷한 나이에 작성한 것으로,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과 열정이 그대로 전달되어 매우 인상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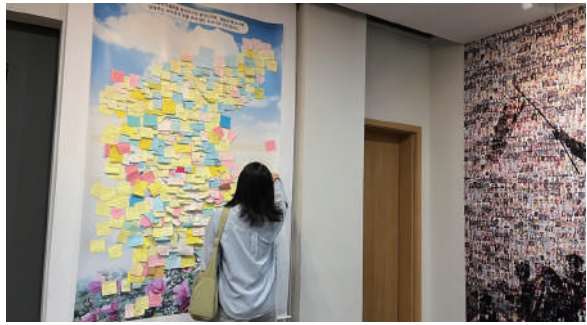
2층 전시실 한쪽에 위치한 벽면\_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의 메시지



포스트잇 문구 작성 사진



작성한 포스트잇을 부착하는 하모니 팀원 사진



2층 전시를 모두 관람한 뒤에는 4·19혁명 희생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작성할 수 있는 포스트잇이 마련돼있다. 팀원 모두 포스트잇을 직접 작성해 용지함에 넣거나 벽면에 붙였다. 문구는 다음과 같다. “4·19민주혁명의 숭고한 민주주의 정신을 기억합니다. 평안히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잊지않겠습니다.” 3층 전망대는 전날 우천으로 인해 출입이 통제되어 방문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구 작성을 끝으로 4·19혁명 기념관 관람을 마쳤다.



4월학생혁명기념탑



기념탑 비문



군상부조와 참배단



4월학생혁명기념탑과 참배단 앞에서의 하모니 팀원



답사지 방문 사전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4·19혁명 관련 조형물을 감상했다. 각각의 조형물의 의미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조사한 내용과 같이 4월학생혁명기념탑, 기념탑비문, 군상부조와 참배단에 새겨진 혹은 나타나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군상부조와 참배단의 경우 실제로 4·19혁명 기념행사 때 사용이 되지만, 방문한 당시에는 유리관으로 막혀있어 관람만 가능했다. 조형물에 관한 조사를 진행할 당시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위령탑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4월 민주혁명에 순국한 학생영현과 일반시민 영현의 명복을 빌고 4월 혁명정신을 자손만대에 전승케 하여 이 나라 민주건설의 등대로 삼고 여아한 독재를 몽상하는 무리에게도 ‘경고의 상징’이 되게끔 위엄성 있게 할 것, 근대 도시에 알맞은 미를 갖추고 현대감각을 충분히 살릴 것”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중략) 4월 혁명 유족회와 경향신문 주도로 추진되던 <4월 공원> 사업에는 4월 혁명 1주년을 즈음해서 서울시가 참여하게 된다. 1961년 4월 15일에 남산 팔각정 남쪽 마당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3부요인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4월 공원> 기공식에서 김상돈 서울시장은 개식사를 통해 <4월 공원>에 “자유, 정의,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는 굴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온 국민의 각오를 맹세하는 터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한창우 경향신문사 사장도 <4월 공원>이 “민주 구국의 투쟁에서 거룩한 죽음을 한 젊은 사자들의 유해를 한 자리에 모셔서 끼치신 큰 뜻, 장한 죽음을 영세토록 받들자는 우리들의 결의의 표시”라며 그 의의를 강조했다. (정무정, 「국립 4.19 민주묘지 조형물의 변천과 그 의미」,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서양미술사학회, 2013, p.169-173. 참조)

‘수호예찬의 비’는 국립묘지로 ‘성역화’되던 과정에서 새로 부가된 몇 개의 상징조형물들과 함께 조성된 기념물인데, “4·19혁명을 소재로 발표된 시 중에서 많은 분들이 추천한 12수의 시”(국립묘지 홈페이지)가 앞뒷면에 각 한편씩 각인된 높이 18.3m에 폭 1.5m 그리고 길이 3m로 된 화강암 석비로 잔디광장 좌우측에 3개씩 세워져 있다. 성역 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하는 상징문 외에 새로 조각되어 배치된 3개의 상징조형물(정의의 불꽃, 민주의 뿌리, 자유의 투사)이 4월혁명의 3대 이념으로 내세워진 정의 민주 자유를 각각 대변하고 있다면, 이 수호예찬의 비들은 한 연구자의 말처럼 “4월혁명을 예찬하며, 수호적이고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문무석의 기능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여기서 특별한 점은 통상의 문무석이 무덤양 쪽에 배치된 인물상인데 비해 이 경우는 언어 가운데서도 최고수준이라고 할 시를 크고 단단한 석비에 새겨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들은 죽은 자들을 진혼하고 예찬하는 기능을 맡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요소, 즉 명상과 교육의 효과를 어떤 조형물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른 예술장르와 달리 언어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그 의도는 공원 내의 그 위치에서도 드러난다. 즉 이 비들은 다른 조형물들의 바깥편 공원의 측단면에 북한산의 자연환경을 끼고서 어느 정도의 공간을 두고 늘어서 있는데, 성역화된 내부공간을 감싸고 있는 이같은 배치 자체는 추모객들이 시를 읽으면서 민주혁명의 의미를 사유하고 되새길 수 있는 분위기와 여유를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비들에 새겨진 시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시적 성취와 지향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윤지관, 「〈기획논문 - 서울 동북 지역의 문학 유산〉 애도의 정치학 : 국립 4.19묘지 ‘시비’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제 16권,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p.6-7. 참조)





유영봉안소 앞에서 하모니 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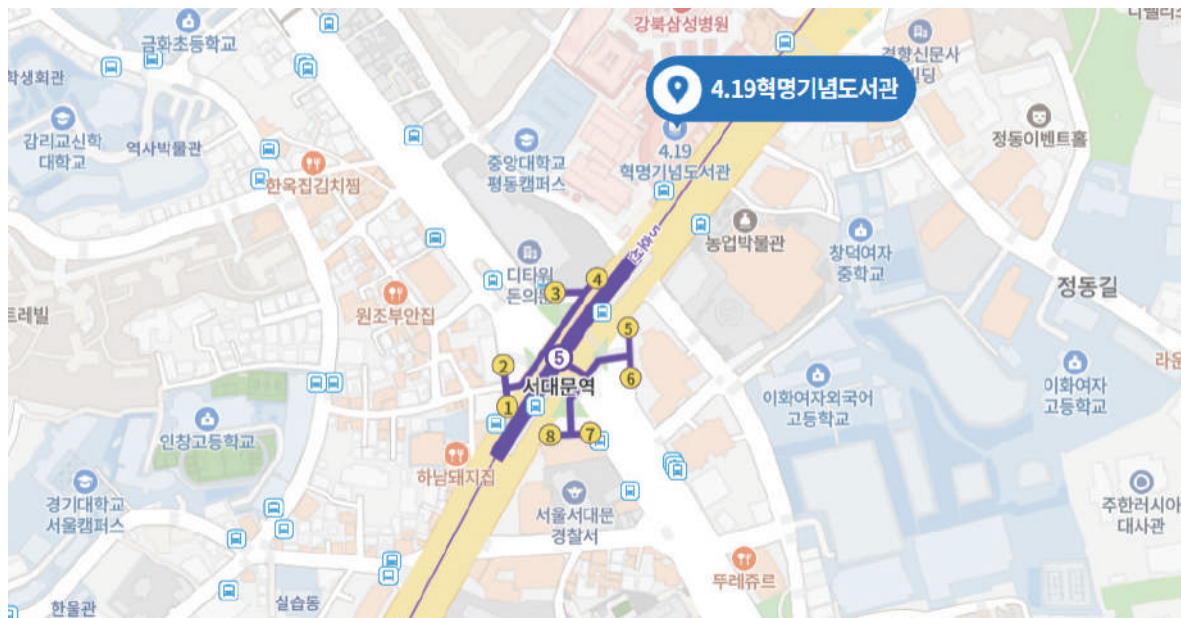
국립 4·19 민주묘지의 답사는 유영봉안소 앞에서의 사진촬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했다. 답사 이후에는 답사 장소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며 국립 4·19민주묘지의 추가적인 탐구를 진행했다. 추가적인 탐구까지 마치자, 국립 4·19민주묘지의 진정한 의미와, 4·19혁명 뿐만 아니라 이준 열사, 손병희, 이시영, 신익희, 김창숙, 여운형 선생 묘지 등 일제강점기부터 전개되어왔던 근현대 민주주의의 정신을 기리는 민주묘지의 공간성의 의미에 대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며 답사지 탐구를 완료했다. 앞서 언급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광복절에는 이 곳 기념관 옆 마당에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총 3천만원의 기금으로 임시정부 수반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조형물을 비롯, 독립민주기념비가 들어서기도 했다. 근현대사기념관을 출발해 대한민국 초대 제헌국회 부의장과 2대 의장을 지낸 신익희 선생, 구한말 신식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제1호 검사가 된 이준 열사의 묘역을 지나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 선생, 그리고 임시정부 시절 정규군, 즉 우리나라 최초의 국군인 광복군 합동묘소와 초대 부통령이었던 이시영 선생의 묘역을 돌아 다시 근현대사기념관으로 이어지는 선열들의 묘역 코스다. 서울 강북구 북한산 자락에 이준 열사를 비롯해 손병희, 이시영, 신익희, 김창숙, 여운형 선생 등 16위 애국순국선열들의 묘역이 있는데, 이분들의 업적과 생애를 모두 펼치면 구한말 동학혁명에서부터 일제강점기 시절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과 조국 광복에 이어 민주화 투쟁을 지나 통일운동에 이르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근현대 역사가 오롯이 드러난다. 강북구 북한산 일대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고(寶庫) 이 밖에도 강북구 북한산 일대에는 여러 우수한 근현대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어 그야말로 역사문화유산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안승길, 「근현대 역사문화의 숨결이 깃든 곳 서울 강북구」, 「도시계획家」 제3권 제3호, 한국도시계획가협회, 2016, p.39. 참조)

## 2. 4·19혁명기념도서관

4·19혁명기념도서관은 자유, 민주, 정의를 기본 정신으로 하는 4·19혁명의 이념과 역사적 사실을 후세에 계승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도서관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도서관 자리는 본래는 제1공화국의 실세로 불리던 이기붕과 박마리아 부부가 살던 집이 있었다. 1960년 이기붕이 부정 선거로 부통령에 당선된 3·15부정선거가 4·19혁명을 불러왔고, 이기붕 부부와 두 아들은 이곳에서 동반 자살했다. 제3공화국의 박정희 정권은 오히려 4·19혁명정신을 집권에 이용하기 위해 1963년에 이기붕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고, 이기붕이 살았던 집을 4·19혁명 희생자 유족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으며, 1964년 9월 1일 ‘4·19기념사설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다. 그리고 1970년부터 새로 건물을 짓기 시작해 1971년에 ‘4·19도서관’으로 개관했다. 4·19혁명기념도서관은 시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4·19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전달함과 동시에 시민의 민주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일반열람실과 자료열람실, 전자정보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4.19혁명기념도서관 부문(<http://www.goodmorningmedia.co.kr>)

위와 같은 이유로 4·19혁명기념도서관은 4·19혁명에 관한 다양한 도서자료와 비도서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 3·15 부정 선거의 당사자였던 이기붕의 집터라는 점 모두 4·19혁명을 조사하면서 꼭 방문해보아야하는 답사지라고 판단되었다. 사전조사를 통해 도서관 내부에 다양한 영상자료와 음성자료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자료를 통해 주제를 탐구해 볼 수 있음을 확인했고, 서울에서의 두 번째 답사지로 선정했다.



4·19혁명기념도서관 지도상 위치,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17

4·19혁명기념도서관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17에 위치해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5호선 서대문역이다. 도서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서대문 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된다.



4·19혁명기념도서관은 일렬로 세워진 건물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청정원 건물 옆에 있치해 있다.



4·19혁명기념도서관 앞에서의 하모니 팀원



4·19혁명기념도서관 외부 벽면

도서관 외부벽면에는 동판으로 ‘서울미래유산’이 표시되어있다. 서울미래유산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유산 중 국가·서울시 지정·등록문화재로 등재되지 않은 유·무형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역사적 사건 및 인물과 관련된 장소나 서울 시민에게 잘 알려진 특색 있는 장소, 기념물을 비롯해 서울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총망라한다. 예컨대 서적, 건물, 예술품, 시장, 골목 등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기술, 음악, 경관 등 무형 자산도 선정 대상이 된다. 「시사상식사전」 서울미래유산 부문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5344&cid=43667&categoryId=43667>)

4·19혁명기념도서관 또한 건물 그 자체로서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다.



4·19혁명기념도서관 입구



4·19혁명기념도서관 내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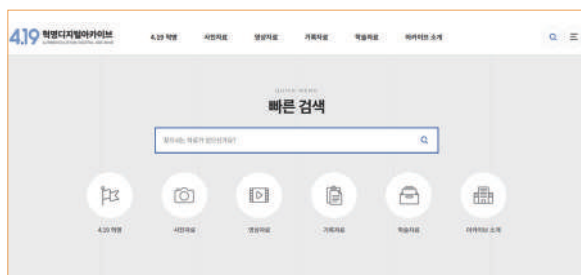




4·19혁명기념도서관은 4층으로 되어있으며, 입구에서부터 4·19혁명을 나타내는 시각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꼭 4·19혁명을 탐구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자료가 많아 일반적인 도서관으로서 이용가능하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와 동반하여 방문하는 시민분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4·19혁명기념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4·19혁명의 전반적인 전개와 더불어 다양한 민주주의 혁명을 보여주는 전시물이다. 사진에서 보이는 기둥에는 당시 서울 각 학교에서의 선언문이 적혀져있다. 위층으로 올라가면 전국에서 일어난 4·19혁명 시위의 양상과 지도를 볼 수 있다. 지도에는 방문했던 부산/경남권을 더불어 대구/경북권과 서울/경기권 등이 있었으며, 경기권에서는 세 번째 답사 권역지역이 될 인천의 인천 송도고교 학생 시위, 인천 민주당원들 데모, 인천 공고생 시위, 인천 학생시위 등이 표시되어 있었다. 다른 답사지와 대조했을 때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는 혁명 당시의 사진을 매우 많이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서울 내 각 학교에 위치한 4·19혁명 기념비의 사진이 모두 나와있어, 일정 상 방문하지 못한 각 학교의 기념비를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서울 내 다수의 학교에 기념비가 모두 위치해있었다. 사전 조사시 확인가능 했듯이, 도서관 내부에서 관람했던 전시물은 4·19혁명기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시 확인가능하다.

(4·19혁명기념도서관 홈페이지(<https://419library.egentouch.com/main.do?action=main>))



4·19혁명디지털아카이브 화면

4.19혁명디지털아카이브 홈페이지(<http://www.1960419.com/>)

더하여 4·19혁명기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가능한 4·19혁명디지털아카이브에는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확인한 자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자료, 뉴스자료, 실제 음성자료까지도 확인 가능하다.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자세히 기록하지 못한 탐구는 위 4·19혁명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탐구와 조사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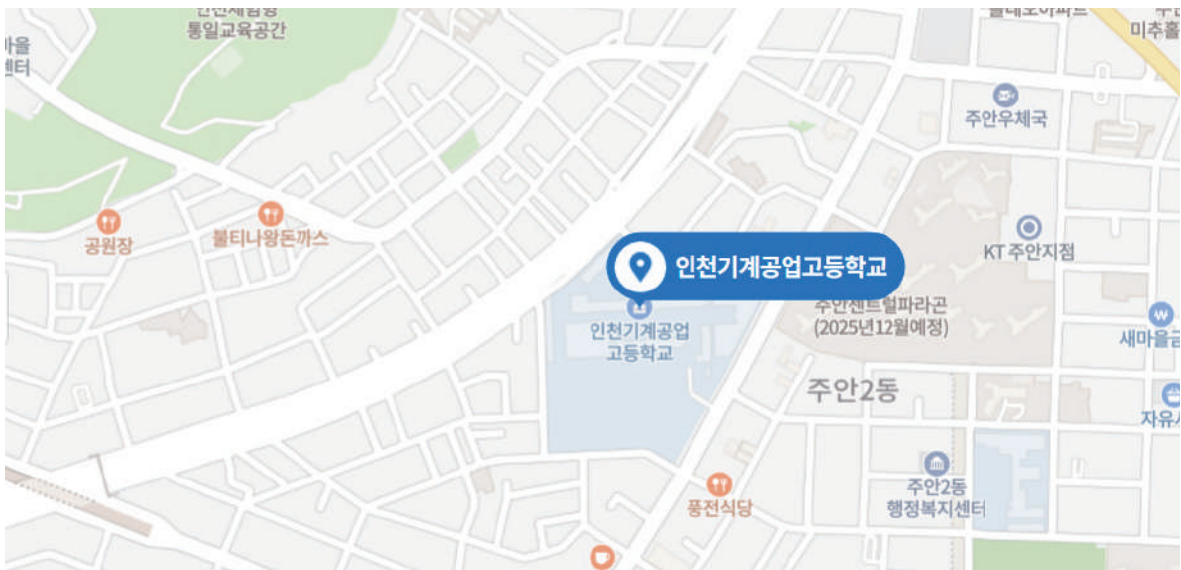
4·19혁명기념도서관의 답사는 내부에 진열된 전시물 관람 후 도서관 앞에서의 팀원 사진촬영을 마지막으로 완료했다. 4·19혁명 관련 자료만 다루는 도서관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에 비해 많은 내용을 탐구하지는 못했지만, 글을 통해 알아보는 4·19혁명이 아니라 직접 듣고 보며 시각적으로 생생한 자료를 접할 수 있었던 답사였다.

## IV. 인천

인천 권역에서는 인천 기계공업고등학교 4·19혁명의거학생기념탑, 중구청 4·19혁명기념비, 경동사거리 4·19혁명기념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조사자료와 질의응답을 위해 인천민주화운동센터까지 총 4곳을 방문했다. 답사일은 9월 22일이다.

### 1. 인천 기계공업고등학교 4·19학생의거기념탑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의 4·19학생의거기념탑은 인천권역에서 답사를 진행한 다른 기념비와 대조했을 때 비교적 혁명 시기 당시에 기념탑이 설립되었고, 1960년 당시 인천의 4·19혁명 또한 활발했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는 답사 장소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천 권역에서의 첫 번째 답사지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의 4·19학생의거기념탑을 선정했다.



인천 기계공업고등학교 지도상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45

인천 기계공업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45에 위치해있다. 하모니 팀원은 인천대학교에서 출발해 사전조사한 교통편으로 주안2동치안센터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약 10분간 이동하여 답사장소에 도착했다.

인천 기계공업고등학교는 1940년 5월 10일 인천공립직업학교로 개교하여 약 80여 년 동안 4만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미추홀구의 역사 깊은 학교 중 하나이다. 학교 내에 위치한 4·19학생의거기념탑은 1961년 6월 12일 설립되었다. 1960년 당시 적극적으로 의거에 참여하며 혁명의 선두가 되었던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기리기 위해 혁명의 다음 해인 1961년에 세워졌

다. 더불어 인천에서 유일하게 세워져 매년 진행되는 4·19혁명기념식도 인천 기계공고에서 진행되었다. 인천 미추홀구 공식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tong\\_namgu/222312190044](https://blog.naver.com/tong_namgu/222312190044))



인천 기계공업고등학교 정문

본 하모니 팀원은 학교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답사를 진행했다. 학교 정문 기준 왼편에 위치한 학교 관계자사무실에 신원과 방문 목적을 밝히자, 학교 관계자분께서 기념탑의 위치를 알려주시며 왼쪽에 위치한 기념물이 4·19학생의거기념탑임을 안내해주셨다. 더불어 촬영 또한 사전에 말씀드려 답사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인천 기계공업고등학교 4·19학생의거기념탑



우측은 6·25참전학도병명비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의 4·19학생의거기념탑은 건물과 운동장 사이에 운동장 가로방면을 중심으로 정면에 위치하고 있다. 두 개의 기념비가 나란히 놓여져있는데, 마지막 사진 기준으로 왼쪽이 4·19학생의거기념탑이고 오른쪽에 위치한 기념비는 6·25참전학도병명비(2018년 10월 25일 건립)이다.



## 2. 경동사거리 4·19기념비



인천 4·19혁명 당시의 사진. 뒤에 답동성당이 보인다.

『인천일보』,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역사 탐방 프로그램 ‘4.19 혁명 운동 현장 답사’ 개최, 2021.04.19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0150>)

4월 22일이 되자 시위대는 3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 시내 남녀중고교생 300여 명이 송의동 로터리에 산발적으로 모여들었고 초등학생들도 가세했다. 학생들은 혜광사 앞 집결한 뒤, 율곡동 일본인 묘지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시위를 시작해 시내로 진입을 시도했다. 4개 대열로 나뉜 시위대는 경동파출소 앞, 시청 앞, 자유공원, 동인천역, 배다리 중앙시장을 거쳐 만석동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이 때 경찰이 학생들을 향해 발포해 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경찰봉과 총 개머리판으로 구타를 했지만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결국 수수방관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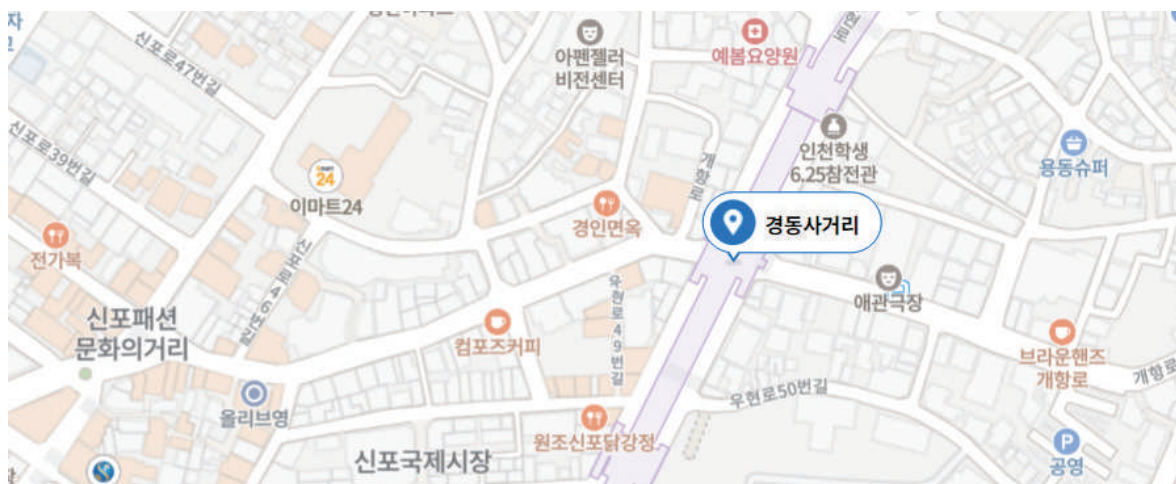
시위대는 “경찰은 학생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말라, 연행된 학생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다 오후 4시 경 자진 해산했다.

4월 23일에는 자유공원에 중고교생 300여 명이 시위를 오전부터 시작해 동인천역, 시청 앞 지나 동인천경찰서 앞에서 ‘살인경찰 물러나라’고 항의했다. 이날 동인천경찰서 앞 집회와는 별도로 여중생 300여 명이 플랜카드를 들고 집회를 벌였으며, 남인천여상 학생 150여 명도 시청을 거쳐 시내로 행진했다. 오후 7시 경에는 신흥동 네거리에서 중·고등학생 200여 명이 횃불집회를 시작해 답동네거리와 경동파출소, 동인천경찰서를 거쳐 오후 9시 40분 경 동인천역 광장에서 만세 삼창을 부르고 자진 해산했다. 이를 지켜보던 거리의

시민들도 시위대에게 음료수를 나눠주고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다.

「인천일보」,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역사 탐방 프로그램 ‘4.19 혁명 운동 현장 답사’ 개최, 2021.04.19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0150>)

위 사진은 인천의 4·19혁명 당시의 사진이다. 뒤이어 보이는 답동성당을 통해, 시위장소가 경동사거리 인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사전조사를 하며 상단에 첨부한 뉴스 기사를 통해 경동사거리가 활발한 시위장소였다는 점을 알게되었고, 당시의 시위장소를 두 발로 직접 걸어보고자 경동사거리 4·19혁명 기념비를 두 번째 답사장소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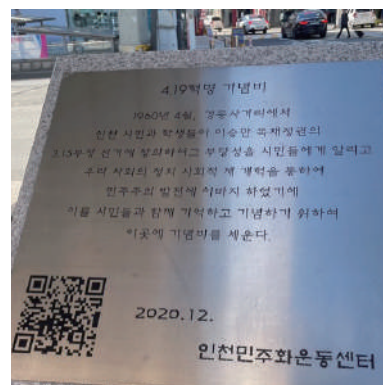
경동사거리 지도상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내용)

경동사거리 4·19혁명 기념비는 경동사거리 지하철 출입구 앞에 위치해있다. 1960년 4월,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에 연일 터져나온 가운데 인천에서는 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부정선거 규탄과 이승만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발발하였다. 4월 19일 남인천여자중학교,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그리고 인천공업고등학교 학생이 제일 먼저 시위에 참여하였고 이후 송도고, 동인천고, 인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된 시위 장소는 답동광장과 애관극장 인근 경동사거리에 주로 집결하여 시청방향(현 중구청)으로 행진하였고 또 도원교와 배다리를 지나 홍예문을 거쳐 시청으로 행진하기도 하였다.

「인천in」, 인천 4곳에 4·19혁명 · 6.10민주항쟁 조형물 설치, 2021.01.18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905>)



경동사거리 4·19혁명 기념비 앞에서 하모니 팀원



기념비 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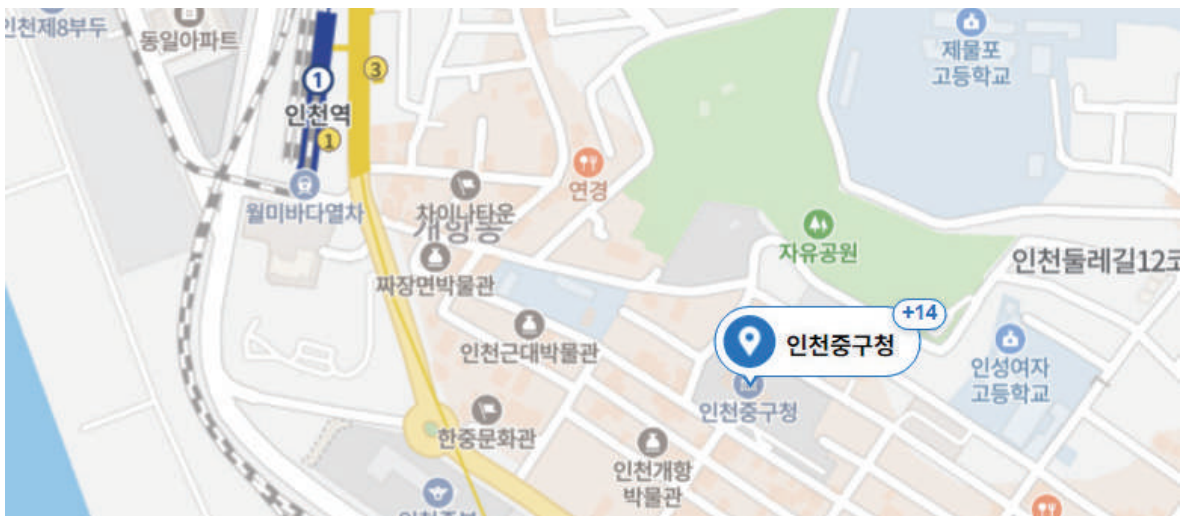


경동사거리에 위치한 4·19혁명 기념비는 온라인 지도를 통해 찾을 때 특정 건물이나 위치라기 보다는 경동사거리만 검색해 찾아야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고 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하철과 연결된 지하철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해있어 금방 찾을 수 있었다. 더하여 지하철 역 바로 앞만큼 통행에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었을텐데, 직접 답사해보니 위치상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지나다니며 누구나 잘 볼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기념비의 의미가 매우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했다.

### 3. 중구청 4·19혁명기념비

인천 중구청은 1933년에 건립되어 인천 부정사로 사용되었으며 광복 이후 경기도 인천시 청사로, 1981년부터는 인천직할시 청사로, 1985년 시청사가 이전하면서부터는 중구청사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어 인천의 대표적인 행정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한국관광공사 인천 중구청 부문 참조(<http://korean.visitkorea.or.kr>)).

과거에 건립되어 1960년 혁명 당시의 역사를 고스란히 지켜보고, 시위장소를 기준으로 세워진 기념비가 있음에 따라 직접 답사를 했을 때 답사 현장에서 시위가 벌어진 생생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세 번째 답사장소로 선정했다.



인천중구청 지도상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인천 중구청 4·19혁명 기념비 앞에서 하모니 팀원



본래 인천 중구청 마당 4·19혁명 기념비로 알고 답사를 진행한 바와 달리, 기념비는 중구청 마당보다 중구청 외부 거리에 위치해있다고 하는 편이 더 와닿았다. 따라서 본 답사 보고서에는 중구청 4·19혁명기념비로 표기했다. 중구청 근처에는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인천역이 위치해있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꽤 있는 편이었다. 1960년 당시에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를 기점으로 시위를 했고, 그 중 한 장소가 이곳 중구청이라고 하니 이해가 더욱 쉬웠다. 더불어 기념비는 중구청 바로 앞에 위치해있어 답사하기에도 별 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 4. 인천 민주화운동 센터

인천에서의 4·19혁명을 기억할 수 있는 답사장소가 많지 않은 점, 그리고 제공되는 정보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궁금했던 질문 몇 개를 추려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 연락을 드렸다. 연락을 통해 방문일정을 잡고 부족한 지식과 정보를 센터장님과 인터뷰를 통해 더 탐구해보고자 인천에서의 답사를 마친 뒤 마지막 답사장소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방문했다.



인천 민주화운동 센터 지도상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701호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주소가 변경되어 9월 23일 이후 기준)



인천 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 방문해 오경중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강화도를 제외하고, 인천에서 4·19 관련된 장소 세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러한 기념비를 제외하고 찾아가면 의미가 있을 장소가 더 있을까요?

민주 운동 당시, 인천은 동인천 부두, 동인천역 앞 거리, 그리고 헌책방 있는 골목까지만 인천시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 내 다른 지역의 4·19 민주 운동은 찾기 어렵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참여한 시위는 학생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인천시 중심의 장소들과 관청이 몰려있던 곳에서 집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기도 인천시였기 때문에 인천시청 주변 이외에 4·19혁명이 발생했던 것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2) 기계공고의 4·19 기념탑 이외에 인천에 있는 4·19 관련 기념비들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는데, 어떻게 시설물이 제작되었나요?

인천 기계공고에 기념비가 서 있어서 거기에서만 시위가 진행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4·19와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 인천 4·19 시위에 참여한 학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등학생도 있었지만, 중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동인천고, 인천 여상 등 시위에 참여한 학교들이 매우 많았고, 학교별로 표석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 그 당시 대표적인 장소인 경동사거리, 당시 시청이었던 현재의 중구청 마당 앞 두군데에 상징적으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4·19 관련 사진중 중구청 앞에서 한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만세를 부르는 사진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신문기사를보다 보니 강화고등학교, 강화여고 등 세 학교가 연대를 하여 몇천명이 섬에서 만세를 외쳤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가장 어린 학생들이 참여했던 강화중학교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여고 학생이 인천 시청 앞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를 부르는 사진

3) 전국적으로 4·19혁명이 일어났는데, 다른 지역의 민주화운동에 비해 인천민주화운동이 가진 특징이 있을까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는게 인천만의 특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독재 정치라는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인천만을 향한 독재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탄압했기에 그

양상은 동일합니다. 민주화 운동의 핵심은 ‘이승만 물러가라’ ‘3·15 부정선거 다시 시행하라’ 이 두가지 구호가 전국적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렇기에 인천만의 독특한 요구사항이 있었던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기에 종이에 써서 한장한장 등사해 뿌리고 다녔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시위를 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동일했을것으로 보입니다.

#### 4) 인천의 4·19혁명과 관련해서 앞으로 기념비 혹은 기념물을 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당시 참여했던 인천기계공고 분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접 참여했던 어른들을 모시고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이외에 다른 계획은 지금으로서 없습니다. 참여했던 분들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도 이러한 계기를 통해, 젊은 학생들이 과거에 민주주의를 지켜가며 희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헌신으로 현재 누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1960년, 그 이전, 일제 치하 시대부터 6·25 전쟁 때도, 독재정권 시대에 이어 광주항쟁, 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시대까지 학생들이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수호해왔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칭찬과 기록으로 남겨져야 마땅합니다. 이번 행사 뿐 아니라 이런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인천 민주화운동센터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하모니 팀원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 방문해 직접 관계자분들을 만나 뵙고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굉장히 의미깊었다. 특히 센터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료조사로도 알기 힘들었던 다양한 인천의 4·19혁명 당

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관련 도서와 4·19혁명 당사자분과의 연락처 또한 받아 답사 보고서 작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4·19혁명 당사자 분과의 인터뷰는 너무나 아쉽게도 무산되었지만,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방문해 센터를 둘러보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모든 답사를 마친 뒤 방문한 마지막 답사지로서 인상깊게 지금까지의 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 V. 결론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하여 일으킨 민주 항쟁을 말한다. 1960년 2월 28일,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여당에 맞서 대구 학생들이 ‘2·28민주의거’를 일으켰고, 이는 국민들에게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감의 불씨를 심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후 선거당일인 1960년 3월 15일 마산지역에서 이승만 정부의 부정행위에 대한 항의로 ‘3·15 마산의거’가 일어났고 의거 도중 김주열 열사가 실종된다. 이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 열사가 눈에 최루탄이 박힌채로 떠오르게 되고, 이에 분노한 마산 시민들은 시위를 이어나갔다. 마산 시민들의 분노는 전국으로 퍼져 나갔고 1960년 4월 19일, 서울, 인천,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이승만 정권은 총을 통한 무력 진압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0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시위들이 일시 소강상태가 되었으나 4월 25일 부터 시위를 재개, 4월 26일에는 4월 19일 당일 정도의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더욱 강해진 시민들의 하야 요구와 미국의 지지를 잃은 이승만은 결국 4월 26일 하야를 발표한다.(정책뉴스, 박승대, 2021.04.19., 역사학자에게 듣다, 4·19혁명의 그날)

4·19혁명은 4·19 라는 이름 때문에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난 단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2월 28일 대구에서 일어난 ‘2.28민주의거’, 3월 15일 마산에서 일어난 ‘3·15마산의거’, 4·19 당일만큼 큰 규모의 시위가 열렸던 4월 26일. 4·19혁명은 3·15부정선거에만 한정된 반향이 아닌 이승만 정권의 12년 독재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라고 할 수 있다.

조 ‘하모니’는 인천, 서울, 마산, 부산을 현장 답사하며 4·19혁명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교과서 속 글자가 아닌 답사를 통해 마주한 생생한 4·19혁명의 역사는 수 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담고 있었다. 답사를 마친 뒤, 이 숭고한 희생이 2023년을 살고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를 생각해보았다. 바로 ‘승리의 경험’이다. 권력자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위협할 때 시민들이 힘을 합쳐 권력자를 끌어내린 경험은 선례가 되어 현재의 우리에게 권력자를 견제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준다.

우리 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의 기반이 되는 4·19혁명의 자세한 역사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역사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조가 답사했던 마산 지역에서는 3·15의거 재현 코스와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을 조성하여 3·15의거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고, 부산도 마찬가지로 4·19혁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월길과 부산민주공원, 그리고 공원 안에 민주항쟁 기념관을 조성했다. 서울 역시 국립 4·19민주묘지 내에 4·19혁명 기념관을 조성하였는데 세 지역의 특징은 기념관을 4·19혁명을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기념관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원한다면 해설을 들으며 기념관을 둘러볼 수도 있어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역사를 재밌고 올바르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천은 아직 4·19혁명에 관한 기념관은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센터장님과 인터뷰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의 4·19혁명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세워졌고, 4·19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을 초대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등의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셨다. 또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는 인천 지역 ‘4·19혁명 운동 현장 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인천일보, 민족문제연구소, 2021.04.19.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역사 탐방 프로그램 ‘4·19 혁명 운동 현장 답사’ 개최)

인천 지역에서의 4·19혁명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예와 같이 4·19혁명과 관련된 길, 기념관을 조성한다면 4·19혁명에 대한 인천시민의 관심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후기

처음 답사를 떠나기 전, 우리 조는 생생한 역사를 배울 수 있다는 설렘보다 여행을 떠난다는 설렘이 컸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순서대로 마산, 부산, 서울, 인천을 답사하며 점차 여행의 설렘보다는 4·19혁명에 대해 더욱 알고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마산의 3·15 국립묘지에 방문하였을 때는 국립묘지의 크기, 기념관이 3·15의거를 어떤 디자인과 방식으로 표현했는지에 조금 더 관심이 갔다면, 서울 국립 4·19 민주묘지에 갔을 때는 4·19 희생자들이 묻혀 있는 묘지를 보며 그들이 해냈을 길지만 급박했을 여정이 떠올랐고, 경외심이 들었다.

4·19 혁명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첫 발걸음이다. 처음으로 독재정권에 전국적으로 항거하여 국민들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 민주화 운동의 불씨라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이러한 일을 해낸 사람들이 그저 대단해 보였기에 멀게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답사를 진행하며 만난 희생자들에는 우리와 같거나 더 어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어리게만 느껴지는 나이에 대한 민국의 민주화라는 대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것이다. 우리는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당시 4·19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각오를 헤아릴 수 없기에 선 불리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앞으로도 일어날 민주화 운동에 토대가 될 4·19 혁명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며,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방법이다.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 탐방이라는 좋은 기회로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운 단편적인 내용이 아닌 2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대장정의 역사를 속속히 알게 되었다.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작게는 주위 친구들에게, 크게는 여러 발표를 통해 4·19 혁명의 역사를 발표하며 2023년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자료집

# 민주야 여행가자!



# 06

4월부터 6월까지 팀

정준호

홍미연



## 탐방 전체 일정

| 날짜               | 지역 | 방문지                                                                                                                            |
|------------------|----|--------------------------------------------------------------------------------------------------------------------------------|
| ①<br>8/18        | 인천 | 1)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방문 (오경중 센터장과 만남) - 인천5·3민주항쟁                                                                                      |
|                  |    | 2) 인천5·3민주항쟁 터 방문 (옛시민회관 사거리 공터) - 인천5·3민주항쟁                                                                                   |
|                  |    | 3) 인천기계공고 4·19학생의거 기념탑 방문 - 4·19혁명                                                                                             |
|                  |    | 4) 인하대 이승만 동상터 방문 - 4·19혁명                                                                                                     |
| ②<br>8/20        | 인천 | * 역사투어 프로그램 운영 - 일제강점기 ~ 캠프마켓 반환운동                                                                                             |
|                  |    | 1)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
|                  |    | 2) 경인철도                                                                                                                        |
|                  |    | 3) 3보급단 철도                                                                                                                     |
|                  |    | 4) 캠프마켓 메인게이트                                                                                                                  |
|                  |    | 5) 부평공원 강제동원노동자상·소녀상                                                                                                           |
|                  |    | 6) 캠프마켓(일본육군조병창)                                                                                                               |
| ③<br>8/22~<br>24 | 여수 | 1) 여순사건다크투어리즘 참여 - 여순10·19사건<br>- 여순사건기념관<br>- 이순신광장 (중앙동 인민대회장소)<br>- 서초등학교<br>- 14연대주둔지<br>- 손양원목사순교지<br>- 만성리 학살지 형제묘 · 위령비 |
|                  |    | 2)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방문 (박종길 소장과의 만남) - 여순10·19사건                                                                                      |
| ④<br>8/26        | 인천 | * 해설 플로깅 프로그램 운영 - 일제강점기 ~ 캠프마켓 반환운동                                                                                           |
|                  |    | 1)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
|                  |    | 2) 경인철도                                                                                                                        |
|                  |    | 3) 3보급단 철도                                                                                                                     |
|                  |    | 4) 캠프마켓 메인게이트                                                                                                                  |
|                  |    | 5) 부평공원 강제동원노동자상·소녀상                                                                                                           |



|                  |    |                                                                                                                 |
|------------------|----|-----------------------------------------------------------------------------------------------------------------|
|                  |    | 6) 캠프마켓(일본육군조병창)                                                                                                |
| ⑤<br>8/29~<br>31 | 제주 | 1) 너븐숭이 4·3기념관 방문                                                                                               |
|                  |    | 2) 너븐숭이 4·3유적지 방문<br>- 너븐숭이 애기무덤<br>- 제주 4·3북촌리 원혼위령비<br>- 순이삼촌 문학비<br>- 옴팡밭                                    |
|                  |    | 3) 북촌 4·3유적지 방문<br>- 북촌초등학교                                                                                     |
|                  |    | 4) 함덕 4·3유적지 방문<br>- 함덕국민학교 옛터 (함덕해수욕장 주차장)<br>- 함덕지서 옛터 (흔적이 없음)<br>- 예비검속자수용소 옛터 (흔적이 없음)<br>- 한백흥·송정옥 4·3기념비 |
|                  |    | 5) 관덕정 방문                                                                                                       |
|                  |    | 6) 제주 4·3평화공원 방문                                                                                                |
|                  |    | 7) 제주 4·3평화기념관 방문                                                                                               |
|                  |    | 8) 제주 4·3연구소 방문 (양유석 연구원과 만남)                                                                                   |
|                  |    | 9)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방문                                                                                            |
| ⑥<br>9/13        | 서울 | 1) 남영동 대공분실 터(민주인권기념관 2024년 예정) 방문 - 6·10 민주항쟁                                                                  |
| ⑦<br>10/8        | 서울 | 1) 전태일 동상 방문 - 노동인권                                                                                             |
|                  |    | 2)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기념관 방문 - 노동인권                                                                                     |
|                  |    | 3) 명동성당 방문 - 6·10 민주항쟁                                                                                          |

## 탐방 동기

2022년, 1년 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구례로 내려갔다. 산소에 들러 인사를 드리고 어떤 사무실에 들러 두꺼운 서류를 제출했다. 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길었던 고생도 끝이 났다. 우린 여순사건 구례지역 희생자 유족이다.

2017년 1월, 대대결산 간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대대장 말씀이 있었다. 평소 친했던 부사관이 며칠 전 내가 누른 페이스북 좋아요를 얘기하며 조심하는 게 좋을 듯하다며 충고를 해줬다. 난 탄핵 파켓을 들고 있는 친구 글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2016년, “멸북통일! 최선봉! 천하무적! 백골사단! 김정은은 미친개 몽둥이가 약!약!약!”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내용을 매일 아침 철원에서 북한 오성산을 보며 구호로 외친다. 가치 있는 군 복무를 하고 싶다며 현행작전 부대를 찾아 3사단 수색대대에 지원한 나는 신병교육대에서 백골부대의 어원과 성과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  
‘서북청년화가 헬멧에 백골을 그린 것에서 유래되었고...’, ‘제주4.3사태를 진압하였다’ 휴가를 나와 단순 호기심으로 서북청년회와 제주4.3을 찾아봤다. 한참을 눈을 의심하며 내 나이 24살이 되어서야 제주4.3과 서북청년회의 만행을 자발적으로 공부하게 되었다.

2015년, 청년 활동을 하는 친구와 그 친구들이 궁금해서 친구 따라 세대별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조합원비는 최저시급인 5,580원이었다. 형들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해서 처음으로 네이버에 전태일을 검색했다. 전태일은 당연히 30-40대일줄 알았다. 나보다 어렸다.

2014년, 나도 남들처럼 대자보라는 걸 써봤다. 없어지면 다시 쓰고 없어지면 다시 쓰고 나중엔 A4지 소자보를 사방에 붙이고 다녔다. 내가 자아를 갖고 한 첫 운동이었다. ‘안녕들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6월, 전국청년활동가 운동회에서 만난 이제 막 4개월 차 친구다. 만난 첫날부터 다양한 의제들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될 때마다 서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활동과 운동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공부했다.

6월을 맞아 6월 항쟁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가 검색을 해보니 인천5.3이 6월 항쟁 시초라며 많은 기사가 있었다. “아니 그래서 5.3이 뭘데 난 처음 듣지?”

나는 아직도 아는 게 없었다. 조심스럽게 사진 하나를 보냈다. 작년에도 신청서만 몇 번을 쫓다 쫓다 했던 민주야 여행 가자 홍보자료였다. “공부할 명분은 구해왔는데 같이 공부 좀 할래? 나 사실 여수도 가본 적 없어”

한 달간 서로의 경험과 관심사를 확인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앞으로 탐방 할 주제를 정했다.

일본육군조병창부터 캠프마켓까지, 4.19 혁명과 이승만, 제주4.3부터 여순사건까지, 인천5.3부터 6월 항쟁까지, 전태일과 노동권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가장 억압 받던 시기부터 한국 근현대사의 민주화 과정을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남은 민주주의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10일간의 민주주의 여행을 떠난다.

제주 4.3부터 6월 항쟁, 4월부터 6월까지. 민주야 여행가자!



## 1. 인천 - 인천5·3민주항쟁

우리 팀은 이번 탐방의 첫 시작으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찾아갔다.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로 시작한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인천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록 및 정리하고 계승하며, 민주시민교육과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한다. 민주주의를 계승하는 역사현장이기도 하고, 5·3 민주항쟁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탐방지로 센터를 선택하게 되었다.

사전에 센터장님과 약속을 잡고, 8월 18일에 센터를 방문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주안역과 시민공원역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었다. 역에서도 가깝고 5·3민주항쟁 터와도 가까워서 접근성도 좋고, 역사적인 의미도 함께 간직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았다.



센터장님은 우리가 방문하자 반갑게 맞이해주셨고, 회의실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5·3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의 탐방계획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렸고, 응원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탐방이 좀 더 의미있을 수 있는 깊은 조연도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인천 5·3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천 5·3항쟁은 1986년 5월 3일에 인천 남구 주안사거리 일대에서 발생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이때 당시 민중들은 독재정권하에서 인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여러 가지 권리를 수탈당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나마 삶을 바꿀 수 있는, 내가 살아가는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한도 민중들에겐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85년 2월 총선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내건 신민당이 승리하면서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86년 인천에서는 민주주의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투쟁이 진행 중이었다. 1986년 5월 3일, 인천과 전국의 민주화운동단체와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 단체의 회원들은 시민회관 사거리에 모여서 전두환 타도, 직선제 도입, 노동3권보장 및 민중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이어지며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뤄냈다.



[인천5·3민주항쟁 당시 사진]



센터장님께 5·3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책과 유튜브를 찾아보며 공부를 해보면서 인천 5·3민주항쟁도 5·18이나 6월항쟁처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임을 알게 되었다. 인천사람들만 모인 지역의 작은 투쟁이 아니라 전국적인 반독재·민주주의 항쟁이었다는 사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공약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신민당이 사실은 전두환 정권과 타협을 하는 것이었음에 분노한 민중들의 마음,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엄청난 규모의 경찰의 과잉 진압과 연행된 집회 참여자들, 그리고 이후에 이 사건을 좌경폭력집회로 왜곡한 언론과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분노, 마지막으로 이 항쟁만으로 독재정권을 끝내지는 못했지만 정치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사회문제 등 당시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민주변혁과제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목소리를 냈던 항쟁이라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다. 특히 내가 알고 있는 주안 일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지명이나 건물 이름, 사진을 보며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



[인천 5·3민주항쟁 터]

사실 부끄럽게도 이날 탐방을 하기 전까지는 인천 5·3민주항쟁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럴 만 한 것이 우리는 인천에서 태어나 자란 인천 토박이이지만 5·3항쟁에 대한 내용은 어른들에게 들은 적도 학교에서 따로 배운 적도 없었다.

센터에서 이야기를 들은 후 옛시민회관 사거리쪽에 있는 5.3민주항쟁 터도 두 번째 탐방지로 가봤는데, 그곳이 역사적인 투쟁의 현장이라는 표시는 비석에 쓰여있는 '민주항쟁터'라는 문구가 전부였다. 5.3항쟁이 어떤 사건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누가 참여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 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역사는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저 지나간 날은 과거일 수도 있고, 지난날의 잘못된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오답 노트일 수도 있다.

5.3항쟁은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고,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민중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낸 결과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 역사를 잊고 지낸다면, 또다시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좌절될 수도 있을 것이다.

5.3항쟁도 5.18이나 4.3처럼 기념관이 생겨서 많은 인천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방문해서 기억할 수 있길 바란다.



## 2. 인천 - 4·19혁명

우리가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인천기계공고 4·19학생의거 기념탑**이었다. 인천기계공고는 511번 버스를 타고 다니며 자주 지나가던 곳인데 이런 기념 조형물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 인천기계공고 정문으로 들어가서 구령대 쪽으로 가면 기념탑이 보인다. ‘四一九학생의거기념탑’이라고 적혀있으며 학생들 5명이 서로 의지하며 버티는 형상화를 한 그림이 새겨져 있다.



[인천기계공고 4·19 기념탑]

4·19혁명은 1960년에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불의의 독재 권력에 항거한 혁명이다. 당시엔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거치며 장기 독재 집권을 하고 있었다. 경제는 자생력을 잃고 외국 원조에 의존하며 물가는 자주 오르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배회했다. 반대 세력에게는 정치적 부정과 탄압, 폭력을 행사했다.

4·19혁명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대구 2·28민주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에도 수많은 집회가 전국에서 계속된 후, 마침내 4월 19일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 “부정선거 다시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라고 외치는 대학생, 중·고등학생, 시민들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이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이날 시위대와 경찰 115명이 사망, 72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그 후 4월 26일 계속된 시위대의 요구로 이승만이 하야를 하게 되었다. 이날은 승리의 화요일이라고도 불리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출발을 역사에 고했다.

4·19혁명은 특히나 학생 들이 많이 참여했던 시위였던 것 같다. 인천기계공고에서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고, 고려대 학생 들이 귀갓길에 피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학생 300여 명이 거리로 나와 주안동, 송의동 등을 돌아다니며 “반독재, 민주주의”를 외쳤다고 한다. 이렇게 학생들이 사회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나라면 저 상황에서 학업을 뒤로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그 당시로 간다면 독재정권의 총, 칼에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다음 탐방지 **인하대 이승만 동상**터로 이동했다. 그날은 인하대 졸업식이 있는 날이어서, 방학이었는데도 학내에 사람이 꽤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이승만 동상 터가 있는 인경호 근처 공간은 한산했다.

인하대에는 인경호라는 큰 호수가 있고 호수 근처에 커다란 직육면체 돌덩이가 있다. 처음에





[4·19 혁명당시 사진 (초등학생 시위대)]

보고는 그게 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냥 조형물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인하대 선배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이승만 동상이 있었는데 선배들이 직접 끌어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하대 이승만 동상은 박정희 독재 시절 1979년 인하대의 창학정신을 기리자는 의미로 세워졌다. 하지만 이후 이승만의 독재와 친일 행적이 불거지

고,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거세지며 두 번의 철거 시도 만에 철거되었다.

그런데 최근 2024년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이승만 동상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인하대 구성원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은 명백히 독재정권이며, 이승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학살자이다. 인하대를 이승만 정권이 세웠다고 이야기되고 있기도 한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인하대는 하와이 교민들이 모은 모금을 통해, 인천시로부터 땅을 받아서 세운 학교이다. 그 어디에도 이승만 동상이 세워져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도 인하대의 교양으로 들어와서 학생들이 배울 수도 없고, 동상 터에 가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렇게 제대로 된 역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답답하다.



[인하대 이승만 동상 터]

우리는 4·19혁명을 통해 독재 대통령 하야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이번 '이승만 동상 재건' 이슈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본다면 4·19가 이룬 성과의 빛이 조금 바랜다고 생각이 든다. 이승만 동상 터와 같은 곳이 역사적 유적지임을 알리고,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가르치며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겐 계속해서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지금 이 시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 3. 인천 부평 - 일제강점기 ~ 캠프마켓 반환 운동

인천 2일차와 3일차는 부평을 찾았다.

부평의 민주주의 현장 탐방은 단순 탐방을 넘어 인천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직접 탐방의 경험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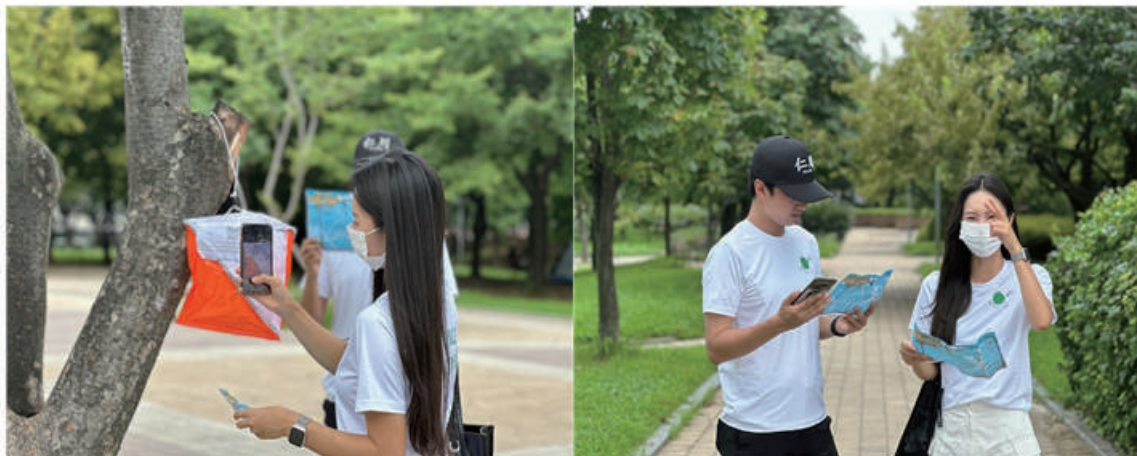
같은 코스, 다른 2가지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 지역 청년들을 만났다.

2일차는 인천을 주제로 하는 창작 활동을 위해 설립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팀 '청년소리'의 <마계인천 용사 미션게임>을 준비했다.



<마계인천 용사 프로젝트>는 마계인천이라는 멸칭으로 대표되는 인천의 부정적인 도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마계인천 용사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전하고 참여자들은 지역을 재발견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을 바라보게 된다.



2일차 민주주의 현장탐방인 마계인천 용사 미션게임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부평 일대 20여개의 거점에 설치된 체크포인트를 직접 발로 다니며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청년들은 미션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평의 이야기를 배우며 마계인천이라는 인식을 지우고 부평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주변에 자발적으로 확산시키는 용사로 성장해나간다.



기존에 진행했던 미션투어를 민주주의 현장 탐방을 위해 참여 요소를 강화하여 새롭게 파일럿으로 진행한 미션게임은 삼릉출사택, 부평공원, 캠프마켓, 경인철도, 군용철도 등이 주요 거점이었다.

참여자들은 마왕에게서 마계인천을 구해야 한다는 판타지적 설정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스며드는 예상치 못한 민주주의 현장탐방을 통해 마왕은 무엇인지, 마계인천을 만든 건 마왕이 맞는지, 녹슨 확장기 · 불펜 검과 같이 보급된 용사 무기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가장 위기에 빠졌던 시기인 일제강점기의 일본육군조병창, 미쓰비시의 강제동원, 미군이 주둔하며 자주권을 잃었다가 80여 년 만에 비로소 되찾은 캠프 마켓의 이야기를 전했다.



개별로 또는 2인 1조로 진행한 미션게임 종료 후 기획 의도 등 가벼운 도슨트를 더해 마왕으로 비유한 지역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에 맞서 잊혀졌던 부평의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확산시키는 용사가 되어주길 독려하며 2일차 탐방을 마무리 지었다.

탐방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인천 3일차 탐방에서 다루겠다.



[참여자 후기]





인천 2일차와 같은 탐방 코스로 기획한 인천 3일차는 해설 투어와 플로깅을 결합하여 '부평 에코 역사 투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 현장 탐방을 기획했다.

코스는 동수역에서 출발하여 삼릉출사택, 경인철도, 군용철도, 캠프마켓 메인게이트, 부평공원 무궁화동산, 강제동원노동자상과 소녀상, 캠프마켓까지 탐방한다.

자체적으로 교육한 대학생 해설가와 함께 청년의 시각과 언어에 맞는 조금 더 쉽고 재밌는 해설 투어를 준비해보았다.

에너지의 날 즈음하여 플로깅 형태로 탐방할 청년들을 공개 모집했고 인하대학교 청년창업팀인 콜렉터스와 에코웨이브에게 콜라보레이션 제안을 하여 플로깅키트 등 물품 제공을 받았다.



동수역 3번 출구에서 집결하여 플로깅키트를 나눠주고 삼릉 일대 플로깅을 시작했다. 플로깅을 하며 이동한 첫 번째 탐방지는 삼릉출사택이었다.





인천 부평에는 한반도의 유일한 군수공장인 일본육군조병창이 있었다. 조병창이 들어서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노역에 강제 동원 되었다. 일본은 강제동원노동자들의 수용과 관리를 위해 삼릉 지역에 출사택을 만들었다. 이후 히로나카상공이 노동자들의 합숙소로 출사택을 사용했고 히로나카상공을 미쓰비시가 인수하면서 출사택은 삼릉출사택이라는 이름이 됐다.

‘삼릉’은 지난 일본 불매운동의 원인 중 하나였던 전범 기업 미쓰비시의 한자 표기다. 미쓰비시 강제 동원 노동자들이 거주하면서 이 일대는 삼릉이 되었다. 오늘 탐방의 출발지인 인천 1호선 동수역은 개통 당시에 삼릉역이 될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미쓰비시 강제 동원 배상 문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부평 미쓰비시는 근로자 1천명 대부분이 강제 동원 된 한국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붕 보수 등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

삼릉출사택은 키가 큰 사람은 제대로 서지 못할 정도로 천장이 낮았고 4평짜리 방 한 칸에서 4-5명이 거주하거나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출사택의 구조상 출입구 통제가 용이해 노동자 관리에 집중된 건물구조임을 느낄 수 있다. 몇 년 전까지 실제 사람이 살았고 보수 흔적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건물 단면을 보면 콘크리트 철근이 아닌 나무를 뼈대로 흙을 발라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거주지로써 안전과 기능을 무시한 비용만을 생각한 건물이다.

미쓰비시의 강제 동원과 피해자 손해배상을 위한 자산 매각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다. 삼릉출사택은 전국에 유일하게 남은 미쓰비시 강제 동원의 흔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아주 높다. 부평구는 삼릉출사택을 국가문화등록문화재로 신청했다. 이미 많은 출사택이 철거됐지만 미쓰비시 강제 동원의 마지막 흔적인 삼릉출사택을 보존하여 가슴 아픈 역사가 다음 세대에 계도 이어졌으면 한다.



[경인철도]



[경인철도 착공식]

삼릉출사택을 지나 경인철도가 내려다보이는 고가도로 위에 섰다. 경인선은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 노선이다. 1899년 개통한 경인선은 엄청난 운송 혁명을 이뤄냈지만, 그 이면엔 제국주의 야망과 이권 다툼이 담겨있다.

미국의 기업가 제임스 모스(James R. Morse)는 이완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철도 부설권에 대한 고종의 승인을 받아낸다. 이후 철도 창설 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본 정부가 무단으로 '조일합동합동조관'을 체결하여 일본이 철도부설권을 가질 뻔했으나 결국 부설권은 미국에게 넘어갔다. 이듬해 우각현(현 도원역 인근)에서 착공식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명성황후 국상 중으로 조선인들은 흰옷을 입고 참석하였다.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흑색선전을 펼쳐 미국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게 되었고 모스는 자금난을 겪어 결국 철도부설권은 일본의 경인철도합자회사에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개통된



최초의 철도 경인선은 중일전쟁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 야망을 위한 병참선으로 사용됐다. 특히 부평은 인천항에서도 멀지 않고 서울과 인천의 중간이며 경인선이 있어 일본육군조병창 부지로 결정되었다. 부평의 가슴 아픈 역사를 이야기 함에 있어 경인철도는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여 비중을 두고 해설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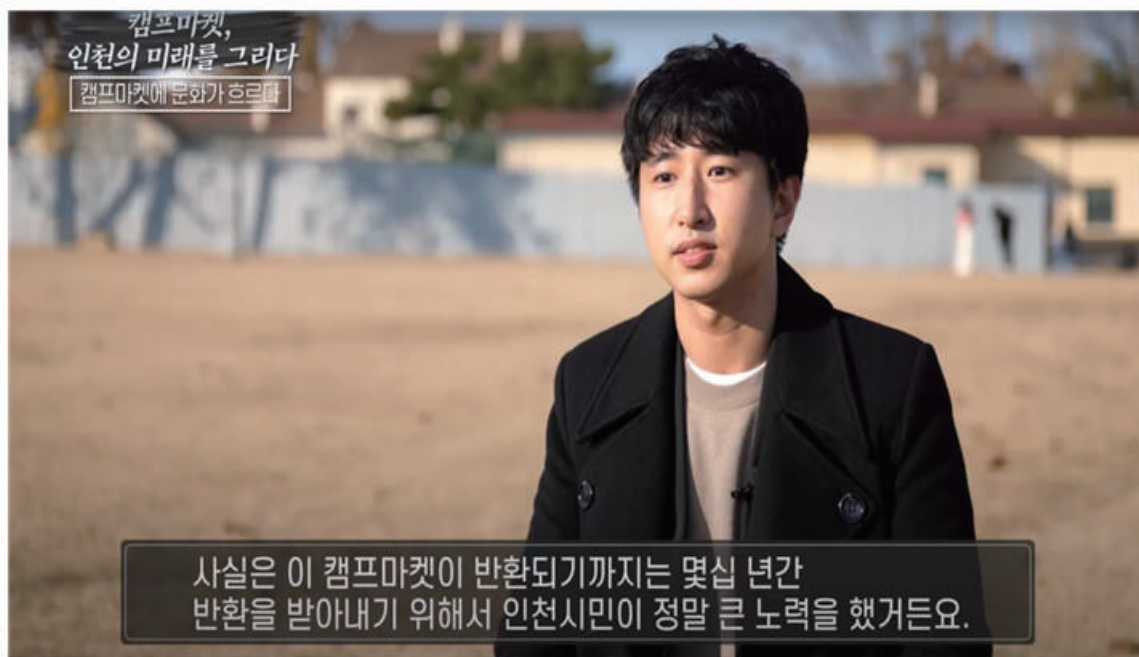
고가도로를 내려오면 3보급단으로 이어지는 군용철도가 있다. 나는 맞은편에 있는 부원중학교 출신으로 학창 시절 이 철길을 정말 좋아했다. 대정초등학교 재학 시에도 하굣길엔 꼭 이 철길을 이용하곤 했다. 학창 시절 철길로 건다 보면 아주 드물게 화물열차가 오는데 그럴 때면 후다닥 철길 옆으로 벗어나 열차가 지나가는 걸 구경했다. 열차 앞머리에서 사람들에게 “비키세요”를 외치는 기관사의 모습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있다. 지금도 부평공원에서 러닝 후엔 철길을 통해 귀가한다. 이 철길도 과거엔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는 데에 사용됐으리라. 내가 이 철길을 마음껏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 감정을 해설에 담았다.



철길을 따라 올라가면 캠프마켓 메인게이트가 있다. 흔히 미군기지로 부르는 캠프마켓은



2020년 일부 개방 이후 부평공원 맞은 편 B구역 게이트 쪽으로 출입하지만 캠프마켓 메인게이트는 이쪽이었다. 군 복무를 마쳤다면 근무 해봤을 위병소도 있고 출입 절차도 적혀있다. B구역은 공원화되어 군부대 느낌이 나지 않지만, 이곳에서 출입 불가 구역을 바라보면 캠프마켓이 군부대라는 느낌이 물씬 전해진다. 내부에 붉은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지어진 건물로 추정된다. 눈에 보이는 캠프마켓과 과거의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육군조병창은 쉽게 매칭되지 않는데 붉은벽돌 건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함께한 청년들도 작게나마 체감이 되는 듯 보였다. 스태프 3명을 제외한 참여자 전원이 캠프마켓을 처음 접하는 평범한 인천 청년이었는데 백마디 말보다 한번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와닿았다.



이번 부평 민주주의 탐방지는 나와도 가까운 곳이다.

친할아버지께서 미군기지를 출입하는 아리랑택시 기사로 10년간 근무하셨고 아버지는 학창 시절의 전부를 삼릉에서 보내셨다.

나 역시 캠프마켓에서 가장 가까운 2개의 학교인 대정초등학교와 부원중학교를 졸업하며 반환 전 캠프마켓 담벼락을 돌고 돌아서 등하교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부대 입구를 오가는 내게 군인아저씨들은 가끔씩 인사를 건네줬지만 어린 내게는 그조차도 무서운 일이었고 캠프마켓 담벼락은 높게만 보였다. 부평공원에서 진행된 어린이날 행사 때 엄마에게 부대를 가로질러 가면 집에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냐고 물었던 기억도 난다. 성인이 되어 군 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캠프마켓 담벼락은 여전히 높아만 보였다.

2020년 10월, 캠프마켓이 81년 만에 개방된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찾아간 캠프마켓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척박한 흙바닥일 줄 알았던 곳엔 꽃과 잔디가 펼쳐져 있었고 막연히 사격장과 같은 훈련 시설만을 생각했던 내 앞엔 야구장과 수영장, 실내 공연장이 보였다. 나는 그때가 되어서야 캠프마켓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



면서 캠프마켓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접해왔었으나 무관심으로 인해 모든 걸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평미군기지가 아닌 '캠프마켓'이라는 명칭에 대해 명확히 인지한 것조차도 이 시점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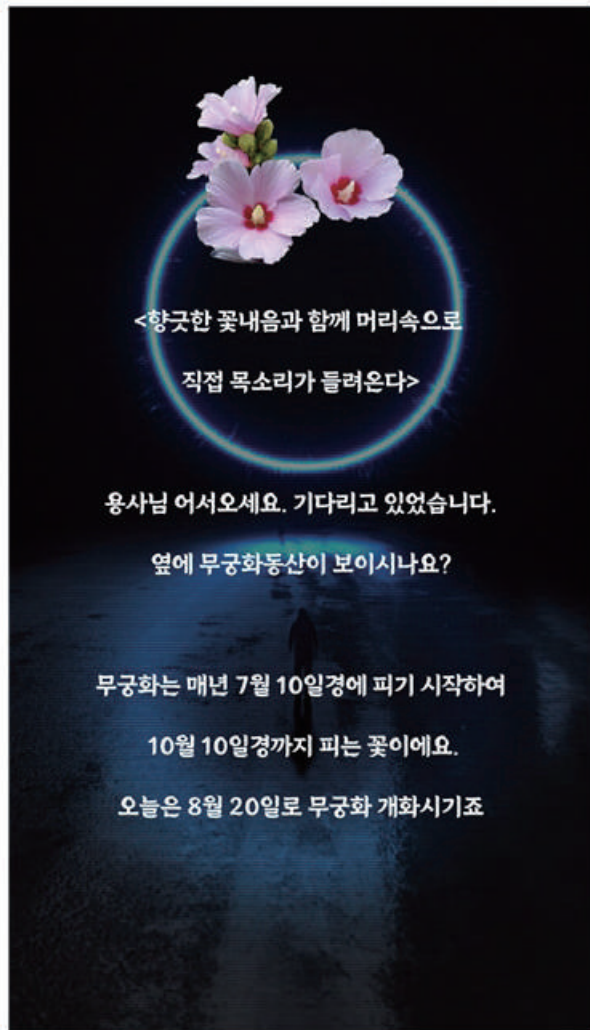
지난 80여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의 캠프마켓을 공부한 후 나는 내 또래 친구들에게 캠프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알리기로 마음먹고 활동을 시작했다. 캠프마켓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면서 놀랐던 점은 흔히 말하는 MZ세대의 대부분이 캠프마켓의 명칭이나 미군 부대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와 같은 학교를 나온 동창들도 마찬가지였고 인지 수준 조사를 위해 문화의 거리에서 만난 70여명의 MZ세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캠프마켓 바로 옆 부원중, 부원여중 일부 학

생들의 경우엔 교과서를 통해 배우진 않았지만 기회 교육을 통해 캠프마켓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친구들 역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처럼 자연스럽게 캠프마켓을 잊을 것이다. 캠프마켓의 역사와 가치, 반환을 위해 힘쓴 이들의 이야기를 구전으로, 글과 카드 뉴스로, 영상으로, 캠페인으로 캠프마켓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다가 지금은 다양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캠프마켓을 알리고 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돈 한 톨 못 버는 일을 왜 돈을 써가면서 하나고 많은 이들이 묻는다.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캠프마켓을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은 미래세대인 우리 청년세대와 자녀들이겠지만 반환 운동이 끝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캠프마켓은 아직 외당지 않는 이야기일수도 있다. 캠프마켓 뿐만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많은 일들이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독립을 위해 싸운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독립을 이뤄낼 수 있었고 캠프마켓 반환도 반환 운동에 앞장선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캠프마켓은 언젠가 모든 것이 잊혀진 그저 그런 공원이 될 것이기에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전해야한다. 나처럼 내가 살아가는 지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마을을 사랑하게 되는 경험을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공유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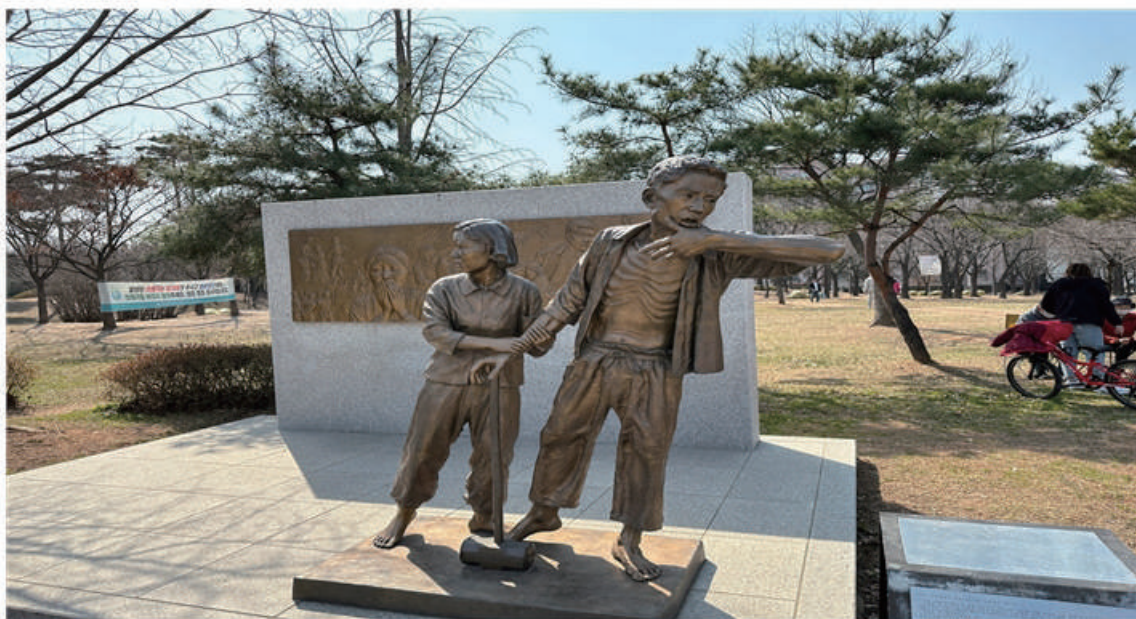




부평공원에는 무궁화동산이 있다.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무궁화는 7월부터 10월까지 100일 가까이 무궁하게 피는 꽃이라서 무궁화라고 불린다. 하지만 꽃은 언젠가 지기 마련이고 꽃이 진 이후엔 그곳에 꽃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다. 이곳 무궁화동산도 현판이 없었다면 개화시기 전후로는 무궁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곧 무궁화가 필 거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기억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가문화재 등록을 추진 중인 미쓰비시출사택과 캠프마켓을 지나 과거 히로나카상공, 미쓰비시공장이 있었던 강제 동원의 가슴 아픈 현장 부평공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곳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잊혀져버렸다. 아무 이야기도 없고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평범한 공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공원 조성 단계에서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 무궁화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간다. 앞으로는 지역이 가진 소중한 역사적 의의와 가치들을 허무하게 놓쳐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라진 문화재는 꽃과 달리 다시 피지 못한다.







강제징용노동자상은 광복 72주년을 맞아 2017년, 시민들이 뜻을 모아 제작한 조형물이다. 이 동상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일본육군조병창에서 일했던 지영례 할머니와 일본육군조병창에서 일하며 조선독립당에 독립 운동 자금을 지원하다 옥고를 치른 고 이영현님의 실제 얼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제작한 강제징용노동자상 덕분에 부평공원은 잃었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되찾았다. 강제징용노동자상 이야기에 다들 집중하는 눈빛이 보였다. 나는 1주일에 1-2번 부평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는 청년 러닝크루를 운영 중인데 집결 장소는 항상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으로 한다. 우리 50여명의 러닝크루원중에서 이제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가끔 체력이 될 때는 함께 달리면서 부평공원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한다. 웬지 모르겠지만 내가 달리면서 해설하는 걸 다들 아주 좋아한다. 숨이 차는 모습이 재밌는 걸까?



바로 옆엔 강제징용노동자상 보다 1년 앞서 2016년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 맺힌 역사와 자유, 평화에 대한 소망을 담은 상징물이다. 부평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흔히 알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과는 달리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는 모습이다. 이는 고개를 들고 당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주체적인 모습의 소녀를 표현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듯 한쪽 발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것도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1930년대 후반, 일본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병기와 군수품의 보급이 절실해지자 부평을 병참기지 삼아 군수공장인 일본육군조병창 부지로 결정한다. 캠프마켓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조병창이 있었던 곳이고 일본육군조병창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는 1만여명에 달했다. 일본이 전쟁 물자로 사용하기 위해 공출·공납으로 쇠붙이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썩 다 빼앗았다는 내용은 학창 시절에 배운 적 있지만 그렇게 빼앗은 쇠붙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선 배우지 못했었다. 당연히 어디 공장가서 무기 만들었겠지 싶는데 그 공장이 부평의 일본육군조병창이다.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간접적으로 부평 일본육군조병창에 대해 배웠었다. 미성년자까지 동원된 강도 높은 노동으로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했고 당시 조병창 병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현재도 남아있다. 앞서 부평공원에서 소개한 지영례 할머니가 이 병원에서 일하셨다고 한다. 병원 건물은 조병창의 가혹한 강제 동원 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캠프마켓에 조병창 병원 건물은 큰 한축을 차지할 듯 하다. 캠프마켓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고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조성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기를, 청년들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탐방보고서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면 '캠프마켓'이라는 4글자를 꼭 기억해주길 바라며 어디선가 또 다시 캠프마켓을 보고 듣게 되었을 땐 오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 4. 여수 - 여순10·19사건

이번에는 KTX를 타고 전라남도 여수로 향했다. 여수는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여수밤바다’도 있고, 계장과 갯김치 등 맛집으로도 유명하고, 아름다운 바다마을로 관광지로 유명하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다. 바로 여순10·19사건이 일어난 주요 도시기 때문이다.

여순10·19사건이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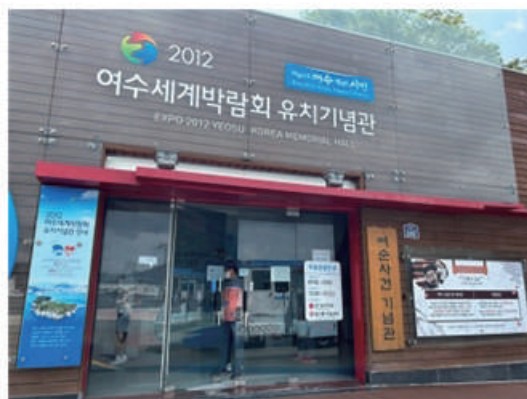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 버스]

이번 탐방을 기획하며 여순사건 유적지 여러 곳을 둘러보고 싶은데 좋은 게 없을까? 하고 찾아보던 중 여순사건다크투어리즘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수시차원에서 시티투어처럼 운영하는 버스 투어여행이었다. 코스도 좋아서 사전에 신청을 하고 투어버스로 찾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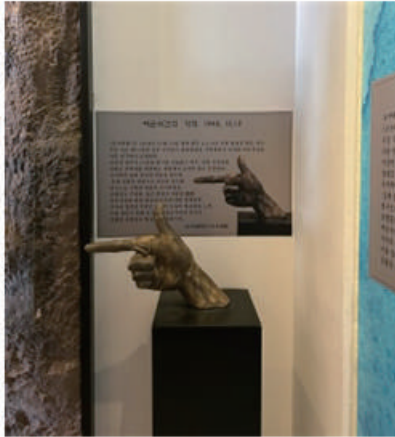
평일 10시 30분이라는 이른 시간이었는에도 불구하고 10명 정도의 참가자 분들이 계셨다. 잠시 뒤 버스가 출발하고 해설사분이 진행을 시작했다. 첫 번째 코스는 여수 오동도에 있는 여순사건기념관이었다. 2021년 10월 19일

에 처음 문을 연 기념관이었는데, 규모는 조금 아쉬웠다. 여수엑스포유치 기념관 건물을 함께 쓰고 있어서 전시관도 방 한개이고, 시청각실 한 개 정도가 끝이었다. 여순사건이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순천에도 ‘여순10·19항쟁 역사관’이 있다고 한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그곳도 꼭 둘러보고 싶다. 기념관 안에는 당시의 한국의 상황과 여순사건의 전말, 전개 과정과 사진 등이 전시되어있었고, 여순사건을 표현한 예술작품들도 함께 전시되어있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손가락 총〉이었는데, 이승만 정권이 여순사건을 진압하고 부역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총으로 어떤 사람을 지목하면 바로 사살하는 그런 무자비함을 표현하는 작품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무 관련 없는 민간인들도 많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 너무나 무섭고 소름 끼치면서도 화가 났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순사건기념관]





[손가락총]



[서초등학교]

기념관을 나와 우리는 두 번째 탐방 장소인 **서초등학교**로 이동했다. 이곳은 아까 기념관에서 봤던 '손가락 총'이 실제로 벌어졌던 학살지였다. 손가락 총에 걸린 사람 중 일부는 학교 뒤의 도랑으로 끌려가 즉결 총살을 당했다고 한다. 분류 대상자는 교전 중인 자, 총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군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분류하는 것도 있었지만, 머리를 짧게 깎은 자 등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들까지도 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존재했다. 그 결과 죄가 없는 시민들도 즉결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고, 형무소로 보내지기도 했다.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인 초등학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현재도 이 공간은 초등학교로 아이들도 등교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 공간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다.

다음 코스는 **이순신광장**이었다. 이곳은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여순사건 때 **중앙동 인민대회장**으로서의 역사적인 유적지이다. 봉기를 일으킨 군인들 14연대가 1948년 10월 20일 오후 3시경에 중앙동 로터리 광장에서 인민 대회를 열었다. 이곳에서 “38선이 무너졌다. 제주 출병을 거부한다. 동포가 동포를 죽일 수 없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회 후 행진까지 진행했다. 여순사건의 주역들이 한데 모여서 자신들의 결의를 다졌던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경건해지는 것 같았다. 동포가 동포를 죽일 수 없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정말 멋지고 용기 있다고 생각한다.



[이순신 광장]





[14연대 주둔지]

이순신 광장 근처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우리는 다음 코스로 이동했다. 바로 **14연대 주둔지**이다. 아까 말했던 14연대가 머물렀던 곳이다. 동굴 같은 곳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주로 지냈던 것 같다. 이곳은 동굴밖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고, 한화여수 공장이 들어서 있었다.

다음 코스는 **손양원목사순교지**였다. 두 아들이 여순사건 때 죽었지만,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오히려 사랑으로 이해하며 양아들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담겨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만성리 형제묘**로 향했다. 이곳은 학살 후 시신을 찾을 길이 없던 유족들이 죽어서라도 형제처럼 함께 있으라고 '형제묘'라 이름 붙인 곳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 다크투어의 마지막, 다음은 **만성리 학살지 (여순사건희생자위령비)**였다. 만성리 학살지는 부역 혐의로 잡혀있던 중산국민학교(현 중앙초등학교) 수용자 중 수백 여명의 민간인들을 이곳으로 끌고 와 집단학살 한 곳이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 작은 돌을 계곡에 던지거나 쌓아 돌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2009년 건립된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져 있었다.



[손양원 목사 순교지]



[만성리 형제묘]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여기까지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에 참여해봤는데 역시 다크투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동포를 죽이라는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들도, 잘못된 명령에 거부하는 게 잘못된 걸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 세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더 많은 학살지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학살지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다크투어를 마쳤는데, 여순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졌다. 여순사건 유족회보단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방문해서 소장님을 만나면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더 들을 수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 지역사회연구소에 연락하여 일정을 바꾸고 바로 연구소로 향했다.

소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 알고 보니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을 여기 연구소에서 계획하고, 해설사까지 양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여순사건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님 만남]

아직 피해자의 규모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있다고 한다. 여순사건특별법도 최근 2021년에 법률로 제정되고, 2022년에 시행되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찾기 등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센터에서는 당시 희생자를 밝혀내는 활동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갑자기 방문하게 되었지만 거의 1시간 정도 여순사건의 거의 모든 것에 관한 내용을 들을수 있었다. 안갔으면 정말 후회할 뻔 했다.

이렇게 여수에서의 여순사건 유적지 탐방은 마무리가 되었다.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군인들이 동포를 죽이라는 명령에 항거하여 국가 폭력에 맞선 사건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탐방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다. 운동장에 모여 즉결처분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국민을 지켜줘야 할 국가가 오히려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겪을 때, 얼마나 원통했을까. 이런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여순사건 자체는 70년이 넘는 정말 오래된 역사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이기도 하다. 특별법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들을 파악하는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 과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제를 해결해야만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 5. 제주 - 제주 4·3

이번 탐방은 아름다운 섬, 제주도로 떠났다. 제주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항일의 역사와 4·3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탐방에서 우리 팀은 제주4·3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제주도는 섬 전체, 어디를 가도 4·3유적지라고 할 만큼 유적지가 정말 많았다. 그중 우리는 먼저 제주도 동쪽의 북촌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북촌리는 4·3 당시 지역 주민이 토벌대에 학살된, 제주도에서 가장 피해가 큰 마을이다. 우리는 먼저 북촌리의 **너븐숭이 4·3기념관**을 방문했다. 기념관은 너븐숭이 공원 내에 있었다. 너븐숭이 4·3공원은 1949년 1월 17일 함덕주둔 2연대 3대대 군인들이 북촌주민들을 집단 학살한 것을 위령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너븐숭이 4·3기념관]



[너븐숭이 4·3기념관 영상물 시청]

전시관 내부에는 너븐숭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4·3 이후에 남아있는 유족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어서 더욱 가슴아프게 와닿았던 것 같다.

북촌리는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항일의 동가가 많았고, 해방 후에는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 조직이 활성화되었던 곳이라고 한다. 하지만 4·3때 토벌대의 주먹을 받으며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1949년 1월 17일

북촌리 마을의 남녀노소 400여명이 한번에 희생당했다. 그래서 북촌리는 지금도 명절처럼 한날한시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 더 기막힌 사건이 있었다.

바로 아이고 사건이었는데, 400명이 학살당한 그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날 일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도 못했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마을 청년 김석태가 군대에서 죽어 마을 장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은 5년 전 기억이 떠올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이고 사건]

이 사건을 보면서 4·3자체만으로도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계속된 학살과 탄압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2차적인 가해를 입히며 애도도 하지 못하고, 진상규명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억울함, 분노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리고 너무 무서웠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것도 같은 나라 민족이, 이렇게 죽이고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했다.

기념관을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가장 먼저 보인 유적은 **애기무덤**이었다. 북촌리에서 자행된 학살은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목숨도 무자비하게 앗아갔다. 어른들의 시신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의해 다른 곳에 안장되었으나 어린아이들의 시신은 임시 매장한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애기와 무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붙어있었다. 아무것도 모른채 공



[북촌 원혼위령비]

‘우리 여기서 그때 죽은 조상들을 위한 술 한잔 올리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울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슬픔의 소리도 용납받지 못한 채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 몇 명은 경찰서로 불려가 다시는 4·3을, 눈물을,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왔다. 이후 6월항쟁을 거치고 1987년 이후에야 4·3진상규명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애기무덤]

포에 떨어졌을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꼭 행복하게 지내고 있길 바란다.

그리고 제주 4·3북촌리 원혼위령비가 있어서 죽어간 원혼들을 위로하고 기릴 수 있었다.

조금 이동하니 **순이삼촌 문학비**, 그리고 **옴팡밭**이 보였다. 순이삼촌은 예전에 교과서에서도 봤던 작품이었는데 북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 방언으로 삼촌은 부모 세대의 어른들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당시에도 순이 삼촌인데 여성이 아니어서 인상 깊었었다.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순이 삼촌도 그



당시 학살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그날의 일을 말하지 못한 채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너무 슬픈 소설이었지만 그래도 제주 4·3이 교과서에 실릴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졌다. 하지만 순이삼촌도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4·3을 소재로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정보기관에 연행되어 고초를 당했다고 한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순이삼촌을 쓴 현기영님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순이삼촌 문학비는 언뜻 보면 땅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것 같다. 이것은 4·3당시에 시신들이 길에 이리저리 놓여있었던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각 비석에는 순이삼촌의 글귀들이 적혀있다.



[순이삼촌 문학비]



[북촌초등학교]

우리는 너븐숭이 4·3공원을 지나 북촌초등학교로 향했다. 북촌초등학교는 학살이 자행된 곳이자 이후 아이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했다. 원래 이곳엔 참사의 현장이라는 비석이 있었지만,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공사 중이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또다시 북촌마을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꼭 보고 싶다. 한가지 든 생각은 여수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학살지로 초등학교를 정했다는 게 정말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함덕초등학교 옛터]

우리는 북촌마을을 떠나 함덕으로 이동했다. 함덕은 해수욕장으로 유명해서 예전에도 몇 번 가봤지만 4·3유적지로는 생소했다. 구글에 찾아보니 '4·3 유적지 지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보고 몇군데를 찍어서 가기로 했다. 먼저 함덕국민학교 옛터였다. 지도를 보고 잘 찾아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함덕해수욕장 주차장만 덩그러니 있었다. 뭐지? 싶어 하던 참에 작은 표지판 하나가 있었다. 함덕국민학교 옛터라는.. 그전에도 여러 유적지들을 가봤지만 이렇게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유적지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본 유적지들은 더 충격적이었다.



[사방이 공사장이다]

함덕지서 옛터와 예비검속자수용소 옛터가 있었지만 아무리 옛터였어도 지금은 한창 공사 중인 건물이 있을 뿐이었다. 어떤 표식이나 흔적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작은 설명문, 현판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제주 4·3의 사적지를 맵핑 해둔 지도에는 나와있는데 현장에는 공사장뿐인 아이러니를 보며 많은 고민을 갖게 되었다. 해당 내용은 관련 기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함덕에 있는 한백홍·송정옥 4·3기념비를 찾았다. 한백홍님은 항일운동도 하셨다고 한다. 4·3당시 함덕리장이었던 한백홍님과 마을 유지였던 송정옥님이 토벌대로부터 무고하게 학살당할 위기에 처했던 마을 청년들을 구하기 위해 토벌대의 만행을 만류하다 함께 희생되었다고 한다. 이장과 마을 유지였다면 가만히 있어도 운 좋게 일생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항일운동에 4·3청년들을 위해서 행동하셨다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이렇게 4·3때의 의인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한백홍·송정옥 기념비]

여기까지 함덕에서의 탐방을 마치고, 우리는 관덕정으로 향했다. 관덕정은 4·3사건의 발단이



[관덕정]

되었던 3·1절 행사 때의 시위 장소이다. 1947년 3월 1일, 제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렸고, 제주읍에서는 북국민학교의 3·1절 행사가 오후 2시에 끝나자 군중들은 가두시위에 나섰다. 그러던 중 관덕정 부근에서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쳤다. 하지만 경찰은 다친 아이를 두고 그대로 지나쳤다.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관덕정 부근에 있던 무장경찰은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았다. 이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되었고, 제주 4·3의 도화선이 되었다.



관덕정은 제주 목관아라는 유적지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 우리가 간 날에는 시간이 늦었는데 다행히 야간개장을 하고 있어서 탐방을 진행할 수 있었다. 관덕정은 문화재여서 잘 보존이 되어있었는데, 아쉽게도 4·3유적지라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가는 유적지마다 표지판 같은 것도 없고 보존이 잘 안되어있는 것 같아 이상하다고 느껴졌다. 이 의문은 다음 탐방을 하면서 해소되었다.

둘째 날 우리는 **제주 4·3평화공원**으로 향했다. 제주에서 대중교통으로 평화공원으로 가는 방법은 딱 2가지이다. 43-1이나 43-2번 버스를 타고 오는 방법이다. 버스 번호가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래 343, 344번 버스였는데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며 제주 4·3평화공원을 경유하는 노선을 변경'한다고 했었다. 이렇게 버스 번호로도 역사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참신했던 것 같다. 인천도 53번 버스를 새롭게 만들어서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평화공원에 있는 **제주4·3연구소**의 연구원분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우리가 했던 전체 탐방에서 관련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몇 번 있었는데 모두 우리가 갈 때마다 인천에서 역사 공부를 하는 청년들이 왔다는 사실에 기뻐해 주시며 반겨주셨다. 이번에도 연구원분은 반겨주시며 무엇이든 물어봐도 좋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일단 4·3사건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이후 질문을 했다. 이번 탐방을 가장 궁금했던 것은 왜 4·3유적지가 이렇게 보존이 잘 안 되고 있는가? 였다. 4·3유적지 지도에 나와 있는 곳인데도 어떠한 표식도 없었고, 그냥 공사 중이거나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 이유를 여쭙보니 연구원분은 큰 책을 하나 가져오셨다. 내용을 보니 4·3유적지들이 기록되어있었는데 유적지가 많아도 정말 너무너무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적지는 현재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도심에서는 건물이 들어서고 가게가 들어와 있거나, 그냥 공터로 남아있거나 한 것이 많았다. 동문시장 근처에도 유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다. 연구원분의 설명으로는 유적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존하려면 제주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다. 제주도는 유적지로서만 기능할 수 없고, 도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들었다. 설명을 들으니 한번에 이해가 갔다. 그러면서도 제주도 전체가 유적지라는 말은 모든 곳에서 학살과 살인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라서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밖에도 4·3사건을 어떻게 명칭하면 좋을지나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아직 **4·3기념관**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자, 연구원분은 너무 감사하게도 특별히 기념관 가이드를 해주시겠다고 하셨다. 시간이 많진 않아서 천천히 설명을 해주시긴 어려웠지만 빠르게 기념관 안의 모든 전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특별전시내용까지도 설명해



[제주 4·3연구소 방문]



주셨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4·3에서 의인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냥 시민 들 중에 서만 의인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한백흥님처럼 마을 관리나 경찰에서도 시민들을 보호하려 했던 의인들이 있었다. 그들 내에서도 동포를 학살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크나큰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여순항쟁의 군인들은 명령을 실제로 거부하기도 했다. 그걸 보면서 국가 폭력을 실행한 군인이나 경찰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던 정권, 책임자들의 잘못이 크다고 느껴졌다. 4·3을 이야기할 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진짜 책임자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화가 난다.

가이드를 마치고 연구원님은 우리에게 4·3에 관련된 책을 주셨다. 처음에 연구소를 찾아갔을 때는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바쁘신데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시고 선물도 주시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방불명인 표석]

우리는 기념관을 본 후 평화공원을 한번 둘러봤다. 평화공원에는 위령제단, 위패봉안실, 봉안관, 위령광장, 행방불명인 표석 등이 있었다. 기억에 남았던 곳은 위패봉안실과 행방불명인 표석이었다.

위패봉안실안에 들어가자 약간 숨이 막혔다. 이름만 새겨져 있는 위패인데도 그 수가 너무나 많았다. 공식적인 희생자 수는 2023년 현재 14,738명이고,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는 그 수를 3만명까지도 추산한다고 한다. 너무 많다. 너무 많이 희생당했다. 숫자로만

보면 그 규모가 와닿지 않지만 직접 눈으로 위패의 수, 비석의 수를 보면 그 어마어마함에 압도당한다.

이런 규모는 행방불명인 표석으로 가보면 더욱더 크게 느껴진다. 4·3때 바로 즉결처분을 당한 사람과 이후 예비검속에서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이 된 사람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을 찾는 비석이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는 마지막 4·3 유적지인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을 방문했다. 이곳은 사전 조사할 때는 몰랐는데 연구소에서 알려주셔서 방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 역사관은 올해 3월달에 개관을 했다. 제주도에 여러번 와봤지만 주정공장수용소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알게 되었다. 동양척식회사가 직영한 제주 주정공장은 일제 말기인 1943년에 준공되어 1970년대 말까지 가동된 가장 큰 산업 시설이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었다. 제주 4·3당시 민간인을 가두는 최대의 수용소로 이용되었다. 수용자 중 일부는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돼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총살당했다. 또 한국전쟁 이후에도 예비검속으로 끌려온 사람들을 감금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2023년 제주도는 이곳 주정공장 옛터를 제주 4·3의 역사 현장으로 보전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역사관을 건립했다고 한다.

예비검속. 범죄 방지를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구금한다는 뜻이다.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일단 잡아간다. 4·3유족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4·3이후의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4·3. 제주도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때문에 엄청난 트라우마처럼 남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지금은 4·3이 끝났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유해는 발굴되고 있고, 진상을 밝혀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다. 그리고 여전히 4·3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4·3은 끝나지 않는다. 최악엔 제2의 4·3, 제3의 4·3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예전을 살았던 어르신들이 아닌 앞으로를 살아갈 청년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탐방하며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 탐방 이후에도 지금 했던 생각들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간직하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6. 서울 - 전태일열사, 6월민주항쟁

우리 팀의 마지막 탐방지는 바로 서울이다. 이곳에서 6·10민주항쟁과 전태일 열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남영동 대공분실터**로 향했다. 이곳은 6월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은 대공분실 소속 수사관 6명에 의해 연행되었다. 수배 중이었던 선배를 잡기 위함이었다. 박종철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다가 14일 숨졌다. 경찰은 초기 발표에서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터무니없는



[남영동 대공분실터]

이야기를 하였으나, 부검 결과 전기고문과 물고문에 의한 살인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민당과 재야단체 등 시민들이 모였고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되었다. 이 내용은 영화 1987을 통해서도 봤던 내용이라 익숙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이외에도 여러 반독재 민주인사, 시국사범들을 고문했던 악명높은 기관이었다. 멀리서 봤을 때도 건물이 생각보다 컸고, 창문이 작고 교도소처럼 생긴 것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내부에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들어가 볼 수는 없었다. 아쉽지만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평화시장]

그리고 탐방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한번 서울로 향했다. 이번엔 **전태일 동상**을 먼저 보러 가기로 했다. 1호선 동대문역에서 내리니 눈앞에 바로 평화시장이 보였다. 사전에 평화시장을 찾아보려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전태일 열사에 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조금 실망했었다. 역에서 보이는 평화시장에도 전태일 열사의 흔적은 없는 것 같았다. 동상으로 가려면 청계천 다리를 따라 쪽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바닥타일에 뭔가

쓰여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 민주시민 단체들에서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내용의 타일을 바닥에 새겨놓았던 것이다. 이때부터 마음이 조금 들떴던 것 같다. 그동안 갔던 유적지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았고,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이곳은 약간 다른 것 같았다. 그렇게 타일을 따라 쪽 가다 보니 전태일 동상을 만날 수 있었다. 동상이 있는 곳은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았다. 바닥엔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현장이라는 동판도 있었다.

탐방을 다녀온 이후 동상에 관한 기사를 찾아봤는데 동상 작가의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조만간 철거될 예정이라고 한다. 철거가 되더라도 전태일 열사의 정신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태일 동상으로 가는 길]



[전태일 기념관]

우리는 이어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으로 향했다. 전태일 기념관 시민전시실, 공연장, 상설 전시실, 사무실,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의 시설이 있었다. 우리는 3층 상설전시실을 살펴봤다. 전시실에선 전태일의 일생과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시다들에게 보여줬던 따뜻한 사랑, 그리고 바보회와 삼동회를 만들었던 것, 전태일이 구상했던 노동자들을 위한 직장 '태일상사'까지 다양한 전시를 통해 전태일의 삶과 그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전시실 중 간에는 당시 평화시장에서 시다들이 일했던 공

간을 구현해놓은 곳이 있었는데, 정말 일어설 수도 없는 작은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있어야 했고, 원단을 다루는 일이니 작은 원단 조각 들이 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시회 마지막쯤에는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있었다. 내용을 보니 70,80년대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현재는 구로공단을 떠나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며 열악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 같았다. 보고있을 때 전시실 담당자 분이 오셔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셨다. 예전에 구로공단에서 힘들게 일하던 노동자들은 현재는 그곳에 남아있지 않지만, 구로공단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이었다. 이제는 그 열악한 노동환경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씁쓸해졌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이후에 노동인권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노동시간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전히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은 맞는 것 같다. 빵 만들다가 죽기도 하고, 발전소



[전태일 기념관 상설전시실]

에서도 죽고, 노동환경과 노조 탄압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일하다 다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것 같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다. 당장에 내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주변에 관심이 없으면 평화로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내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눈감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번 탐방을 통해서도 하루하루 여러 역사 유적들을 방문하며 내가 점점 깨어나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다.

이제 마지막 탐방지 **명동성당**으로 가보자. 1987년 6월 10일 호헌철폐 국민대회가 열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22개 도시에서 24만명이 동시다발로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런 시위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항쟁의 불씨로 타오른 것은 명동성당 농성 때문이었다. 근처에서 시위를 하던 학생들은 경찰에 쫓겨 명동성당으로 모이게 되었고 여기서 농성을 계속할지 해산할지를 결정했다. 계획되지 않은 농성이었지만 6월 10일 이후 새로운 투쟁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결정했다. 이것을 변곡점으로 6·10항쟁은 지속력을 가지고 확장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내게 되었다.

지금의 명동성당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였다는 표식이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이 자리에서 민주화의 불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명동성당]

## 7. 탐방 후기

### 정준호

일종의 일탈이었다. 신청 이후 명분이 주어졌고 사전 조사와 후속 공부라는 핑계로 2달간 얼마든지 공부하고 토론했다.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하고 싶은 활동과 공부가 떠올라도 현실과 타협하고 내 일을 해나가야 할 때가 있는데 “민주주의탐방 해야되니까!”는 정말 행복한 명분이었다. 본업이 후순위가 될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 업보는 미래의 우리가 짊어지고 일에 치이더라도 행복한 사고일듯하다. 보고서 작성도 시간적 여유만 있었다면 더 깊은 이야기로 책 한 권을 낼 자신이 있을 정도다. 그렇기에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

부평의 사적지는 탐방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더 쉽고 재밌게 전하기 위해서 깊은 공부가 되었으며 다른 청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지역의 사적지들을 알릴 수 있어서 큰 효능감을 얻었다.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기본권이 극도로 억압됐던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전할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일본육군조병창으로 대표했던 부평의 이야기는 다른 주제와는 달리 저항도 할 수 없었던 민주주의가 가장 위기에 빠졌던 시기였다. 또한 국토 방위를 위한 미군주둔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캠프마켓이라는 공간의 해설을 통해 미군과 미국에 의해 자주권을 빼앗겼다는 시사점도 던졌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더 깊게 공부해보려고 한다.

전태일과 노동권 공부를 위해 찾았던 서울에서는 또 다른 과제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구로구 가리봉동 쪽방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탈출했고 노동권이 높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고용이 이주노동자로 넘어갔을 뿐이고 그저 대체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스러움과 많은 고민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개방 확대되어가고 있고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며 이주민들 역시 우리와 같은 사회적 일원으로 받아들이야 할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근현대사를 둘러보고 다음 과제를 찾아보려고 했던 취지에도 일부 부합한 듯하다. 해당 주제에 대해선 주변 동료들과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한다.

여수와 제주 둘 다 유족회가 아닌 연구소를 찾았던 것도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다른 목적성 없이 진심으로 공부와 탐방을 위해 방문하였고 깊은 얕든 당사자성을 갖고 있다 보니 민감한 주제임에도 우리도, 연구소도 서로 간의 신뢰로 마음 편하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가해한 가슴 아픈 역사를 주변 청년들에게 전할 방법도 고민해보게 되었다. 나는 매년 제주에 휴양하러 갈 때면 주로 구좌읍 세화리 인근을 찾곤 했다. 그곳의 한적함과 시내나 서귀포와는 다른 제주만의 분위기가 좋았다. 그럼에도 다량취굴이 구좌읍이라는 사실은 이번에 알게 되었다. 이번 겨울엔 후속 공부를 위해 2박 3일 정도 구좌를 찾을 예정이다.



아직 우리의 민주주의현장탐방은 끝나지 않았다. 사전공부가 부족해 다루지 못했던 죽산 조봉암 선생님에 관한 공부도 이어가고 있고 더욱 깊은 공부를 위해 다음 주 발족하는 죽산 조봉암 청년기획단에 함께 하기로 했다. 좋은 탐방 기회를 주신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탐방 후기를 보면서 아직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명분과 핑계를 얻어가길 강력하게 추천한다.

“아, 나 이거 민주주의탐방 때문에 하는 거야~”

### 흥미연

우리의 현장탐방은 약 두 달 동안 진행되었다. 서로의 현생이 있는데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정말 많은 역사 유적지를 돌아봤다. 아쉽게도 신청 당시 기입하지 않아 보고서에 작성하지 않은 유적지도 많다. 이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 곳들도 있었지만 이번에 탐방을 하면서는 조금 다른점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우선, 인천에서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었다. 나는 그래도 역사공부도 많이 했고, 촛불시위나 여러 집회에도 많이 참여해봤는데 인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거의 알지 못했다. 그리고 관심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걸 그냥 단순히 내가 관심이 없어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다.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왜 알려주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중요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려지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역사는 분명히 지나간 과거가 맞다. 하지만 과거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자 미래이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도, 강제징용 문제도, 4·19나 4·3, 여순사건과 같은 국가폭력의 문제도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시는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가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끝맺음을 지어야 한다.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유적지들이 생각보다 많고, 생각보다 보존이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처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도 유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어려웠다. 4·3이나 여순사건, 전태일은 기록관이 있어서 그래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인천5·3항쟁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다. 5·3뿐만 아니라 인천에서의 여러 민주화운동이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다. 우리가 미래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역사를 기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 교육, 활동들이 너무나도 절실한 것 같다. 내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지만, 인천민주화운동센터나 지역의 역사연구소들과 같이 이런 활동을 중심에 두고하는 단체들에 관심도 많아지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이번 탐방의 내용도 기억에서 잊혀질지도 모른다. 한 번의 탐방을 했다고, 다 알게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탐방, 민주주의 탐방을 계속해나가야겠다.

우리 팀이름은 4월부터 6월까지였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6월부터’ 시작한다.



## 8. 자료 출처

- 6월항쟁공식홈페이지 (<https://www.610.or.kr/>)
- 제주4·30아카이브 (<http://43archives.or.kr/main.do>)
- 서울신문 (71년 전 여순사건, 98장 사진으로…미공개 25장)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9500055>)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https://idph.kr/>)
- 4.19혁명디지털아카이브 (<http://www.1960419.com/>)

2023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자료집

# 민주야 여행가자!

# 07

사남매와 깍두기 팀

김성준

최주현

김수민



## 1. 팀소개

안녕하세요. 사남매와 깍두기의 이예나입니다.

인천에서 청년활동가들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알게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서 하는 <민주야! 여행가자>라는 청년민주주의 현장탐방 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남매와 깍두기

유쾌하고 사교성 좋은 저는 사남매 중 둘째입니다!

위로 2살 터울의 언니와 아래로 8살, 11살 터울의 야옹이와 재능이와 함께 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깍두기는 뭔지 궁금하시죠? 저희 언니의 귀여운 아기 삼남매예요! (+제 옆작공 믿는구석) 원래 진짜 맛있는 칼국수집이나 국밥집가면 깍두기가 맛집이잖아요><

이번 민주주의현장탐방에 깍두기들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 2. 강원 원주<원동성당>





1937년도에 처음 세워진 원주 원동성당은  
국가등록문화재로도 지정된 곳으로  
처음에 지어졌던 성당건물은 6·25전쟁때 전소되어 다시 재건하였다고해요.  
원주 원동성당은 1970년대~1980년대의

한국민주화시기에 ‘원주선언’등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에요.  
원주선언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까요?

### #원주선언

1976년 1월23일

민주정치를 촉구하는 재야인사들은〈3·1민주국국선언〉을 하게되는데 이 민주구국선언의 모태가 원주선언과 전기도회 설교구속사건이다.

국가주의와 정부우월주의로 유신총통하던 박정희는 긴급조치 9호를 불법적으로 발동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였다.

국가는 있되, 국민은 없었다. 유신총통과 그 세력들만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신인과 언론인, 성직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던중 천주교 원주교구장 지학순이 분노하며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양심선언(유신헌법은 무효다)을 했다.

양심선언 내용은 “유신헌법은 폭력과 공갈과 국민투표라는 사기극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무효이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종교계 고위성직자가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불을 지핀 셈이된 것이다.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으로 중앙정보부에 의해 곧바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 구금된다.

이를 계기로 천주교에서는 젊은 사제들을 중심으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결성된

다.(1974.7.23.) 그리고 원주교구와 전국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의 사제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의 정의와 민주화를 염원하는 그리스도교 신구합동기도회를 개최하며 유신체제 반대를 거듭 주장하였다.

박정희 유신총통은 유신헌법 찬반과 대통령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1975.2.18)를 하고 가톨릭계와의 관계악화를 우려하여 지학순을 석방하고 긴급조치9호를 발동한다.(1976.1.23) 이에 원주교구와 민중정치를 촉구하는 재야인사들은 지학순의 출소환영+원동성당에서 집회·정치참여 금지하는 ‘긴급조치9호’에 반대하는 9개항을 담은 원주선언을 하게된다.

〈우리 신·구교 성직자는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가진 일치주간 행사에 참석하고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소서’(요한 17,21) 하신 구세주의 기도를 우리의 그것으로 확인하였다. 인간은 한 어버이신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 특히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은 곧 하느님께 대한 사랑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이제 우리 신·구교회는 전 민중과의 일치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견해를 이에 밝힌다.

## 원주선언 전문

1. 베트남 사태 이후 안보문제가 국민적인 중대 관심사로 대두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안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총화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관하여 다음 두 가지 극히 중요한 관점을 지적하고 명백히 해둘 필요를 느낀다.

첫째 안보의 목적이 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즉 무엇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명백해야 하며 절대로 흐려져서는 안된다는 것.

둘째 총화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을 이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서 밝혀지고 합의되지 아니 하거나 집권층에 의하여 왜곡될 때는 안보니 총화니 하는 구호가 도리어 자유를 질식시키고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음으로써 참된 안보와 총화를 해치게 하는 구실로 악용될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 안보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유보 내지는 사실상 포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절도를 피하기 위하여 가진 재산을 모두 불태워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2. 우리는 역사적인 상황과 풍토에 따라 민주주의의 실제 운용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근본 이념이 있고 또한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파괴될 때는 이미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아니 하는 것이다.

그 근본이념이란 국가권력의 절대성, 무오류성을 부인하고 견해와 이익의 다양성과 가치의 상대주의를 용납하며 국가권력을 민중의 자유에 대한 가상 적으로 규정하여 부단히 감시, 견제, 제한하는 비판정신을 장려하는 데 있다.

그 최소한의 원칙들이란 주권재민, 기본적 인권의 최고 우월성 보장, 인신구속영장제도, 죄형법정주의, 비판적 언론의 자유, 신앙·사상·양심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생존권 특히 노동 3권의 보장, 3권 분리의 원칙에서 특히 사법권과 입법권의 행정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당 활동의 자유, 그리고 공명선거의 보장 등이다.



3. 국민총화란 국민 각자가 평등하고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가운데서 저절로 우리나라는 화해정신을 기초로 하여 평등과 자유와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보장하는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지킬 것이라는 자발적 의지로 뭉치는 것을 말한다. 불평등 속의 총화나 억압에 의한 총화란 논리적으로도 모순되는 개념이며 현실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환상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민총화의 적은 바로 부패와 특권이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억압과 착취의 질서이며 그로 인한 민권과 민생의 위축과 지나친 사회불균 등이다. 총화는 침묵이 아니며 총화의 적은 비판과 저항이 아니다.

4. 우리는 민주인사들을 비애국으로 탄압하면서 애국과 안보를 혼자 떠맡는 듯이 하던 티우와 론 놀, 바로 그들이 결정적인 시기에 조국을 버리고 거금을 써서 도망친 사실을 깊이 음미해야 한다. ‘배는 난파되어도 선장용의 구명 보트만은 안전했다’는 사실은 압제자의 운명과 민중의 운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일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웅변해 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민중의 입장에 서서 사태를 보는 데 반하여 억압자는 시종일관 영구집권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으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5. 베트남 사태 이후 안보독재체제의 강화와 정비작업으로서 현 정권이 추진해온 주요 조치는 형법 개정, 전시상태 선언, 긴급조치 선포, 민방위대 조직, 사회안전법 제정, 방위성금의 강징과 방위세의 신설 등 각종 조세의 증과다. 또 통·반장 조직 등 전 국민에 대한 사찰과 밀고조직의 확대, 학원·종교·언론에 대한 사찰과 통제의 강화, 그리고 민주인사와 학생들의 투옥과 재판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극단적인 억압정책은 일시적으로는 민중을 침묵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사멸시키게 된다. 이 결과 국민의 안보의지를 약화시키고 국민 내부의 불안과 분열을 누적, 심화시킴으로써 국민총화를 파탄시키는 물론 우리 나라를 국제적 고립화와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와 같은 모든 억압 조치들이 낱낱이 철회, 취소,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6. 근래 민주인사들에 대한 현 정권의 탄압은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김대중 씨에 대한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은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탄압을 위한 것이다. 박형규 목사 등에 대한 이른 바 선교자금 횡령사건 재판은 현 정권의 종교탄압이 거의 광태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돈 준 사람이 잘 썼다고 칭찬하는 터에 횡령이니 배임이니 하는 죄목을 붙인 초법리적인 억지 재판은 민중의 편에 서서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우는 오늘날의 신·구교회의 역누를 수 없는 지향에 대한 어리석은 도전인 것이다.

김지하 사건은 민주세력 파괴 책동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현 정권은 그를 공산주의로 모는 일방적인 선전 책자를 대량으로 배포하였으며 6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을 할 수 없게 되자 75년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무기수로 만들었다. 그에게 가해지고 있는 갖가지의 박해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마치 불온서적시하여 차입해 주지 않는 데 대하여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엄숙히 항의한다. 정치보복이라는 설명 외는 납득할 길이 없는 김철씨에 대한 구속 기소도 시간을 끌면 끝수룩 만인의 조소를 살 뿐이다. 이밖에도 많은 학생들이 다시 영장도 없이 투옥되었으며 민주세력에 대한 사찰과 감시는 전례없이 강화되었다. 우리는 현 정권이 위에서 말한 모든 수치스러운 재판 놀음을 즉각 걷어치우고 투옥된 민주인사, 애국학생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오늘의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한다.

7. 오늘날 우리 민중의 생활은 국민경제의 대외예속, 관료 독점자본주의의 부패성과 특권성, 그리고 이들로 인한 필연적 귀결인 물가고와 저임금, 중과세를 기초로 한 대중 핍박정책 등으로 도탄에 빠져 있다. 그러므로 국민경제의 대외의존을 막고 전 국민이 외국자본의 채무노예, 임금노예로 전락되어가는 현실을 광정(匡正)하는 것이 총화와 안보를 위한 또 하나의 선결조건이다. 또한 저곡가, 저임금정책을 펼쳐버리고 특권경제를 폐지하여야 하며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며 노동운동, 농어민운동 등을 인정, 민중의 생존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아울러 도시 빈민, 판자촌 주민의 생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8. 외세에 의해 갈라진 조국을 재통일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존엄과 화해의 정신에 입각한 자주 외교를 펴야 한다. 이는 오늘날의 세기사(世紀史)가 동서간의 긴장완화와 모든 민족이 자주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대로 향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지상과제다.

국민상호간의 우의와 신뢰에 기초하지 아니 한 관변을 통한 구결외교, 기생외교로 민족적 긍지를 추락시키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더우기 오늘날 세계의 모순과 대립이 동서의 대결에서 남북의 대결로 옮겨가고 있어 반식민, 평화공존, 비동맹, 피압박 민족의 단결인 제3세계 운동이 하나의 대조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 신·구교회가 제3세계 사목운동을 전개하고 있음도 이에 연유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제3세계에서 버림받고 있음은 본질적으로 밖으로는 냉전시대의 유물인 강대국 일변도 외교를 청산하지 못하고 안으로는 독자적 억압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9.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지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할 최대의 재앙인 까닭에 우리는 이의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전 상태와 휴전협정의 불안정한 지속이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와 민족의 재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남북대화를 진전시켜야 된다. 평화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패배한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정신만이 현재의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이며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 자주와 자립의 길을 찾는 정도이며 실추된 민족적 긍지와 자부를 되찾는 길임을 거듭 확인하는 바이다.

초안 서명자 신현봉 신부 외 7인 (함세웅, 김택암, 함석현, 문익환, 문동환, 서남동, 조화순)

1976년 1월 23일

## 다녀온 소감

어릴 때 부터 외할머니가 원주에 살고 계시지만, 시골에 계셔서 할머니 집외에 특별히 다녀온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남매가 직접 운전하며 탐방한 첫 여행이었습니다.

올해 원주는 아카데미 극장 이슈로 계속 저의 궁금증이 닿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원주에 뜨거운 이야기와 민주화운동이야기를 조금더 파헤쳐보고 싶어서 원동성당을 방문하게되었습니다. 원동성당의 첫 이미지는 성스럽고 경건한 느낌이 들어서, 차분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드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원주선언으로 민주주의의 불씨가 된 곳이라고 하니 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사의 시발점이라는 부분과 원주선언전문을 함께 나눠 읽은 뒤 ‘이 역사들이 있었기에 자유롭고 인권을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다행이었고, 한편으로는 원주선언의 전문이 오늘날에도 불씨가 되어 사회 곳곳에 민주화바람으로 불어주어 다시 적용토록 불씨가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3. 경기 이천<민주화운동기념공원>

145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다양하게 체험하며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를 배우고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지는 곳이었습니다. 시대별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들과 설명을 함께 보여주며 시청각 자료들을 10분 활용하여 어린아이들이나 민주화운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꾸며 놓은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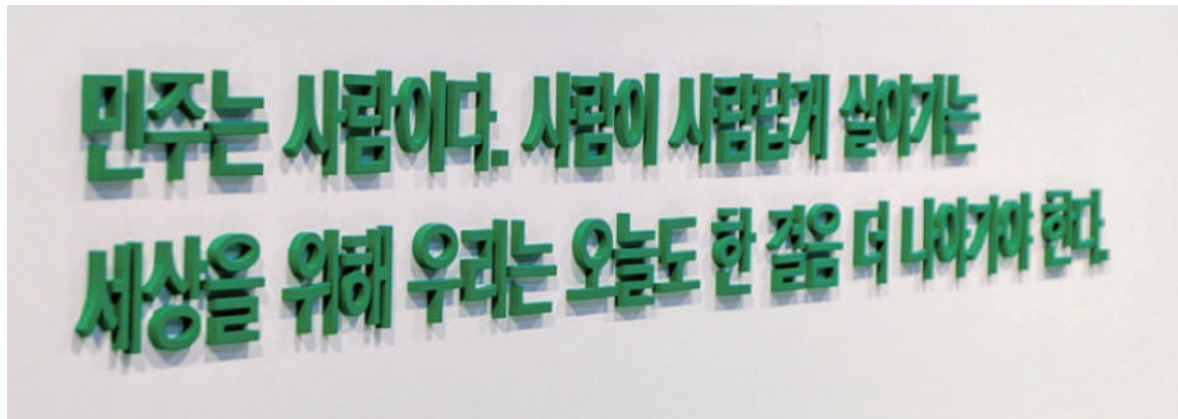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이 무겁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영상과 음악 등으로 준비되어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릴적 엄마아빠가 부르시던 아침이슬-양희은 노래가 민중가요인지 몰랐었는데, 민중가요 플레이리스트에 있어서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지금 다시 가사를 곱씹어보니 민중가요는 시민사회운동만을 위한 것이 아닌 시대의 아픔을 녹인 노래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아침이슬 - 양희은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맘에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 낮에 찌는 더위는 나에 시련 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에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 낮에 찌는 더위는 나에 시련 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또한 시위때마다 예술가들이 의제와 이슈로 판화 등 여러 작품들을 만들어 나누어주거나 벽에 찍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멋졌습니다.



민주'는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제2전시실 중간 쯤 적혀있는 문구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 4. 인천 부평<캠프마켓&부평공원>



사남매의 고향인 인천!

마계인천이라 우스갯소리로 칭하던 인천에는 사실 슬픈역사가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부평 #청년소리에서 함께 투어하면서 알게 된 <부평캠프마켓>의 역사를 알게되었어요.

부평 캠프마켓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면서도 지난 80여년간 단절되었던 슬픔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 일제강점기때 일본군의 부평연습장을 거쳐 일본 육군 조병창으로 사용되다가,

광복 이후에는 미군의 군수기지로 사용되며 우리의 주권이 미



치지 못한채 단절되었던 곳이에요. 2019년 정화과정을 거쳐 다시 시민 품으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반환될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할 대상입니다. 최근 친해진 예술인청년 중에서 엠키님이 연출하신 <뮤지컬연노운>도 인천 캠프마켓 조병창이야기여서 더욱 관심갖고 꼭 방문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역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자 반드시 기억하고 끝끝내 극복해야 할 역사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좌측엔 부평근로자상이 있습니다.





조병창 이야기에서 본 징용의 현장,

일본 제국주의 치하 일본 육군에 의해 조병창을 중심으로 자행된 징용과 인권유린, 노동착취, 그리고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해방을 주제로 제작된 작품이라는〈해방의 예감〉은 역사를 담고 있는 동시에 상당히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아픈 역사의 현장인 부평공원에 기념비만 뿔뿔 남겨진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부평근로자상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아픔과 모멸의 슬픈 역사를 청산하고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는 동시에 전쟁 반대 평화 수호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인천시민들의 뜻을 모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부평에 있는 평화의소녀상은 다른 평화의소녀상과는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던 평화의소녀상은 보통 앉아있는데, 이 소녀상은어깨에 새가 올라가 있고 주먹을 불끈 쥐고 두 다리로 굳게 서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희망을 상징하는 파랑새와 더는 가만히 있지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은 것 처럼 보였습니다. 인천시민 모두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과거를 기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다시한번 민주주의를 얻기위한 많은 분들의 희생과 피로 쓴 역사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023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자료집

# 시대에 따른 민주주의 변천사

#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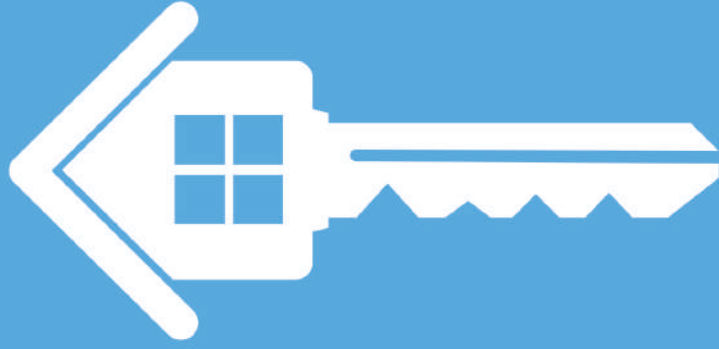
새내기 동맹 팀

전봉준

백정기

김한승





# 민주야 여행가자!

2023 청년민주주의 현장탐방-새내기 동맹

<http://www.free-powerpoint-templates-design.com>

# 탐방 계획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 탐방

시대에 따라 국민의 권리 발전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며 권리 신장의 역사  
체험

인천권 이주주민 클러스터 : 제주 탐방

# 근현대사 기념관

## 민주주의 역사 탐방



자유, 평등, 민주의 이념이  
담긴 역사를 기록한 곳





# 강남역 평범부



## 6월 민주항쟁 기념표지석

인천 시민이 하나되어 모였던  
민주주의의 열기가 있는 곳



# 독립기념관

## 피탈당한 국권을 되찾은 날



수 많은 이들과  
많은 이들이  
독립을  
찾고  
희생으로







# 정읍시 충무 공원



정읍을 빛낸 위인

전봉준, 백정기, 김한승



# 여행을 다녀온 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을  
때라는 시간

힘과 열시는 사회 약자를 향해 여전히



2023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자료집

# 민주야 여행가자!



# 09

방위 팀

방웅제

위고은



# 방위탑

이것이 민주야 민중의 삶  
민중의 삶이 민주야

방위탑

## 2023 인천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기

탐방  
인원

민주야 놀러가자 with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023

# 탐방개요

2023년 초가을, 인천에서 활동하는 방응제, 위고는 두 명의 청년활동가는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공모사업의 도움을 받아 민주주의 현장탐방을 기획한다.

이 탐방 목적은 멀지 않은 곳, 우리가 매 번 지나다니는 곳, 보고도 못 봤을

그런 곳곳에 남아있는 민주주의의 흔적들을 찾아가 발굴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힘써왔던 수 많은 순국선열들의 일을 기리고자 함 이었다.



## 2023 인천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기

민주야 놀러가자 with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023

방위  
팀  
인원

4 1 9 학생의거기념탑 방문

# 첫째 날



파란 가을하늘 아래 인천기재공고 럭비부 학생들이 열심히 훈련 중이다.

파랏파랏한 청춘들 옆으로 운동장 스탠드 한 켠에는 4.19 학생의거기념탑과 6.25 참전학도병명비가 우뚝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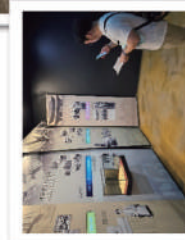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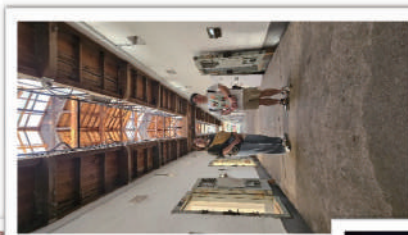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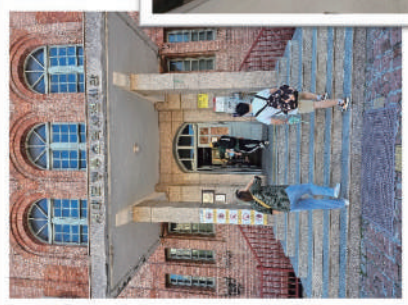
63년 전 부정선거에 맞서 싸운 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지금 저 학생들만큼 어린 청춘들이 섞여 있었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춘을 바친 선배님들의 용기, 잊지 말아야겠다.

## 2023 인천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기

민주야 놀러가자 with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023

팀방  
인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방문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았다.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저항했던  
항일운동가들을 체포하여 수용하기 위해 경성감옥으로  
개조하였다.

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진 고문과 치욕을 전디다 전디다 옥사하였다.  
은 국민의 바램대로 긴 어둠에도 끝이 왔건만,  
해방 이후에는 서대문형무소라는 이름으로 민주화운동 투사  
들을 모질게 고문하고 잡아두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인증샷을 남기기도 죄송스러운 그런 장소기 아닐까 싶다.

문 제 문

## 2023 인천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기

방위  
팀  
인원

민주야 놀러가자 with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023

# 들 제 날

전태일 거리 방문

동대문시장 옆 청제천변 보도에는  
'전태일 거리'가 조성되어있다.  
노동운동들 위해 뜻을 모았던 단체,  
기업들의 동판이 거리 여기저기  
새쳐져 있고, 전태일 다리로 가면  
다리 위에서 청제천을 내려다보는  
전태일 열사를 만날 수 있다.  
1970년 11월 13일 뜨겁게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신설'도 '개정'도 아닌  
'준수'였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 아플 뿐이다.





## 2023 인천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기

민주야 놀러가자 with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023

팀방  
인원

# 셋째날

419 혁명 기념비 방문

강화도에 있는 강화중학교에는  
419 혁명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기념비는 정문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위치에 멀찍히 서 있었다.  
1960년에는 강화의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맞서기 위해 뜻을 모았고,  
61년 후에는 그 후배들이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았다.  
잊혀지지 않는 법  
그것은 잊지 않는 것 뿐이다.



## 2023 인천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기

범위  
팀원

민주야 놀러가자 with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023



죽산 조봉암 선생 생가터 방문

# 셋째 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죽산 조봉암선생 생가터.  
조봉암 선생은 청년 시절엔 독립운동을,  
독립 후에는 이승만의 독재정권에 맞서 정치활동을  
하시다가 진보당 창당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트집  
잡혀 형장의 이슬로 서거하셨다.

조봉암 선생이 구금되고, 교수형을 언도 받은  
곳이 우리가 둘째 날 찾아갔던 서대문형무소이다.  
독립부터 민주화운동까지, 우리의 짧은 발전취를  
인생으로 겪은 분이다.

## 2023 인천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기

탐방  
인원

민주야 놀러가자 with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023

# 마 치 며

민주주의 발자취를 밟아 보자

인천에서 시작된 우리의 짧은 여행은 강화에서 끝이 났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부터, 독립 후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까지  
한 세기에 걸친 순국선열들의 투쟁의 기록들이 때로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때로는 슬픔에 숨을 쉬기 힘들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미있는 구경을 할 수 있는 평안한 일상들이 절대로  
거저 얻은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닫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기회였다. 많은 선배님들의 피땀과 노력으로 일궈 놓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잊지 않는 것이다.



